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새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계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계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5747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믿는 믿음. 올바른 가르침.....	7
8634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의 역사적인 증거.....	9
8963 복음서는 진리에 합당한가?.....	10
하나님을 떠나 타락이 예수의 사명의 원인.....	12
7067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일.....	12
8702 창조물 안의 존재의 느린 성장 과정.....	16
5802 아담. 원래 초기의 영. 루시퍼의 시도. 형체를 파괴한 일.....	18
6130 그리스도가 임한 이유. 궁휼의 역사.....	21
예수의 영혼과 몸.....	23
6642 예수의 혼.....	23
8586 예수의 육체는 무엇이었는가?.....	24
8620 계시 번호 8586 계시에 추가 사항: 예수의 육체는 무엇인가?.....	26
8750 예수의 혼은 하나님의 성육신하기 전에 육신을 입었는가?.....	27
7250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증거.....	29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육신.....	32
8537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32
8141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34
6719 내가 직접 이 땅에 임했다.....	36
7731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간이 되심.....	37
8250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심.....	38
예수의 탄생.....	40
6673 처녀의 임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빛의 혼의 유리한 점.....	40
6951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 오셨다.....	44
7237 그리스도의 탄생.....	45
7780 빛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	47
예수의 유년기와 청년기.....	49
3634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너희는 몰랐느냐?".....	49
5551 아기 예수의 기적.....	50
8486 예수의 공생애 전의 삶.....	51
유혹에 맞서 싸운 예수.....	55
7056 시험에 대항하는 예수의 싸움.....	55

7872 인간 예수의 투쟁.....	56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과 사랑의 역사.....	59
4000 성경의 내용. 사랑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명. 기록.....	59
6145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60
8454 예수는 이 땅에서 사랑을 가르쳤다.....	61
5282 연약한 자와 병든 자와 궁핍한 자에게 오시는 예수님.....	63
8308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	64
예수의 사랑에 관한 가르침들.....	66
2147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머문다.”.....	66
3460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66
3624 어린 아이처럼 되라.....	67
3767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68
3927 굳은 믿음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는 일.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69
4360 선한 목자의 비유.....	70
4408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72
4580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73
4662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75
5336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76
5508 "다 내게로 오라.".....	77
6968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78
7057 나는 겸손한 사람에게 내 은혜를 베푼다.....	80
7075 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81
7501 나는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다.....	83
7702 요한복음 14 장.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84
8786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다.....	85
2437 자연에서 일어나는 징조. 이 땅에서 예수를 거론하는 일.....	87
4575 사람들은 홍수 전의 때처럼 먹고 마신다.....	88
4639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큰 환란.....	89
5029 "하늘나라의 세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는 일. 휴거.....	90
종말에 대한 예수의 언급.....	92
7225 나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 이 날을 줄여 줄 것이다.....	92
6135 받아먹으라.....	93
7120 성찬식과 사랑.....	94

7666 임명할 때 주는 말씀.....	95
3740 “나를 기억하며 실행하라.” 주의 성찬.....	96
예수의 최후의 만찬.....	99
6088 예수는 자신의 역사를 미리 알았다.....	99
7278 인간 예수의 고난과 두려움.....	100
7328 예수님이 체포당한 후에 제자들의 의심.....	101
5643 고난의 금요일. 골고다를 향한 길.....	102
예수의 두려움과 제자들의 의심.....	104
6233 고난과 죽음.....	104
7992 인간 예수의 자유의지.....	105
5092 성 금요일 1951년 3월 23일.....	106
예수의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죽음.....	108
7083 고난의 금요일.....	108
7758 십자가 상의 주님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	109
7764 십자가 상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110
8201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112
8964 고난의 금요일.....	113
7668 다 이루었다.....	114
6513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속죄.....	116
6600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117
7019 십자가의 희생 제사는 영원한 시간을 위해 드려진 것이다.....	119
8222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120
예수의 구속역사.....	122
5934 1954년.....	122
6810 3일 후에 부활.....	123
7086 예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자신의 가시를 잊게 되었다.....	125
1739 예수의 영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126
예수의 부활.....	129
2345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혼은 하나님께 향했다.....	129
8422 예수는 하나님이다.....	130
8574 예수의 몸이 영화 됨.....	131
예수의 변형 - 예수의 혼과 몸의 영화.....	134

7693 예수의 부활과 영화.....	134
6315 지옥으로 내려간 일.....	135
6531 지옥으로 내려간 일. 루시퍼의 저항.....	136
6543 지옥으로 내려간 일.....	138
7320 삼일 만에 부활하심.....	139
 지옥을 방문한 예수.....	141
7579 부활절.....	141
3622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변형.....	142
7358 예수의 승천.....	143
 부활 후 예수의 나타남.....	145
8506 예수의 승천.....	145
7148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깨우침을 받았다.....	146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148
7897 오순절의 체험.....	148
8803 제자들에게 영을 부어주고 현재에도 부어준다.....	149
8375 예수님�이 세운 교회의 시작.....	150
 성령을 부어주심.....	152
3297 죄를 사해주거나 사해주지 않는 일. 예수님의 제자들.....	152
4942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54
8836 사도행전 7장 55-56 절에 관해.....	156
 그리스도의 교회.....	158
8890 얼마 동안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순수하게 유지가 되었는가?.....	158
3768 그리스도의 두 번째 탄생.....	159
4847 그리스도의 재림 과정. 승천.....	160
6037 주님의 재림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함).....	162
2304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세계관.....	163
 그리스도의 재림.....	165
3277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했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165
5844 인정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166
5847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고난.....	167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과 예수를 따르는 삶.....	169
8973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든다.....	169

6169 예수 이름이 마귀를 물리친다.....	170
7035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강한 의지를 얻는 일. 의지의 평가.....	171
7442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172
8983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아래로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174
3920 예수를 따르는 길.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길.....	175
8019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	176
6363 모든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	178
7622 예수님을 따르는 일.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는 일.....	179
5733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예수 그리스도.....	180
7129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일.....	181
6850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의 문을 열었다.....	182
7290 저세상과의 간격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	183
878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	185
6700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자유를 얻는 일. 예수 그리스도.....	187
저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189
6333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189
8464 이웃에게 예수에 관해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사명.....	190
4831 세상 앞에서 고백하는 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	191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믿는 믿음. 올바른 가르침.

B.D. No. 5747

1953년 8월 15일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제공한다. 이 땅에서 너희의 의지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싸움에서 너희가 실패할 위험에 처해있다. 왜냐면 너희가 올바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의 의지가 아직 연약하고,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은 의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수단이다. 그러나 인류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없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사람 안에 이를 믿는 믿음이 다시 생겨야 한다. 왜냐면 이런 믿음이 없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육신과 그의 구속역사에 대한 지식이 먼저 사람들 안에서 다시 생명력이 있게 돼야 한다. 사람들이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성취해야 했던 사명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이 사명이 필요한 이유와 인간 예수의 혼이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을 드린 이유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세주에 대한 진실된 지식이 제공돼야 한다. 이로써 이제 믿음이 생기고 생명력이 있게 돼야 한다. 왜냐면 그러면 이 땅의 목표를 성취하는 일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님이 육신을 입은 문제를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사람들에게 창조와 창조의 목적과 창조물의 기원과 전체 창조 역사의 이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야 한다. 이로써 그가 이제 이 땅에서 의미와 목적에 따라 살 수 있게 돼야 하고, 그가 스스로 의미와 목적에 따라 살기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가 그의 이 땅의 삶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진리에 합당하게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고, 그가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기 위해 진리에 합당하게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고, 그가 올바른 수단을 사용하면, 성취할 수 있는 영적인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진리에 합당하게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내 말씀으로 가르친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단지 죽은 말씀이 되었고, 그들 자신이 실제 양육의 결과로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아직 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효력을 나타낼 수 없었다.

인류는 말씀을 활용하지 않고, 변형된 가르침을 문제로 삼으면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거부 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영을 통해 내 말씀을 생명력이 있게 만들지 않는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내 말씀을 아주 생명력이 있게 만들어 그들이 스스로 생명을 느끼게 하고, 그들 안에서 끊임없이 내 음성을 듣기 원하는 갈망이 깨어나게 하려는 시도를 한다. 나는 이런 시도를 단지 각 사람 자신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나와 더 이상 관계가 없고, 그들에게 교회의 지식으로 알려진 어떤 것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이제 다시 나에 의해 붙잡힘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다시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하도록 사랑으로 그들을 돌본다.

이 일을 위해 내 뜻대로 이제 나를 대신해 일하는 현신하는 종들이 나에게 필요하다. 내 종들은 내 음성을 듣고, 붙잡아, 전해야 한다. 나 자신이 느낌을 통해 그들에게 말하는 느낌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내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이 이제 받은 지식으로 일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과제의 중요성을 깨닫는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하다. 단지 이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 다시 생명이 깨어나게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열심으로 선포해야만 한다. 왜냐면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고 머물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인류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 땅의 삶의 과제를 완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말씀을 통해 알리는 일과 생명을 얻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백을 요구하는 일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나 자신을 계시한다는 증거가 돼야 한다. 진지하게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르침을 주는 분으로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증거를 찾을 것이다.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역사를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구원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가르침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의 존재를 믿으면,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부분 단지 순전히 세상적인 죽음으로 여기고 이 죽음을 선동자에게 내린 사형선고가 집행 된 일로 여긴다. 사람들은 이 일을 인간 예수가 권세에 대항해 지은 죄에 대한 법이 집행 된 한 사례로 본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어떤 구원도 줄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은 그가 모든 사람이지고 있는 큰 죄의 속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는 사람이 단지 이런 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구속사역의 이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죄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사는 인간들의 큰 원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예수의 구속사역을 설명해주는 영적인 연관 관계를 모르는 동안에는 사람들은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를 항상 단지 사명을 가졌다고 꾸며댄 인간으로 볼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이런 사망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고백하는 일이고 예수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의 큰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기 위해 예수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너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일의 큰 의미와 그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이에 관한 빛을 준다.

순수한 진리를 위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주는 내 특별한 역사만으로도 너희에게 이미 이에 대한 설명이 돼야만 한다. 왜냐면 십자가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 과정과 연관 된 모든 상황인 예수의 이 땅의 삶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고 영의 힘과 사랑의 힘을 모르고 모든 사람이 단지 부인할 그의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의 역사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믿는 것은 단지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전해진 것으로 증거를 통해 확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신화에 속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육체의 죽음 후에 축복된 영역으로 가기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깨달음을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줘야만 한다. 그들은 그들의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그들의 상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어떤 관계였는지에 달려 있다는 설명을 받아야만 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는 일을 쉽게 만들기 위한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에 합당하게 예수의 사명이 세상적인 이유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때문이라는 설명해 주면서 그의 이 땅의 삶을 설명해주는 일이고 예수의 구속사역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전하는 일도 해야 한다.

자신이 자원해 이런 지식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인간 예수의 아주 중요한 사명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이웃에게 예수를 고백

할 것이다. 세상적으로 이런 지식을 그에게 증명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영을 통해 이런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그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증거가 없이도 확신을 가지고 이를 믿고 스스로 진리를 위해 일한다.

만약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십자가로 향한 길을 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이 땅의 삶은 헛되게 되고 비록 그가 저세상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그에게는 단지 이 땅에서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 위한 많은 은혜가 헛되게 된다. 만약에 혼이 이 땅에서처럼 완고하고 빛의 존재가 그에게 주는 어떤 가르침도 영접하지 않으면, 혼은 저세상에서 작은 빛에도 도달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종말 전에 모든 일이 행해진다. 이를 통해 너희는 내가 계시를 주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에 관한 올바른 설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이 유지되도록 돌볼 것이고 항상 오류를 수정할 것이다. 왜냐면 진리가 단지 올바른 빛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진리를 갈망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주기를 구하면, 너희는 염려 없이 진리를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복음서는 진리에 합당한가?

B.D. No. 8963

1965년 4월 15일

너희가 진리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면, 너희가 관심을 갖는 질문은 이해할 만한 질문이다. 모든 곳이 변경 된 일은 부인할 수 없다. 왜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번역을 통해 또는 부분적으로는 모든 곳에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또는 아주 다양한 해석들을 지원하기 위해 변경을 시키기를 원하면, 내가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강요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원본으로 돌아가 비교하면, 원본의 기록들도 서로가 다르다. 그러나 내 가르침이 변개된 것은 아니고 내가 말한대로 내 말을 다시 나타내 준다. 왜냐면 내 말은 사라질 수 없고 사라질 수 없게 머물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누가 나로부터 내 신적인 사랑의 가르침과 내 사랑의 삶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았는지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대답할 수 있다.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고 그는 이 사명을 수행했다.

마찬 가지로 기록을 잘 하는 내 사도 마태도 기록을 남겼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더 많이 기록했다. 이로써 그는 나에게 신실한 종이었고 그의 기록에는 어떤 틀린 점도 없었다. 모든 기록자들이 한가지 일어난 일을 다르게 보았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왜냐면 내가 자주 같은 일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복음서가 사라졌고 같은 이름을 가진 나중에 그들이 나로부터 들은 것과 내 구속사역을 기록한 누가와 마가와 같이 영의 인도를 받은 제자들이 간신히다.

너희는 이제 그들이 내 영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을 신뢰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런 기록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영이 깨어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난 아주 작은 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상 내가 직접한 어록으

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내 말이 변경되는 일로부터 내 말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미 내가 말한 것에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행한 것처럼 비록 너희가 이런 내 말을 잘못 해석할 수 있을지라도 영이 깨어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일을 오류로 깨달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 염려 없이 모든 복음서들을 내 영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가 단지 서로 다른 시간에 주어진 것으로 볼 때 요한복음이 실제 내가 첫 번째로 준 복음서이다. 왜냐면 요한은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직접 체험했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도 염려할 것 없이 신뢰해도 된다. 왜냐면 서로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기록되는 시간이 흐름에 따른 아주 작은 변경은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번역자가 원본을 따라 엄격하게 번역하고 그들이 스스로 현재 쓰고 있는 언어에 맞게 변경시키지 않았다면, 복음서가 순수하게 남은 것으로 영접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에 맞게 변경시키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를 통해 의미가 전적으로 변화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깨닫기 위해 깨어난 영이 필요하고 비록 세상적인 공부가 영의 영역에 속할지라도 세상적인 학습은 깨닫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항상 또 다시 올바른 생각에서 유도 된 해석들이 있어 왔고 어떤 곳에서는 단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곳을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해석한 곳들이 있다.

나는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이를 막지 않았다. 그러나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는 너희가 올바른 설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가능한 한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말했던 내 말을 보호했다. 진지하여 근원을 알지 못하는 책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그는 이런 질문을 통해 그가 단지 순수한 진리를 사랑하고 이로써 영원한 진리인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멘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일.

B.D. No. 7067

1958년 3월 17일

너희 내면에 아직 어두운 곳이 밝게 되는 일이 내 뜻이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답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기 원하고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내 사랑과 지혜 가운데 나를 깨닫고 나 자신에게 그들의 사랑을 드리게 하기 위해 답변한다.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일은 영적인 과정이었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 자신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빛의 존재가 단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합당하게 이 과정의 대강의 윤곽만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럴지라도 이 윤곽은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를 밝게 해주는데 기여하는 깊은 이유와 끝 없이 많은 중간 과정이 생략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단지 진리를 가르침받기 원하는 너희를 혼란 된 생각 속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첫 번째 존재를 창조했을 때 단지 내 항상 발산되는 사랑의 힘을 받아야 하는 그릇을 창조하려는 생각을 했다. 왜냐면 내 제한 없는 사랑은 자신을 선물하고 항상 단지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의 힘은 쉬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영적인 창조물들을 생성했고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에 합당한 다시 말해 내 형상인 어떤 존재를 생성하기 원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다. 내 곁에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생성되었다. 나 자신이 그로 인해 기뻐했고 그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나 자신의 형상이고 이제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그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내가 그 안에 부어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내 힘의 원천이 형성하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존재는 자신 안에 자신에게 쉬지 않고 흘러가는 사랑의 힘의 흐름을 활용하고 자신이 존재들을 생성하려는 의지와 소원이 있었고 같은 과정이 이제 반복되었다. 왜냐면 내가 바로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가 자신과 같은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축복에 참여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 자신의 형상으로써 존재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나로부터 항상 사랑과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 존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놔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은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을 창조하는 역사를 일으켰다. 이제 창조 된 존재도 나 자신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와 다를 수 없었다. 존재들은 최고로 온전하고 빛을 발산하는 아주 권세 있고 모두가 나 자신이 나로부터 생성되게 한 형상에 합당한 영들이었다. 비록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의 의지가 이런 내 능력을 사용했을지라도 그가 창조 하는 일을 비로소 가능하게 해주었던 나로부터 흘러간 능력 때문에 나 자신이 그들의 창조자였다. 그러므로

로 모든 존재들이 나와 내 첫 번째 형상으로부터 생성되었고 모든 존재들은 같은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원래 창조 된 존재 안에 내 의지가 역사했고 원래 창조 된 영들의 무리들은 나를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왜냐면 내 사랑의 불길이 그들의 원래의 성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순수한 사랑의 생성물이고 이로써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은 나에게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축복된 조화와 계속하여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끝 없이 긴 시간이 흘러갔다. 이런 상태가 바뀔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창조하는 과정이 단지 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일은 나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 된 빛의 전달자인 존재가 나를 보려는 소원으로 인해 일어났다. 존재의 나를 향한 사랑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능력과 빛의 중심으로서 나에 의해 창조 된 존재들이 나를 볼 수 없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나를 보기 원했다. 나 자신의 빛의 불씨로 창조 된 그가 내 빛이 충만함으로 인해 소멸되었을 것이므로 보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가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나로부터 독립되게 만들고 동시에 원래 창조 된 영들의 무리 앞에서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내 보이려는 생각이 그를 스쳐 지나갔고 더 나은 깨달음에 반해 나를 보려는 갈망의 결과로써 그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모든 존재들은 온전함의 증거로써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항상 내 의지와 일치했다. 이 자유의지가 이런 생각의 혼돈을 허용했다. 그러므로 빛의 전달자인 루시퍼가 자신의 의지를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일이 나에 의해 금지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창조하는 일은 중단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그의 의지가 더 이상 내 의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내 사랑의 흐름에 자신을 닫았다. 그러나 항상 단지 잠시동안 닫았다. 왜냐면 아직 그의 저항이 아주 적어 사랑이 흘러갈 수 있었고 그가 전적으로 모두 나에게 다시 헌신했기 때문이다. 이는 능력의 흐름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줄어들지 않는 창조하는 일을 의미했다.

그러나 잘못 된 생각이 항상 또 다시 그 안에서 떠올랐다. 왜냐면 그가 이런 생각을 나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렸다면, 내가 이 생각에 반론을 제기했을 것이다. 그는 한동안 나를 제외시켰고 자신의 능력이 연약하게 되었음을 눈치 채지 못했다. (1968년 3월 16일) 그가 잘못 된 생각을 통해 나와의 연결을 느슨하게 하였을 때 사랑의 힘의 흐름도 줄었다. 그러나 그가 이미 내 능력을 사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생명으로 생성되게 한 셀 수 없이 많은 영들의 무리를 보면서 이를 의식하지 못했다.

내 능력이 비로소 그가 존재들을 창조할 수 있게 했다는 것과 그의 나를 향한 사랑이 비로소 그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항상 또 다시 강조해야만 했다. 이로써 그의 사랑이 줄어듦으로 능력의 제공이 줄어든 일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은 나와 루시퍼와의 연결에 대한 증명이었다. 그러므로 루시퍼가 의식적으로 나를 떠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어떤 존재도 창조할 수 없었다.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은 나로부터 나온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다.

그럴지라도 모든 존재들의 큰 부분이 나를 떠났다. 이런 사실이 존재들의 원래의 성분이 서로 다른 지에 대한 질문이 생길 만하게 한다. 나는 나로부터 단지 하나의 자립적인 존재를 생성했고 이 존재는 내 형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존재에 의해 생명으로 생성 된 영의 존재들은 다시 전적으로 나와 내 형상에 합당해야만 한다. 존재들은 똑같이 온전하고 최고로 빛을 발산하는 피조물이었다. 왜냐면 전적으로 같았던 우리 둘의 사랑과 의지로부터 첫 번째로 창조 된 빛의 전달자보다 어떤 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은 최고로 온전한 존재만이 단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도 비록 그들이 나를 볼 수 없을지라도 권세가 충만했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깨달았다. 왜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이다. 경외심 가운데 나를 섬길 자세가 되어 있고 항상 단지 내 뜻대로 역사하는 이로써 나 자신의 형상인 셀 수 없이 많은 영의 무리들이 최고로 축복된 가운데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였다. 이런 묘사할 수 없는 축복된 영의 무리들이 빛의 전달자의 나를 향한 사랑을 항상 더욱 증가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 안에서 여러가지 느낌들이 싸우기 시작했고 그는 영광스러운 빛나는 존재들을 보고 이제 나 자신을 보기 원했다. 그는 존재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이 나보다 월등하다고 믿었고 자신이 나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알았을지라도 나를 더 이상 모든 존재들을 생성한 분으로 인정하기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흘러가는 능력을 의식하는 가운데 힘의 원천을 떠났다. 이런 일은 영원한 기간을 통해 일어났다. 왜냐면 항상 또 다시 축복을 향한 갈망이 그를 나에게 향하게 재촉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기 위한 능력을 항상 또 다시 받았다.

이처럼 이런 존재들도 그들의 원래의 성분은 같았다. 다시 말해 나로부터 발산 된 사랑의 힘이었다. 그러나 한동안 나를 떠난 일이 창조 된 존재의 의지와 사랑이 나보다 그들을 생산한 자에게 더 향하면서 창조하는 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나는 이런 존재들과 빛의 전달자를 다르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정도로 빛이 충만했고 마찬가지로 나를 자신들의 창조주로 깨달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큰 결정을 요구하였을 때 그들의 의지가 자유한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1958년 3월 17일)

나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는 내가 모든 존재들과 분리될 수 없게 연결 된 것처럼 자신에 의해 생성 된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이 존재해야 하면, 내 사랑의 힘이 그들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이제 그에 의해 창조되는 존재들이 이미 나를 떠난 의지를 가졌을 때 그들과 연결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영의 존재들도 내 대적자에 의해 나를 떠나라는 자극을 받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내 대적자의 유혹에 넘어갔고 루시퍼는 이들을 깊은 곳으로 끌어 드렸다. 그들의 깨달음이 진실로 내 대적자의 비열한 계획을 혐오했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더욱 더 컸고 나에게 돌아오는 길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내 대적자를 추종하는 영들이 나를 떠났을지라도 초기에 창조 된 영들의 더 많은수가 나에게 머물렀다.

루시퍼가 나를 대적하기 시작한 숨겨진 저항은 셀 수 없이 많은 창조 된 영들이 의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나를 위한 또는 나를 대적하는 결정해야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저항이 지금까지 굳은 연합을 방해했고 한때 내 형상이었던 존재들을 같은 의지와 같은 사랑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고 분리가 일어났다. 이제 비록 내 능력이 그들을 창조하는데 참여했지만 그들을 생산한 자와 같은 성정을 가지게 된 우리의 사랑으로 생성된 존재들이 이런 분리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먼저 생성된 빛의 존재에게 이런 저항이 아직 없었고 빛의 전달자의 사랑과 의지가 전적으로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랑으로부터 단지 우리와 전적으로 동일한 존재들이 생성되었다. 존재들은 빛나는 충만한 빛과 제한이 없는 능력을 가진 나 자신과 동일한 내 사랑으로 나로부터 생성된 형상이었고 적은 수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나에게 머물렀다.

적은 수의 존재들에게 루시퍼 안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 존재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했고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했고 필요에 의해 나를 볼 수 없게 만든 것으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내려 볼 수 있는 존재를 자신의 창조주로 인정했다. 볼 수 있는 존재는 이제 자신을 높여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을 자기에게 끌어 드렸다. 그러므로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의지적으로 나를 떠났고 이로써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

모든 존재들이 한때 빛과 힘을 발산했다. 왜냐면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이 없이는 어떤 것도 생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빛의 발산은 먼저 나를 향한 루시퍼의 사랑이 줄어듦으로써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이 존재에게 깨달음의 빛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면 창조하는 순간에 내 사랑의 힘이 다시 모든 존재들을 생성한 자에게 충만하게 흘러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의지적으로 나에게 저항해 이제 그 자신이 나처럼 마찬가지로 능력이 충만하다고 믿고 능력의 흐름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능력을 받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이런 창조하는 순간은 항상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한때 내 형상이었던 그의 영의 상태는 어두워졌고 내 상극이 되었다. 그의 성품은 전적으로 나와 반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권세와 강함으로 착각했던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졌고 내 사랑으로 생성된 최고의 존재가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 왜냐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특징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그의 의지를 나에게 향할지 또는 그에게 향할지 택할 자유가 있었다. 모든 존재는 의지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왜냐면 모든 존재는 빛의 깨달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의 생산자의 재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타락한 존재들이 내 사랑을 잃지 않았다. 왜냐면 내 사랑이 존재들을 생성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존재들을 영원히 소멸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저항을 줄이기 전에는 내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이로써 불행할 것이다.

그러나 존재의 저항도 줄어들 것이다. 존재는 언젠가 다시 내 사랑을 구할 것이고 의식적으로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 존재는 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것이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존재에게 그들이 보기로 갈망했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아멘

창조물 안의 존재의 느린 성장 과정

B.D. No. 8702

1963년 12월 17일

□ 음을 받아들여라: 한때 내가 존재로 발산시킨 힘을 여러 종류의 창조물로 변화시켰고 이런 존재가 분해 된 상태에서 느린 성장 과정을 시작했다. 영적인 입자가 내 의지에 의해 압축이 되어 물질이 되었을 때 서서히 형체를 입은 영적인 입자들에게 이런 일이 초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요동이었다. 이런 물질들은 아주 많은 서로 다른 종류였고 너희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게 해줄 수 없다.

내가 내 사랑과 지혜로 한때 나로부터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위해 창조물 안에서 성취될 구원계획을 세웠다.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섬기도록 자극해주는 일이 내가 창조한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창조물은 서로를 필요로 해야만 하고 이로써 느린 성장 과정이 가능하게 된다. 창조물의 초기에 섬기는 기능을 너희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게 해줄 수 없고 창조물이 이미 굳은 형체를 입었을 때 비록 이런 창조물들 안에서 아주 작은 일을 행하기 시작한다.

모든 활동은 생명을 증거하고 모든 활동은 변화를 가져와 형체들이 계속하여 변화되어 항상 더 큰 창조물로 발전해 나가고 내 의지가 정해준 과제를 수행하고 내 뜻대로 실행하게 된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내 뜻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조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뜻에 의해 창조 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나 또는 형체가 된 힘이 느리게 성장하는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저항이 서서히 줄어들게 하고 이런 일이 비록 내 의무법칙에 의해 일어나지만 섬기는 일로 나타나고 저항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로써 광물과 식물과 동물의 세계를 거쳐 인간의 단계에 이르는 성장 과정을 너희에게 설명한다. 이런 과정이 계속하여 걸형체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이런 존재들이 다시 모여 더 큰 형체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섬겨서 타락한 원래의 영에 속한 모든 입자들이 다시 모여 이제 인간 안의 혼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같은 성장 정도에 도달한 작은 생명체와 가장 작은 생명체들이 죽은 후에 모여 더 큰 걸형체를 입게 되고 성장 과정을 계속하게 된다. 내 사랑과 지혜로 항상 특정한 단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형체가 창조 된다. 너희는 자연 가운데 작은 생명체에서 항상 점점 더 커지는 생명체로 성장하는 일을 본다.

그러나 내가 먼저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형체를 새롭게 창조해야만 했다. 이런 형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이 전의 형체와 유사하는 되는 일은 항상 내가 창조한 역사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관찰할 수 없었다. 왜냐면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직 이 땅에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영원한 계획은 정해졌고 그러므로 나는 인간으로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치르게 위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피조물을 이미 알았다.

그러므로 아직 여러 종류의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항상 새로운 창조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각각의 피조물이 자신의 영적인 입자를 성숙하게 만들수록 창조물은 항상 더 커졌다. 이를 신체가 커지는 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생명체의 특성들과 그의 기능들과 그의 능력들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내 끝 없는 사랑과 지혜와 권세의 작품이었고 그들은 번식하지만 그러나 창조물은 항상 내가 창조했을 당시의 상태로 머문다.

어떤 생명체도 자신의 특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라. 너희가 변화나 또는 계속 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는 역사는 생명체가 생성되었을 때 내가 창조한 역사였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인간과 유사한 모든 존재들도 항상 새로운 창조물이었고 그들이 내 전능한 능력의 작품으로 창조 된 상태로 머물렀다. 이런 창조물들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항상 더 성장해 나갔기 때문에 내 의지를 통해 항상 점점 더 인간에 유사한 곁형체가 창조되었다. 그러나 이런 창조는 항상 내 의지에 기초한 역사였고 이런 역사가 자연의 법칙으로 나타난다. 너희 사람들은 이를 존재가 자연적으로 높이 성장하는 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절대로 인간을 이런 자연적인 성장의 결과물로 여길 수 없다. 왜냐면 인간은 내 전능함과 사랑과 지혜로부터 나온 고유한 창조물로써 이 땅에서 높은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아주 똑똑한 짐승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원하는 존재로 양육하려고 할지라도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짐승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인간이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생각할 능력과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할 능력과 이성과 자유의지를 절대로 서서히 갖추게 할 수 없고 이런 생각할 능력과 이성과 자유의지가 한 피조물이 서서히 성장해나가는 특성이 아니고 인간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내 의지와 내 권세로 생명으로 생성한 고유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창조의 작품인 인간은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들이 이미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느린 성장을 마쳤을 때 비로소 세상으로 보낼 수 있었다. 왜냐면 인간은 타락한 원래의 영을 혼으로 이제 자신 안에 거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장이라는 말은 항상 단지 모든 창조물 안에 거하거나 또는 위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해당 된다. 반면에 물질적인 창조물은 항상 창조의 역사를 여겨야만 한다. 왜냐면 내 의지가 이런 곁형체를 존재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물질적인 창조물이 곁형체로써 영적인 존재를 섬기고 섬기는 일을 통해 자신이 높은 곳에 도달해야 한다.

피조물이 아직 자신 안에 인간과 같이 영적으로 성장한 존재를 자신 안에 담고 있지 못하는 동안에는 내 뜻은 어떤 피조물도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의미하고 성장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성장했다는 주장은 절대로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왜냐면 인간 자체가 내 의지와 내 사랑의 힘이 생명으로 생성되게 한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아멘

大리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모든 어두움을 벗어나고, 모든 설명을 받고, 모든 일의 연관관계를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길이 위로 향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찾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친히 진리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오류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먼저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해야 하고, 이제 외부에서 오거나, 생각의 형태로 내부에서 그에게 주어진 지식에 심장을 여는 일을 의미한다. 왜냐면 심장이 자원하여 진리와 오류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사람들에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가 스스로 역사해야만 인간은 진리를 얻어야만 하게 된다. 완전히 수동적이고 스스로 원하지 않고, 진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진리를 그냥 전해줄 수 없다. 왜냐면 그런 사람은 영의 어두움 속에 머물 것이고, 정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는 위로 향하는 길이고,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영적인 재물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받아드리는 사람을 찾고, 모든 사람의 의지가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왜냐면 이 재물을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진리를 향한 갈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재물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 속에 거하지 않고, 그에게는 모든 것이 대낮처럼 선명하고, 그에게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면 그에게 아직 분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그가 단지 진리의 근원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의 의심과 질문을 하나님께 직접 제시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이 심장을 통해 그에게 응답할 것을 기다리면, 그의 요청대로 설명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향한 갈망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과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그에게 선명하고 진리에 합당한 대답을 보장한다. 만약 너희가 단지 설명을 원하고, 진리 자체이고 또한 이 땅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위를 향한 길을 위해 빛을 주기 위해 진리를 전해주기 원하는 분에게 모든 질문을 하면,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53년 11월 6일) 최초의 창조된 인간의 육체는 내 사랑의 창조역사였다. 내가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깊은 곳에서 성장을 이뤄 완전하게 자유한 가운데 의지의 마지막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을 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걸형체를 만들어 줘야만 했다. 끝없이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한때 분해되었던 모든 입자들이 다시 모여, 다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 일할 수 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내가 한때 창조했던 모든 원래의 영들을 위해 내가 형체를 창조해야만 했다. 이런 원래의 영들을 위해 걸형체를 창조하는 일은 단지 그 전에 창조했던 수많은 창조물을 창조하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 창조물은 외부로 드러난 내 생각이었고, 내 의지에 의해 이미 창조되어 내 앞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창조된 형체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은 단지 내 사랑의 힘을 흘려주어 채워주는 일을 통해 가능했다. 그러나 원래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은 나에게서 나온 사랑의 힘이었다. 그러므로 생명체가 되기 위해 단지 걸형체를 소유하면 되었고, 영적인 존재는 완성에 도달하기 직전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최종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완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에게 남아 있는 죄짐이 그에게서 온전한 지식

을 빼앗았고,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에게 가르침과 계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존재가 계명에 순종함으로 서서히 깨달음이 성숙하게 되야 했기 때문이다.

큰 영적인 싸움이 먼저 일어났다. 왜냐면 내가 만든 첫 번째 형체 안에 머물기 원하는 타락한 원래의 영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이 단지 사람의 형체 안에서 나에게 다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그들에게 사용 가능한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을 치르는 삶을 통해 무한하게 풍부한 힘과 빛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최초의 인간 안에 거할 원래의 영을 스스로 정했다.

(1953년 11월 7일) 왜냐면 내가 유일하게 누구의 나를 향한 저항이 줄어들어 마지막 이 땅의 삶의 시험을 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의 의지가 내 대적자의 세력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한때 영들이 타락했을 때 지도자였던 원래의 영을 택했다. 그러므로 그의 죄짐이 그에게 더 무거웠지만, 내 사랑은 그를 되찾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했다. 왜냐면 수많은 존재들이 그를 뒤따랐을 것이고 구원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으로부터 원래의 영의 실패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전의 단계에서 그의 의지가 바뀌어 가장 강한 영이었고, 따라서 그는 또한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 가장 먼저 들어갈 자격이 있었고 그러므로 의지의 시험에 합격할 가장 큰 전망을 제공했다.

이 원래의 영이 형체를 입기 전에 첫 번째 사람의 형체를 루시퍼도 볼 수 있었고, 루시퍼는 이 형체가 그의 나라인 어두움의 나라에서 내 나라인 빛의 나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루시퍼는 또한 자신이 추종자를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시험 기간 동안에 영적인 존재가 나를 떠나게 하고, 시험의 결과가 자신에게 유익하게 되도록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창조한 형체는 루시퍼가 자신의 영이 형체 안에서 거하는 시험을 하기 위해 형체를 입었을 때 아직 생명이 없었다. 그러나 가장 속박을 받지 않은 그의 영이 형체를 파괴했고, 그는 이 형체 안에 거하는 모든 영도 형체를 파괴할 것이고, 그에게는 절대로 손실의 위험이 없을 것으로 확신했다. 나는 그런 시도를 허용했고 이제 그의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그에게 증명했다. 왜냐면 인간 안으로 육신을 입어야 할 영적인 존재가 창조물 안의 오랜 성장과정으로 인해 더 이상 루시퍼와 같은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었고, 영적인 존재가 자원하여 마지막 겉형체를 입었고, 이런 원래의 영은 원래의 상태에 가까웠고, 겉형체가 그에게 타락하기 전에 그런 것처럼 사슬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창조물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에게 제공되는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주인으로서 명할 수 있었고, 그에게 권세와 힘이 충만했고, 단지 내 권세 아래 있었고, 내 권세가 그에게 단지 쉬운 계명을 주었고, 이 계명을 지키면, 아직 그에게 부여된 속박을 벗어날 수 있었다.

루시퍼가 이를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주어진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했고, 자신이 첫 사람의 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체를 속박으로 묘사하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을 계명을 어기는 일에 의존하는 것으로 만들면서, 이로써 원래의 영이 내가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지 않았다고 내적으로 다시 나를 반역하게 하면서 형체를 견딜 수 없게 만들려고 했다. 이런 일은 의식적으로 오류로 인도하는 일이었고, 첫번째 사람이 내가 준 쉬운 계명을 단지 지켰다면, 이런 오류에 저항할 수 있었다. 내 대적자가 그 안에 불순한 욕망

을 타오르게 할 때까지 그가 진실로 자신을 축복되게 했던 권세와 힘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했다면, 첫번째 사람이 이런 오류에 저항할 수 있었다. 불순한 욕망은 그가 자신 위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깨달을 수 있었고, 그가 알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 분이 준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보다 더 크게 되려는 욕망이었다.

그러므로 첫번째 인간의 타락은 원래의 영이 처음으로 타락한 일의 반복이었다. 그는 루시퍼를 따랐고, 무수히 많은 존재들을 그와 함께 깊은 곳으로 끌고 갔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도울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한 의지의 힘을 구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강한 의지로 루시퍼의 유혹에 저항하고, 그를 정복하기까지, 첫 사람의 모든 후손들이 죄악된 사람의 연약한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1953년 11월 8일) 최초의 피조물인 루시퍼가 자신과 함께 타락한 영들의 세계의 주인이라고 느끼는 동안에는 어떤 일도 그가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가도록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자신이 첫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물질의 과정인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가지 않았다. 그는 존재하는 영으로서 의지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나에게 대항하는 대적자였고, 비록 그가 이 영적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지만, 그는 자기에게 속한 영적인 존재들로 구성된 피조물들의 주인이라고 느꼈다.

그 안에 아직 중단되지 않는 저항이 있었고, 그는 어떤 강요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발적으로 내 의지가 창조한 형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그가 영적인 존재를 위한 모든 형체인 모든 창조물을 미워하고, 창조물을 파괴하려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창조물에 대한 권세를 빼앗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존재가 나를 위하거나 또는 그를 위해 다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때, 영적인 존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을 받았다. 그는 또한 자신이 영적인 존재가 거하는 형체를 파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최초의 인간의 형체를 미리 조사했다. 왜냐면 그가 영적인 존재에게 내가 창조물을 통해 영적인 존재에게서 빼앗은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목표가 곧 형체 안으로 육신을 입어야 할 원래의 영이 스스로 곁형체를 파괴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일을 막기를 원했다.

나와 그 사이의 대적하는 관계는 그의 타락 후에 생겼고, 그 자신이 완전히 무기력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상태를 깨닫고 (1953년 11월 9일) 힘의 공급을 요구할 때까지 절대로 대적하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최초의 인간의 형체를 부여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면 그 안에 높은 곳으로 향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반면에 의무의 상태에서 창조물의 과정을 통과한 영적인 존재가 이미 이 전의 나에 대한 저항을 줄였고, 단지 나를 향한 저항과 내 사랑의 힘에 대한 저항의 포기를 다시 한번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루시퍼는 영적인 존재가 이미 그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았고, 그는 또한 영적인 존재를 이제 완전히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최초의 사람 안으로 들어간 원래의 영이 한때 그의 강한 지지자였기 때문에 루시퍼는 특히 그의 타락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지금 까지의 모든 물질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는 원래의 영의 갈망을 알았다.

나는 이제 이런 원래의 영에게 두번째 존재를 주었고, 두번째 존재가 원래의 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그의 의지의 시험을 돋게 했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가 최종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었을 것이고, 나는 한 존재에게 유일하게 책임을 지게 하지 않았고, 두 존재에게 계명을 주었고, 둘이서 함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루시퍼는 이 두 번째 존재의 약해진 의지를 깨닫고 두 번째 존재를 통해 목표에 도달하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두 번째 존재를 활용했다.

첫 인간의 부부에게 의지의 시험을 요구해야만 했고, 시험을 위해 대적자의 세력도 역사할 수 있어야만 했다. 왜냐면 루시퍼도 자신이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비록 내 피조물이지만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 싸웠기 때문이다. 그의 계획은 성공했다. 그러나 내가 수많은 존재들에게 앞으로 이 땅의 인간 안에서 자신을 변화시킬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일을 막지 못했다. 다시 말해 첫 인간의 부부가 타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까지 빛의 나라가 닫혀 있을지라도, 그들이 더 높은 성숙한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첫번째 죄를 통한 영적인 존재의 구원이 연기되었지만 취소되지 않았다. 왜냐면 첫 사람이 성취하지 못한 일을 인간 예수가 성취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내 대적자보다 강했다. 왜냐면 그가 내 힘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을 통해 나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 첫번째 사람이 성취시키지 못한 계명을 자원하여 성취시켰다. 그는 내 의지에 완전히 복종했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나를 향한 헌신을 증명했다. 그는 원래 초기의 죄와 최초의 사람들에 의해 반복된 죄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죄짐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위해 희생을 치렀고, 내가 이 희생에 만족했고, 영의 나라의 문과 나에게 향하는 길을 다시 열어주었고, 그를 내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내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멘

그리스도가 임한 이유. 긍휼의 역사.

B.D. No. 6130

1954년 12월 9일

내가 전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노예가 된 이 땅의 인류를 보았고 나는 그들의 큰 위험을 보았다. 그러나 큰 위험은 인류 자신의 잘못이었고 나는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짐에 짓눌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었다. 내 사랑이 아주 강해 고통받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고 내 사랑이 아주 커서 사람들을 죄 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위해 다시 나에게 향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임했다.

내가 이 땅에 임한 일은 영원한 너희의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였다. 나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기를 원했고 그들이 전에 나에게 대적한 죄로 인해 잃어버린 빛과 힘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인류는 어두움 속에 너무 깊이 갇혀 완전히 무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으로부터 탈출구를 찾을 수 없었고 이런 상태는 가장 큰 불행한 상태였다. 왜냐면 그들이 그들을 영원히 다시는 풀어주지 않을 그들에 대한 권세를 가진 주인에게 포로로 잡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또한 너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내 사랑의 힘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 내 대적자와 싸울 준비되어 있고 그러므로 이 땅에 임했다. 왜냐면 신성이 이 싸움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싸움을

이끌었고 사랑이 이제 인간 안으로 육신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단지 사랑을 무기로 삼은 한 사람이 대적자와 싸웠다.

그러므로 사랑이 싸움을 이끌고 사랑이 내가 이 땅에 임하게 했고 인간 예수 안에 거하게 했다. 혼이 전적으로 나에게 헌신하고 모든 감각으로 나와의 연합을 추구하고 자신 안에 빛의 혼을 가졌던 사람이 타락한 형제들을 도와 그들이 축복을 받도록 다시 높은 곳의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게 했다. 온전하게 머문 존재들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 존재들을 다시 온전하게 되도록 돋기를 원했다.

사랑 자신이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자신을 드리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 땅으로 임했고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긴급한 도움의 요청에 나 자신을 닫지 않고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구원자이자 구세주로 임했다. 인류가 완전히 멸망받지 않으려면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깊이 타락한 때가 되었다. 이로써 오래 전에 예언 된 일이 실현되었고 빛이 이 땅에 임했고 어두움 속을 비추었다.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했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위로부터 온 구세주를 깨달았다.

아멘

예수의 혼.

B.D. No. 6642

1956년 9월 11일

영 이 나와 너희에게 전하는 나로부터 나온 모든 내용은 의미가 일치할 것이다. 내 영이 너희에게 계시해주는 말씀에 사람이 자원하여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실제 자유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영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나 자신이 모순된 영적인 내용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대한 해명을 요청해야만 하고 내가 설명해줄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구해야만 한다.

인간 예수의 혼은 위로부터 왔고 나에게서 나온 빛의 영이 이 땅으로 임했다. 이 빛의 영은 창조된 영들의 큰 무리가 나를 떠나 깊이 타락했을 때 그의 모든 의지의 자유로 나에게 머물렀다. 그러나 이 빛의 영에게 인간으로서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었고 그는 빛이 없는 영역으로 내려 가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을 그의 풍성한 빛을 당분간 남겨두었다. 왜냐면 사람들이 위에서 온 그런 빛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고 이런 빛의 광선이 그들이 소멸되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을 위한 구속역사를 실행하는 과제를 수행해야만 했고 그는 이웃과 같은 영역에 거해야만 했다. 왜냐면 이웃에게 그들이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이 되는 길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간 예수는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져야만 했고 그의 혼이 빛의 나라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졌다.

아기 예수의 육체 안에 혼이 거했고 이 혼은 그의 세상의 걸형체를 통해 다른 모든 사람처럼 생각하고 원하고 느꼈다. 그러므로 혼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과 또한 혼의 걸형체를 통해 같은 열정과 욕망이 혼 안에서 깨어나야만 했다. 왜냐면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는 일은 또한 내적으로 외적으로 같은 본능에 맞서 싸우는 일을 의미하고 혼이 영화되는 일을 추구해야 하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목적이자 목표대로 혼이 자신의 영과 하나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영화되는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의 싸움과 투쟁은 같은 성정을 가진 혼에게 필요한 싸움과 투쟁과 같았다. 그러나 예수의 혼은 죄 많은 혼 안에 절대로 자신을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 자신에게 거처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 빛의 나라에서 내려왔고 예수의 혼은 죄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충동과 정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약점과 정욕이 강했고 그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강했을지라도 그가 유혹에 대항했고 대항할 수 있었다. 그의 사랑이 강했고 이런 사랑이 그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인간 예수의 혼이 빛을 뒤에 두고 어두움 속으로 들어갔고 이 땅에 묶여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예수의 혼에게 매달렸고 어두움의 세력이 모든 인간 혼을 억압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

로 예수의 혼을 억압했다. 예수는 인간으로 이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혼이 이런 존재들을 물리칠 수 없었고 힘든 싸움을 통해 이런 존재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만 했고 혼이 유혹을 받으면, 혼이 스스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려야만 했다. 혼은 자신이 버리지 않은 사랑의 힘으로 이런 의지를 드릴 수 있었다. 혼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랑은 혼에게 속했고 속하여 머물렀다. 왜냐면 예수가 그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고 완수할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단지 자신 안에서 사랑이 타오르게 하고 불을 지핀다면, 하나님의 힘이 그런 모든 사람을 승리자로 만들 수 있다.

구속사역이 사람에 의해 이뤄져야만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예수를 먼저 이 땅에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일에 성공한 인간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연법칙에 완전히 종속되었고 육체는 모든 다른 이웃처럼 창조되었고 순수하지 못한 영들이 그의 혼을 점령했을 때 그의 혼은 저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순수하지 못한 영들이 절대로 우위를 차지하게 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의 뜻이 그런 일을 막았고 그가 또한 사랑을 통해 필요한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투쟁해야만 했다. 왜냐면 그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하고 모범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을 영화시키기 위해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실현 가능한 일을 단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예수가 사람들이 전혀 얻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이 그의 혼이 위로부터 왔고 그 안에 하나님 자신이 거했고 거할 수 있었다는 일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는 죄가 없었고 순수했기 때문이고 사랑이 그에게 모든 유혹에 저항할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의 육체는 무엇이었는가?

B.D. No. 8586

1963년 8월 14일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내가 원하는 일은 일어나고 내가 창조하기 원하는 것은 실행 된 생각으로 이미 내 앞에 존재하게 된다. 나에게 정해진 한계가 없고 착상에도 제한이 없고 영적인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실행하는 역사에도 제한이 없다. 왜냐면 너희 눈 앞에 있는 세상적인 창조물이든 영적인 창조물이든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것이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영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나에게서 직접 발산 된 영적인 힘으로서 내 뜻대로 형체를 입은 존재인지를 내가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 내가 어떤 힘이라도 모든 종류의 창조물로 변화시키거나 또는 형성 할 수 있다.

나는 또한 한때 죄를 지은 영적인 존재가 마지막 형태인 인간의 육체로서 혼이 온전함에 도달하도록 혼이 육체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직접 발산한 힘에게 이런 영적인 존재에게 내재된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내가 창조한 몸인 죄를 짓지 않은 영적인 존재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 뜻대로 연약한 상태에 처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모든 육체가 가진 특징들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모든 일이 내 뜻과 내 권세 아래 있다.

그러나 순수하고 신적인 모든 존재는 항상 세상과 불순한 영적인 존재인 물질과의 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 예수의 구속 사역은 지극히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대적하는 세력들이 특별하게 역사해 순수하게 신적인 예수의 걸형체에 영향을 미쳤고 신적이고 영적인 힘의 발산으로 여길 수 있는 예수의 걸형체는 모든 대적하는 존재들을 파괴하거나 그들의 역사를 방해하는 역사를 행하지 않았고 다른 모든 육체적인 걸형태와 마찬가지로 육체를 공격하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저항하고 그들을 순하게 만드는 일을 했고 모든 유혹에 맞서 같은 싸움을 싸웠다. 왜냐면 인간 예수는 이웃에게 모범을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웃이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살아야 할 삶의 모범을 보였다.

그러나 예수의 몸이 세상적인 물질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물질이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의 역사였고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타락한 영적인 존재에게서 온 입자들이 아니었고 나에게서 나온 힘이었고 이 힘이 내 뜻대로 형체로 굳어졌다. 그러나 이런 형체가 인간 예수에게 심한 요구를 적게 하지 않았다. 왜냐면 나에게서 온 힘이 이 땅에 임하면, 즉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내 대적자의 나라에 임하면, 이런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영적이지 못한 입자들의 공격을 받았고 예수의 혼에 달라붙고 동시 예수의 육체를 점령한 이런 모든 입자들은 구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런 입자들에게 패배당하지 않기 위해 대항해 싸워야만 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초인적인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 왜냐면 그가 사람들의 모범이 되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능력을 통한 특권이 인간 예수에게 부여되지 않았다. (1963년 8월 13일)

인간으로서 그는 다른 모든 인간들과 같아야만 했고 또한 그의 육체가 내 힘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그가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추구하는 일에 어떤 장점도 주지 않았다. 그의 육체는 그의 혼에게 단지 끝 없이 괴롭히는 속박이었다. 왜냐면 혼은 자유하고 가장 밝은 빛에서 왔고 어두움 속에 머물러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어두움이 육체를 공격해 육체에게 고통을 주었고 혼이 이런 고통을 느꼈고 육체도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없었다. 예수는 자신의 사랑의 결과로 모든 연관관계를 깨달았고 자신의 운명에 순종했고 이로써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만 한다는 것을 이미 정확히 예견했다.

그러나 완전히 신적인 존재가 되는 일은 단지 특별한 고난과 넘치는 사랑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순수하고 죄없는 육체와 빛의 나라에서 온 혼이 어두움의 권세자의 영역에 머무르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 왜냐면 육체가 육체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인간 예수를 죄에 빠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어두움의 권세자와 그의 세력들에게 대항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두움의 권세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 싸움은 어려운 싸움이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이 싸움에서 승리했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사랑을 통해 대적자의 모든 공격에 저항할 힘을 구매했다는 증거를 주었다. 게다가 인간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강해진 의지를 구매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들의 간수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들이 원수에게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다. 예수는 인간으로서 그들을 이했했고 그들이 자신에게 그들을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를 구하면, 그는 진실로 그들을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예수는 너희 혼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대적자가 어떻게 너희의 육체를 공격하는지를 알고 이 땅의 삶의 싸움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왜냐면 육체가 아직 대적자의 일부이고 대적자가 육체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이로써 너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했고 그는 자신의 피로 너희를 구속했고 너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아멘

계시 번호 **8586** 계시에 추가 사항: 예수의 육체는 무엇인가?

B.D. No. **8620**

1963년 9월 18일

□ 약에 너희가 나 자신에게 설명해주기를 구하면, 너희는 절대로 잘못된 가르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나는 너희에게 항상 올바르게 설명해줄 것이다. 진리를 전파해야 할 너희는 스스로 모든 이의에 대처할 수 있어야만 한다. 너희는 스스로 모든 일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올바른 진리를 대변하는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이 굳게 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나로부터 한때 존재로 발산되어 나온 존재들이 내 뜻대로 일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원래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한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거절은 영적인 입자가 굳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그들은 압축이 되었고 내가 이제 이런 입자들에게 형체를 부여했고 굳어진 입자가 물질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내 권세를 통해 영적인 입자가 굳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질이 생성되게 할 수 있다. 나는 영적인 힘을 내 뜻대로 형체로 압축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일을 나 자신을 위한 육신의 겉형체를 만들기 위해 한번 행했다. 그럴지라도 겉형체가 모든 사람과 다르지 않았고 단지 겉형체가 내 대적자의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창조된 영적인 입자들이 겉형체가 된 것이다. 물질은 섬기는 기능을 하고 겉형체로서 혼에게 거처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단계에 도달하기 까지 자신을 서서히 성장시키기 위해 실제 창조물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모든 사람의 육신의 형체는 아직 성장의 시작 단계에 있고 아직 영화가 되지 못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겉형체 자신이 혼에게 속해 한 육체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아주 긴 성장 기간을 거쳐야만 한다. 영적인 존재가 육체로서 혼을 섬길 수 있기 위해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일에 필요한 시간이 나에 의해 압축된 힘인 영적인 존재에게 보장이 된다. 혼이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가진 몸을 필요했다. 왜냐면 그가 또한 이런 몸을 영화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그가 또한 그의 육체를 통해 혼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했던 모든 성숙하지 못한 영들이 공격을 당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육체의 입자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의 육체의 입자는 타락한 세계를 통과했고 육체가 타락한 존재들을 담고 있는 창조물에 속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묶여진 상태에서 고통을 느꼈고 이를 견디는 성장 과정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런 일은 예수의 구속사역에 이미 속한 일이었고 이런 일이 예수 몸이 전적으로 영화되도록 기여했다. 왜냐면 육체가 창조물의 과정을 거친 다른 모든 사람의 육체와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정욕과 연약함에 대항하는 같은 싸움을 싸워야만 했다.

그러나 그의 육체는 죄가 없었다. 왜냐면 육체가 나 자신의 거처로 섬겨야 했고 내가 이미 어린 예수 안에서 거했고 내가 종종 예수 안에 거한다는 증거를 예수에게 주었다.

영화 된 예수의 몸이 다른 원래의 영에게 속하지 않는다 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돼야만 한다. 나 자신이 물질로 된 몸을 돌보았고 이 몸은 내 권세와 지혜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돼야만 한다. 그러나 내 몸은 다른 한편으로 부활하는 과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몸이 영화시키는 일을 추구하도록 재촉하기 위해 내 몸이 영화될 수 있는 상태여야만 했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야만 한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예수의 몸의 각각의 영적인 입자들이 창조물의 과정을 갔고 예수의 구속사역을 전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 끓임을 받는 고통을 감수했고 성숙하지 못한 세력들이 이제 외부에서 인간 예수에게 역사했고 아직 연약한 육체의 입자들이 죄를 짓게 만들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예수는 이에 저항했고 모든 유혹에 대항했고 모든 육체의 정욕을 잠재웠다. 그의 싸움은 비록 그가 죄가 없었을 지라도 진실로 쉬운 싸움이 아니었다. 그에게 어떤 것도 면제 된 일이 없었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모든 사람이 그와 마찬가지로 육체와 혼을 영화시키는 일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너희는 예수의 몸과 예수의 혼에는 죄가 없었다는 것과 그러나 예수가 이로 인해 더욱 많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왜냐면 그는 죄악 된 영역에 거했고 어느 사람이 감당해야 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 땅에서 견뎌야만 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모든 세상적인 존재들이 그의 육체와 혼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크고 넘치는 사랑이 단지 이런 공격을 견디게 했다.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충만함으로 거했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고 대적자를 물리쳤고 대적자의 권세를 빼앗았다.

아멘

예수의 혼은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육신을 입었는가?

B.D. No. 8750

1964년 2월 11일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는 지식으로 인도하면서 항상 또 다시 내 사랑을 너희에게 계시한다. 왜냐면 이 지식은 밝은 빛과 같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던 것들을 드러내 알게 해주고 너희 혼의 성장을 의미하는 너희의 깨달음의 정도를 다시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항상 사랑에 기초해서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야만 한다. 너희가 어느 정도의 사랑의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나는 너희에게 말할 수 없고 사랑이 너희 안에 깨달음의 빛을 항상 밝게 비춰줄 것이다.

너희는 항상 단지 내가 너희에게 답변해줄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내가 단지 너희가 알기를 갈망하는 영역을 알기 때문이다. 한때 타락하지 않은 모든 높은 영들은 가장 높은 목표인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기 위한 깊은 곳을 통과하는 과정을 가기 위해 이 땅으로 육신을 입는다. 그들은 이런 목적을 위해 육신 안에 거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들은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한때 타락했던 모든 원래의 영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을 살

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고 내 대적자가 그들에게 시도하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만 한다. 그들은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아버지인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 진실로 깊은 곳을 통과해야만 한다.

한때 타락했던 존재로서 나에게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돋기 위해 어느 때든지 빛의 존재들이 내려왔다. 이런 빛의 존재들의 사랑은 아주 강하고 깊어 계속해서 도울 준비되어 있고 단지 내 길 잃은 자녀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려고 애를 썼다. 나는 그들이 돋기 위해 이 땅에 임하길 원하면, 그들을 막지 않았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게 된 그들은 항상 나로부터 나온 존재이고 내 사랑의 빛을 비추임을 받은 최고의 온전한 피조물로써 나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던 존재들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려는 빛의 존재는 없다.

인간 예수로써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시킨 혼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내가 자율적인 생명을 부여한 나에 의해 원래 초기부터 사랑의 빛의 비추임으로 생성된 빛의 영이었다. 이 영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자신이 맡게 되었다. 왜냐면 그가 처음부터 타락한 존재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부터 첫 인간이 실패할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러므로 그는 인간 예수로써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다. 그는 실제 처음부터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일에 역사했다. 왜냐면 나에게 신실하게 남은 존재들인 그들이 나에게 남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존재로써 무한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모든 존재에게 내 의지와 내 힘이 흘러갔기 때문이다.

이런 혼이 이 땅으로 임했고 이 혼은 전에도 이미 빛의 존재로써 나를 섬겼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을 이뤘다. 즉 이 혼은 빛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나 자신이 이 혼을 통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런 모든 빛의 영이 나에게 하내 형체였지만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단지 잠시 볼 수 있었을 지라도 지속적인 형체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빛의 영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들 가운데 같은 육체의 입자 안에서 볼 수 있게 역사하며 가르침을 주고 대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후에는 사라졌던 영의 존재이고 영의 존재로 머물렀다.

실제로 이런 높은 빛의 존재들이 이 땅의 육신을 입는 일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나 자신으로부터 보냄 받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내 의지를 알려주었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그들의 혼이 왜 위험 가운데 살고 있고 이 땅의 삶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빛의 존재가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일과 나 자신이 빛의 영을 통해 나 자신을 알려주는 일인 빛의 영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 사이에 차이를 둬야만 한다. 그러면 이런 빛의 영은 인간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내 걸형체가 아니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기 위한 일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위로부터 직접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은 사람들의 의지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육신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도 내 걸형체로 사용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걸형체가 인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았다. 두 번째 경우에는 걸형체가 단지 잠시 동안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났다. 왜냐면 그들이 긴급하게 내 대화가 필요 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혼이 걸형체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되기 전에 이제 여러 차례 육신을 입었다고 말하

는 일을 너희는 항상 사랑인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할 때 영적인 형체를 택하여 단지 영적으로 나타난 일로 영접할 수 있다. 비록 나 자신이 내 말씀을 통해 또는 한 사람을 통해 나를 나타낼 수 있고 이 한 사람이 빛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을지라도 내가 인간이 되기 전에 예수의 혼이 육신을 입었던 일은 없었다.

예수의 혼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선택을 받았다. 이 혼은 진실로 가장 높은 빛의 영이고 나에 의해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다. 즉 이 혼은 내 힘과 아주 큰 내 사랑이 첫 번째로 창조한 존재의 의지로부터 생성되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인 나 자신이 단지 최고의 빛의 혼인 예수 안에서 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혼은 빛의 영으로써 전에 이미 아주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하여 내가 그들에게 이런 빛의 존재를 보낼 수 있었고 이 빛의 존재들을 통해 나 자신이 직접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나를 섬겼다.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빛의 존재들이 이전에 인간으로 육신을 입었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내 말씀을 전해줘 사람들과 나와의 연결을 유지시키고 동시에 나에게는 말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이 땅에 거했던 일을 진실로 영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잘못 된 상상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예수 혼은 내가 인간이 되기 위해 택함을 받았고 처음부터 첫 사람의 실패를 깨닫는 가운데 이런 궁휼의 사역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미 여러 차례 육신을 입었다고 말하는 일은 잘못 된 일이다. 왜냐면 예수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된 역사는 한번뿐인 역사이고 한번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를 인류뿐만 아니라 빛의 세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면 이와 같은 역사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고 예수는 많은 존재들 중의 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는 너희 인간들과 빛의 나라의 모든 존재를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야 하는 나 자신이 영원히 볼 수 있게 남기 위해 형체로 택함받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 존재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 왜냐면 나와 루시퍼의 사랑에서 발산되어 나온 첫 번째 영으로써 그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깊어 그가 단지 내가 인간이 되기 위해 합당한 존재였고 그러므로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이전에 거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그가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면 그가 귀환을 시키려는 내 계획을 알았고 그는 항상 전적으로 모두 내 의지에 따랐고 빛과 능력이 충만한 존재로써 내 뜻을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주 가까이에 있어 전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와 나는 하나가 돼야만 했다. 왜냐면 내가 그 안에서 그리고 그가 내 안에서 전적으로 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존재들이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빛의 정도에 다시 도달하게 되면, 그들이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증거.

B.D. No. 7250

1959년 1월 8일



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 비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주어졌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써 그에게 계시되어 계속되는 증거

가 필요하지 않은 예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한번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을 이해한 사람은 왜 믿음을 요구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왜 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가 혼의 성장을 위해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혼이 성장 과정에 불리하게 되는지 알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일은 아무런 영적인 연결이 없는 영적인 추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일이 아니고 믿을 만하지 않게 머물 것이다. 영을 추구하는 일은 혼의 성장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혼이 이 땅의 삶 자체에 목적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추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고 그의 생각은 진리보다 오히려 오류에 빠져 있다. 그는 오류를 우선적으로 영접하고 이런 오류를 진리로 여길 것이고 순수한 진리는 그에게 영접할 수 없게 보일 것이다. 왜냐면 바로 그의 영이 아직 어둡기 때문이다. 영의 어둡다는 말을 이성이 어둡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부인 사람 안의 불씨가 어둡다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순전히 영적인 원인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된 일은 영적인 원인에서 나온 효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은 일어났고 하나님 자신이 한 사람 안에서 자신이 태어나게 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아들 예수이다. 어떤 것도 사람들을 믿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예수가 태어난 일도 인간의 법칙 아래 일어났지만 그러나 잉태 된 일은 아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창조의 작품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존재를 자신의 뜻대로 생성되게 하는 일이 가능하는 것을 의심할 자격이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잉태되지 않고 태어나는 일에 대한 영적인 이유가 있다. 이 이유를 깨우침을 받은 영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창조 된 영의 존재의 자유의지가 모든 창조물이 창조 된 영적 근거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이런 자유의지가 한때 창조 된 원래의 영이었던 사람들이 존재하게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 역할에 의미가 있고 이 역할이 인간 예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단지 적은 이유를 설명한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를 갖도록 어떤 강요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유한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를 정해야만 한다. 여기에 유일하게 사람들을 원래 창조 된 존재로 바꾸고 다시 영적으로 바꾸는 일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한다. 증명해주는 일은 결정하게 강요하는 일이다. 모든 창조 작품의 목적이요 목표인 한때 원래 존재의 온전함에 다시 도달하려면, 어떤 사람도 결정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먼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래 초기의 상태와 목적을 알아야만 하고 창조의 의미와 목적과 창조 안에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지식을 절대로 책을 통해 얻을 수 없고 자체가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에게 전달돼야만 한다. 그러나 전달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성취할 수 있지만 단지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이 성취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선행조건이 요구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단지 이런 선행조건이 갖추어 진 곳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조건은 단지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생명력이 있게 믿는 믿음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요구하는 일이다. 진리가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일부분인 사람 안의 영의 불씨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영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이런 일을 믿을 수 없거나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에 깨달음의 빛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들을 알려 주게 될 것이고 그는 선명하고 밝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그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은 놀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 그에게는 어떠한 증거도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날카로운 이성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욱 선명하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깨어난 영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할 때와 현재와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인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면 예수의 삶은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생각한 삶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삶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이런 예수의 삶을 들을 것이다. 그의 영이 단지 깨어 있으면, 예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의 깨어남이 없이는 가장 날카로운 증거도 혼이 성숙해지는 일에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증거로부터 나온 믿음은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는 사람의 이성은 사람 안에 영이 깨어나는 일과 단지 적게 연관이 있다.

영이 깨어나는 일은 사랑의 삶의 결과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의 삶의 결과이다. 이 때문에 깊은 비밀을 연구하는 일은 이성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사람의 특권이 아니고 유일하게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너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특권이다. 이 계명을 성취하는 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는 가장 확실하고 선명하게 예수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효과이다. 왜냐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사람들을 모든 지혜 안으로 인도하고 사람에게 사람의 이성만으로는 절대로 해줄 수 없는 모든 영적인 연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B.D. No. 8537

1963년 6월 22일

순 수한 혼을 필요로 하는 사명 때문에 예수의 혼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기 위해 빛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임한 일에 관해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설명해 주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의 혼 안에 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단지 순수하고 죄가 없는 혼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다. 어떤 말이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느냐? 창조물을 거치는 긴 성장 과정을 가야만 하고 부족한 상태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어야 하는 인간의 혼과는 반대로 예수의 혼은 타락하지 않은 혼이었다.

이 때문에 예수의 혼이 외부로부터 침범하려는 모든 악한 영들과 말할 수 없이 대적하며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그의 육체는 성숙하지 못한 물질이고 대적자의 영향으로 구속받지 못한 입자들로부터 심하게 공격을 받았고 육체는 모든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 성숙하지 못한 육체의 입자가 붙어 있는 육신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예수에게 요구했다.

예수의 혼은 전적으로 순수하게 이 땅에 임했다.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이 그에게 달라붙었고 혼은 이들을 떨쳐 버려서는 안 되고 부드럽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야 했다. 외부로부터도 마찬가지로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 예수에게 침범했고 환경이 예수의 혼에 역사했고 이로써 예수의 혼은 모든 내적인 싸움을 견뎌내야만 했다. 이런 내적인 싸움은 타락한 혼들도 견뎌내야만 하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의 혼이 온전했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 일은 쉬웠을 것으로 여기는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고 정반대였다. 예수의 혼은 순수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환경 아래서 더 심한 고통을 당했고 그의 혼은 그를 대적하며 그에게 침범해오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역사를 통해 이웃이 그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에 대해 아주 민감했다.

빛의 혼이 거해야만 했던 어두움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럴지라도 그는 이런 죄악 된 인류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를 원했다. 모든 루시퍼적인 것들이 실제로 예수의 혼을 공격했다. 그러나 예수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일도 이를 수 없었다. 예수는 모든 시험을 견디어 냈고 그는 자신의 대적자에 대항해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항해 싸웠다. 위험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사랑을 통해 인간 예수 자신의 육체의 악한 영들의 입자를 영화시키는 일을 이뤘고 영원한 사랑 자신이 그를 소유하게 되었다. 영원한 사랑은 죄악 된 혼에게는 그가 소멸되지 않게 하면서 절대로 자신을 나타낼 수 없다.

너희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온전하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임했다" 이고 "그가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왔다“ 가 아니다. 비록 루시퍼적인 존재들이 예수의 혼을 아주 크게 둘러쌓지만 그러나 이런 존재들은 외부로부터 그의 혼에게 다가온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적했고 육체를 통해 그를 공격하거나 사탄의 보냄 받은 자로써 그에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구속되지 못한 존재가 공격을 하던지 간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의도한대로 자신을 넘어지게 하지 않았다. 그의 순수한 혼은 저항을 했고 사탄적인 것을 물리쳤고 그는 자신의 육체에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성숙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가 자신의 사랑의 역사를 완성하였을 때 육체가 영화되어 혼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혼이 어두움의 나라에 들어선 것처럼 혼은 루시퍼의 세력 안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혼은 패배당하지 않고 루시퍼의 세력에게 저항했다. 왜냐면 혼은 사랑으로 충만했고 이 사랑이 혼에게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높은 곳으로부터 사랑을 가져왔고 사랑은 혼을 내어주지 않았고 혼은 영원한 사랑과 항상 더욱 하나가 되어 갔다. 이로써 이 땅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의 목표가 되야하는 하나가 되는 일이 이뤄졌다.

인간 예수는 자신의 큰 사랑과 아주 큰 고난과 고통이 충만한 죽음을 통해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그도 싸워야만 했고 이 일이 다른 사람에 비해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있고 이 불씨에 항상 양분을 제공하여 밝게 불타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를 위해 예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반면에 예수는 항상 단지 사랑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야 했고 이 사랑이 바로 자기 안에 거하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단지 죄가 없는 존재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는 절대로 그의 사랑을 거절했던 타락해 창조물을 거치는 성장 과정을 갔던 혼 안에 거할 수 없다. 왜냐면 모든 타락한 존재들에게 원죄가 부담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원죄가 먼저 사함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혼이 타락한 혼이었다면, 인간 예수의 혼은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구속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 거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이는 가장 큰 비밀이고 비밀로 머물게 될 것이다.

한 순수한 존재가 인간의 원죄를 위해 속죄를 완성해야만 했다. 왜냐면 타락한 존재는 아직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고 스스로는 자신의 간수인 대적자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능력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빛의 혼이 대적자와 대항하는 싸움을 싸워야만 했고 예수는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왜냐면 그의 능력이 사랑이었기 때문이고 그가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나가 되어 이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 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했다.

너희 사람들에게 이에 관해 설명해줘야만 한다. 왜냐면 잘못 된 관점은 잘못 된 결과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루시퍼가 예수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에 대항해 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모든 타락한 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아직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었고 타락한 혼이 대적자에 대항해 이긴 적이 한번도 없었고 구속사역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싸움의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못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거절했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가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사랑의 불씨를 받았을지라도 이 불씨가 절대로 화염으로 불타오를 수 없었을 것이고 대적자가 타오르게 하는 일을 막았을 것이고 타락한 존재 자신이 너무 연약했다.

너희 사람들이 예수의 혼에 루시퍼적인 부분이 있고 예수의 혼이 한때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었다는 관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면, 너희는 잘못 된 생각으로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이해하라. 하나님이 인간이 된 문제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문제를 단지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또 다시 하나님이 인간이 된 문제에 관한 순수한 진리가 너희에게 전해져야만 한다. 왜냐면 단지 진리가 너희 사람들에게 올바른 빛을 주고 진리는 항상 단지 아버지 자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B.D. No. 8141

1962년 4월 3일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영원한 말씀인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육신을 입었다. 나로부터 끝 없이 멀리 떨어져 있고 더 이상 내 음성을 들을 능력이 없고 더 이상 자신 안에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영원한 말씀과 전혀 어떠한 연결도 없었던 사람들과 내가 연결을 이루려고 한 일은 아주 큰 사랑과 긍휼의 역사이다.

이렇게 나와 멀리 떨어지게 만든 잘못이 그들 자신에게 있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나와의 이 큰 간격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원래 초기에 내가 나로부터 생명으로 생성된 모든 피조물들과 말씀을 통해 교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말씀을 듣는 일이 그들에게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내 사랑 자신이 이 큰 간격을 극복했고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육신을 입고 이제 내 피조물들과 대화하기 위해 그들이 빛과 축복의 나라에 있는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다리를 놓기 위해 그들과 연결을 이루기를 구했다.

나 자신이 영원한 말씀이다. 그러나 한때 나로부터 자유로운 피조물로 생성되어 나온 그들을 강요 상태로 만들지 않기 위해 나는 높은 곳으로부터 어떤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말할 수 없고 그들이 나에게 인도하는 다리에 모든 자유의 의지로 들어서야 한다. 나는 이를 단지 내 음성을 통해 이를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하게 울려서는 안 되고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소리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육신을 입었고 나는 인간의 겉형체 예수를 입었고 내가 이제 사람 안에서 말한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은 내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었고 그들을 가르치고 내 의지를 알려 줄 수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말씀을 자신 안에서 다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려는 의지가 진지하면, 모든 사람 스스로에게 듣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랑의 가르침을 선포했다. 그러나 내 영을 부여주는 일을 통해 나와 연결을 이룰 수 있고 사람 스스로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

럼 내 음성을 자신 안에서 들을 수 있기 위해 사람들은 먼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받아야만 하고 이전에 한때 나로부터 타락했던 죄짐을 해결받아야만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얼마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의 뜻을 알고 있느냐? 인류가 가장 큰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 스스로 이 땅에 임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신들의 불쌍한 상태와 빛이 없는 상태와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전적으로 나로부터 떨어져 있고 이런 큰 간격을 줄이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단지 진리에 합당한 가르침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만 하고 나 자신이 의지를 그들에게 전해 줘야만 한다.

나 자신이 그들에게 말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단지 한 사람을 통해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 한 사람 안에서 육신을 입었고 단지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 모든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다시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주는 길을 가게 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들에게 내 뜻을 알려 주기 위해 그들 스스로 살아야 할 삶을 내가 그들 앞에서 모범적으로 살았다. 왜냐면 그들은 항상 사랑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내 대적자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2년 4월 3일) 이 가운데 그들은 무능했고 무능하게 머물러서 어떤 성장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힘으로 역사한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나는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단지 사랑의 힘만이 줄 수 있는 다른 기적들을 행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없는 삶의 결과를 설명해 주었다. 왜냐면 나는 그들에게 먼저 왜 그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위험 가운데 있는지 설명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인간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축복된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과 그들이 축복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해야만 했다. 그들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 받아야만 하고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말씀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육신을 입었다.

원래의 상태일 때는 말씀이 모든 존재에게 들렸고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근원이었다. 존재들이 이런 축복을 스스로 버렸다. 왜냐면 그들의 자유의지로 나를 떠남으로 인해 더 이상 내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 말씀은 나로부터 직접 온 사랑의 비추임이고 존재가 이런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사람들의 아주 큰 위험이 내 사랑과 긍휼이 나 자신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게 만들었고 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그들을 대면하게 했다. 자신 안의 사랑의 불씨를 불타오르게 하는 사람은 나를 깨닫고 내 말을 영접하고 그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따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에서 단지 사람을 보고 내 말을 단지 사람의 말로 평가를 한다. 나는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나를 깨닫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나는 사랑의 복음을 선포했고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항상 또 다시 설명해줄 수 있었다. 나는 내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며 나 자신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낼 수 있었다. 말씀 자신이 이 땅에 임했고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내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는 항상 내 끝없는 사랑과 긍휼이 사람들에게 향하고 사람의 심장을 비추어 준다. 이런 심장은 내 사랑을 자원해 내 말씀을 받아드리고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아버지의 음성으로 깨닫고 큰 은혜의 선물에 대해 나에게 감사한다. 왜냐면 나 자신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나 자신과 긴밀한 연결에 이르게 되고 이 땅의 자신의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그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인 나와 전적인 연합을 이룰 것이고 최종적으로 나에게 귀환할 것이고 영원히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직접 이 땅에 임했다.

B.D. No. 6719

1956년 12월 20일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온 일을 찬양하고 칭송한다. 혼이 빛 안에 서게 되면, 혼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이 영의 나라에서 비로소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사랑의 역사를 깨닫고 그러므로 그런 혼들이 내 탄생과 이 땅의 내 구속역사를 모든 의미에서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감사하는 느낌이 그들이 항상 단지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한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로 깨닫고 뜨거운 사랑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에게 헌신한다.

단지 사랑하는 심장이 미움이 있고 사랑이 없는 세상으로 내려간 내 사랑과 긍휼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장 큰 영적 위험에 처해있었다. 왜냐면 그들은 내 대적자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그들을 완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두었고 그들로부터 모든 자유를 빼앗았고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대적자를 벗어날 수 없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 살아 있어 그들의 위험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헛된 투쟁을 내가 보았다. 내가 이미 오래 전에 선견자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알려주었고 그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다. 왜냐면 그들이 아직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위로부터 그들에게 구세주를 보냈고 내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다. 이로써 내가 내 아들 안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고 나 자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계시하고 사람들의 심장을 성숙하게 하고 그들이 나를 깨닫고 이제 또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위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구원해줄지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직 아주 세속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를 세상 문제의 구원자로 여겼다. 왜냐면 그들이 그들의 영적인 위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위험이 유일하게 내가 이 땅에 임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내 가르침을 통해 그들의 혼을 준비해야만 했고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자극하고 권면해야만 했고 그들을 위해 사랑의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만 했다. 이로써 그들이 이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해하고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깨달음이 증가하게 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그러나 이 일에 기적적인 현상이 동반되었다. 이런 현상들이 곧 심장 안의 사랑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임한 사랑에 대한 빛을 주었다. 아주 큰 내 사랑과 긍휼이 완전히 잃은 피조물을 나를 위해 다시 찾을 방법을 구했고 구한 방법대로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으로 임했다. 그는 아주 고통스

럽고 쓰라렸지만 노예가 된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했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너희를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했다.

내가 스스로 이 땅에 임했다. 그러나 내가 내 힘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으로 임할 수 없었다. 그런 일은 너희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눈에 띄지 않게 구속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나에게 걸형체였고 걸형체로 머문 어린 아기 안에서 태어났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았고 이로써 내 피조물인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너희를 도와 너희가 다시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했다.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B.D. No. 7731

1960년 10월 27일

너희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된 일이 가장 큰 비밀이고 비밀로 남을 것이고 비록 너희에게 이를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설명할지라도 너희에게 있는 비밀로 남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내 성품을 전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항상 인격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존재하는 하나님을 어떤 제한된 존재로 상상하고 이 제한된 존재를 이제 두 존재 자체가 하나가 된 인간 예수 안에 대입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 왜냐면 내 성품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고 내 성품은 모든 것을 채우고 포함하는 제한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능력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에게 내 성품을 소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너희에게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직 모든 제한이 없는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단지 제한된 크기로 채워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그가 온전하기 때문에 즉 그가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충만한 힘을 자신 안에 담았다.

그에게 하나님의 힘이 흘러 들어가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그는 전적으로 이 능력으로 충만했다. 그러므로 내 원래의 성품이 신적인 사랑의 힘이 그 안에 거했다. (1960년 10월 27일) 그러므로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할 수 있었고 그가 그의 걸형체를 이런 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내 힘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인간 예수의 걸형체 안에 이런 힘을 전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 예수의 형체 안에서 자신을 단지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왜냐면 영원한 힘의 원천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존재가 거대한 내 사랑의 불 바다를 한번 볼 수 있게 되면, 존재는 이를 절대로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나에게 제한을 가해야만 했고 나는 너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만 했고 이 형체를 이제 전적으로 충만하게 채웠다. 그러나 형체는 그럴지라도 영원으로부터 나 자신의 상태인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머물렀다. 형체는 나를 보기를 갈망하는 내 피조물들 때문에 거할 수 있는 장소로써 가장 높고 온전한 존재를 섬겼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내 성품을 영원히 헤아려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 성품은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인 나로부터 한때 생성되어 나온 모든 존재에게 헤아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신성을 인격화하려는 일은 잘못이다. 왜냐면 나는 제한이 없는 영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채우는 능력이고 모든 무한 가운데로 발산되는 힘이며 모든 존재들과 모든 창조물들을 유지하고 그들이 유지되게 보장하는 힘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는 자신의 의지를 활용하는 존재이고 최고로 온전한 가운데 생각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항상 사랑과 지혜가 생각을 정하고 권능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는 존재이다.

한때 나에 의해 창조 된 존재가 나를 보기로 갈망했던 일이 그들이 나로부터 타락한 동기였다. 그러나 나는 모든 존재가 볼 수 있게 될 수 없었다. 왜냐면 그들에게 열리게 돼야만 했을 빛과 능력의 충만함 앞에 그들이 소멸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녀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기를 원했다. 나는 나를 그들에게 볼 수 있게 소개해주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걸형체 안에서 나를 소개했다. 그러나 걸형체는 이 전에 모든 충만함으로 내 빛과 내 능력을 자신 안으로 영접할 수 있기 위해 전적으로 영화돼야만 했고 걸형체도 영원한 내 원래의 존재와 같은 영적인 입자가 돼야만 했다. 이로써 나 자신이 이 형체를 채울 때 형체가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형체에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사라졌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영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었다.

나는 인간이 되었다. 그러나 단지 인간으로써 너희 죄를 용서하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되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더 이상 인간으로 머물지 않았고 이 땅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고 그는 그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인 나와 전적으로 하나로 융합되었고 내 원래의 성품이 그 안에서 나타났다. 모든 것을 채우는 영원한 영이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형체를 입었다. 이로써 나를 보고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고 나를 대면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내 모든 자녀들은 나는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심.

B.D. No. 8250

1962년 8월 24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 더욱 어두워지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와 하나가 된 것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데에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에 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르침 받은 것으로 인해 잘못된 생각에 도달했다. 그러나 영원한 신성은 인격화 될 수 없음을 항상 또 다시 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신성을 모든 무한한 것을 채우고 있는 능력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고 이 능력은 제한이 없고 그러므로 형태로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나 능력은 한 형체를 전적으로 채울 수 있고 신적인 능력이 전적으로 비추어 채워지는 과정이 인간 예수에게서 일어났다.

예수는 사랑이 충만했고 사랑은 영원한 신성의 근원적인 성분이다. 이 사랑은 무한한 세계를 향해 쉬지 않고 비추고 있고 모든 것을 생성되게 했고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런 신적인 사랑의 힘이 인간의 형체 예수를 비추어 채웠고 사랑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원래의 속성이 인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간이 되었다. 예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성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되었고 전적으로 영화 된 인간적인 겉형체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로써 예수는 이제 상상해볼 수 있는 신성이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두 인격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인간 예수는 이 땅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모든 피조 된 존재들이 도달해야 할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목표에 도달했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창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완성은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도달해야만 한다. 인간 예수는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처럼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역을 통해 인류의 죄를 용서했다. 왜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는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이고 이런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원래의 요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모든 충만함으로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그럴지라도 너희 사람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면, 이는 오류로 인도하는 개념이다. 왜냐면 영원한 하나님은 인격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영원한 하나님은 단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서 이제 역사하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게 단지 예수 안에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한때 창조 된 존재들이 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타락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옆에 계신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존재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영화 된 형체에 비추어 채울 수 있는 사랑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힘은 단지 신적인 근본 요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지 자신을 영화시킨 존재만이 이 사랑의 힘을 볼 수 있다.

만약에 아버지 아들 성령을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으로 아들을 지혜로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는 의지나 권세로 인정을 하면, 실제 유효하다.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지혜와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 할 때 세운 목표가 이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고 이런 목표에 도달하면, 이런 일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인 인간이 된 것과 볼 수 있는 예수 안의 신성을 설명한다. 반면에 세가지 인격을 가진 신성은 전혀 올바르지 않고 진리에 합당한 설명을 해줄 수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개념을 만들어 내었고 이로써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었다. 왜냐면 세가지 서로 다른 신들을 불러서는 안 되고 단지 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 안에서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단지 예수 안에서 경배받을 수 있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한때 그를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동시에 구속사역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원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아멘

처녀의 잉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빛의 혼의 유리한 점.

B.D. No. 6673

1956년 10월 20일

나는 너희의 세상적이고 영적인 모든 문제를 돋기 원한다. 이로써 너희가 내 사랑과 내 지혜와 능력을 믿을 수 있게 한다. 왜냐면 내가 내 피조물인 너희를 무한히 사랑하고 내가 또한 너희의 사랑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고통을 알고 또한 어떻게 고통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고 고통을 해결할 권세가 있다. 그러면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자신을 기억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녀에게 내가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얼마나 자원하여 증명해주기를 원하겠느냐!

나는 너희의 세상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세상적인 문제는 너희의 인내를 요구한다. 왜냐면 내가 유일하게 세상 문제가 왜 너희에게 닥쳐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세상 문제를 해결한다. 영적인 위험에 처한 사람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나를 기억하기 만하면, 내가 이미 도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위험은 혼이 연약한 일이고 이로써 의지가 약해지는 일이고 영이 어두워지는 일이고 항상 또 다시 반복되는 의심이다. 이런 영적인 위험은 내 대적자의 역사이고 영향력이다. 내 대적자는 이미 나에게 속한 사람을 다시 자신을 위해 얻어 자신의 권세 아래 두기 위해 나에게 속한 사람에게 아주 자주 접근한다. 대적자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항상 또 다시 인간을 약하게 만들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나에게 향하면, 그는 내 대적자를 물리치고 내가 그의 기도를 성취시켜준다. 그의 기도는 내 힘을 그에게 부어주기를 구하는 기도이고 그에게 빛과 깨달음을 주고 영적인 위험을 해결해주기를 구하는 기도이다.

내 대적자가 진리의 빛을 끄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 진리의 빛은 모든 곳으로 밝은 빛을 비추고 내 대적자가 단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어두움을 물리친다. 그러므로 그는 빛을 끄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는 사람들에게 의심스러운 질문을 속삭여 깨달음의 빛을 어둡게 하면서 그림자를 드리우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림자를 드리우는 일을 허용하지 않고 그럴수록 내 진리의 빛을 더 밝게 비추고 내 대적자가 어둡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빛을 더 밝게 해서 밤을 비추게 할 것이다. 아직 그림자가 있는 곳에서 내 대적자는 모든 것을 비추는 내 빛에 의해 삼킴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런 빛 앞에 어떤 어두운 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빛 자신이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너희 사람들과 또한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이미 거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몇 사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번 타락했던 영적인 존재이다. 왜냐면 빛의 존재도 이 땅으로 육신을 입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빛의 나라의 존재들이 깊은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너희를 돋기 위해 너희 인간에게 내려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원래의 영과 하나

님께 머문 원래의 영을 구별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떠난 원래의 영은 내 대적자의 추종자로서 깊은 곳에 거하고 하나님께 머문 원래의 영은 모든 온전함을 가진 가운데 나에게 머문다.

너희는 더 구별을 해야만 한다: 대적자의 의지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고 이미 내 의지 안으로 들어 갔지만 아직 온전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대적자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너희는 또한 두번째 존재가 대적자의 영향에 비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줘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돋기 위해 자원하여 이 땅으로 육신을 입는 빛의 존재들의 사명이 너희에게 설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또한 그런 빛의 존재로서 내 대적자의 권세를 꺾고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원했던 인간 예수의 사명을 이해하게 된다.

(1956년 10월 19일) 타락한 존재와 나와 함께 남아 있는 존재들 모두가 내 사랑의 자녀였다. 그러나 이런 존재들이 동일하게 머물지 않았고 그들은 이제 서로 달라졌고 그들은 같은 영역에 살 수 없는 빛이 있는 존재와 빛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가 서로 다르게 된 존재들의 거처가 되었고 나와 함께 머물렀던 천사의 영이었던 인간 예수가 임할 때까지 이 두 나라를 건너는 다리가 없었다. 인간 예수는 다리를 건설하기를 원했고 일회적인 긍휼의 역사를 통해 다리를 건설했다.

그들이 한때 나에게 반항한 일로 인해 그들의 온전성을 잃게 된 존재들은 돋는 존재가 필요했다. 왜냐면 다리가 놓였을지라도 그들 스스로 너무 연약했고 내 대적자가 자신의 예전의 추종자들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머문 존재들은 힘이 충만했다. 왜냐면 그들이 내 사랑의 힘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비추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락하지 않은 한 천사의 영의 힘은 내 대적자를 이기고 그로부터 그의 추종자들을 빼앗기에 전적으로 충분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내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왜냐면 한때 자발적으로 내 대적자를 따랐던 모든 존재들의 자유의지가 존중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이룬 승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고 사랑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모든 타락한 존재가 이런 희생 제사를 활용할지를 그의 자유에 맡겨야만 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존재가 그런 희생이 자신을 위해 드려졌기를 원해야만 했다. 그러나 사람이 단지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빛의 존재가 실제 자신을 희생할 의지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왜냐면 빛의 존재가 빛의 존재로서 고통받을 수 없고 모든 일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고난과 고통에 민감한 존재이다. 그가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웃을 위해 불행한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기 원하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면, 이제 아주 큰 의지의 힘을 모아야만 한다. 즉 그가 단지 인간으로서 이웃을 위해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고통을 감당할 수 있고 줄을 수 있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비록 인간 예수 자신의 혼이 빛의 영이었을지라도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특징짓는 어떤 특권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이해할 것이다. 예수의 혼은 실제로 타락한 형제들인 인간의 혼처럼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가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예수의 혼이

이웃의 육체처럼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모여 있는 육체를 입었다. 그러므로 그의 육체는 같은 감정과 욕망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왜냐면 그의 사명이 가장 무거운 죄짐을 해결하는 구원하는 일 외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유일하게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보장하는 모범적인 삶을 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전히 부적절하고 연약하고 욕망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사람들이 요구받은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했다. 인간 예수가 모범적으로 섬기기를 원하면, 그는 그의 이웃과 같은 성정을 가져야만 했다. 사람을 돋기 원해 이 땅에 육신을 입은 빛의 존재와 같은 그의 특별한 기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이 땅의 목표이자 과제인 나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덜 힘들게 자신과 싸워야 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나 장점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고 인간 예수 자신이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목표이자 과제를 성취시킬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예수는 빛의 영으로서 자신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에 가졌던 것을 포기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줄 사랑으로 드린 희생 제사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이런 희생을 치렀다는 일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왜냐면 인간 예수를 충만하게 채운 사랑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가 인간으로서 자유의지로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자신을 형성했고 그가 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고 이로써 그가 이제 풍부한 힘과 빛을 받았다. 이런 일은 단지 인간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이뤄야 할 일이고 이를 수 있는 일이다. 왜냐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이고 인간 예수가 이제 한 사람으로서 그의 구속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 은혜를 활용하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그는 또한 이 땅에서 나와 연합을 이룰 것이고 제한이 없게 빛과 힘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1956년 10월 20일) 그러나 너희는 아직 계속되는 설명을 받아야 한다. 왜냐면 너희 안에 질문이 계속 생기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올바른 답변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대답을 더 긴밀하게 원할수록 더 빠르게 대답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깊은 곳에서 성장한 혼들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그들의 마지막 성장의 단계를 각오해야 하고 그러면 이 땅의 성장 과정이 끝이 나고 혼들이 물리적인 겉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혼은 영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즉 이런 혼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과정을 가고 섬기는 일을 통해 굳은 물질에서부터 서서히 자신을 구원하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이 땅으로 육신을 입은 빛의 혼들은 단지 사명을 목적으로 이 땅에 임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즉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과정을 간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자연 법칙의 적용을 받고 또한 이 땅에서 투쟁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겉형체는 그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할 것이다. 왜냐면 겉형체는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인 한때 타락한 원래의 영의 혼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아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저항하고 있고 혼이 먼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부드럽게 만들고 변화시켜야만 하고 이를 위해 항상 투쟁이 필요하다.

혼은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빛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육체가 동일한 어두움을 그에게 준다. 그런 사람 안의 사랑은 단지 더 빠르고 강하게 점화가 되고 어두움을 더 빠르게 물리치게 된다. 위로부터 온 혼의 눈은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고 아주 빠르게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그런 혼은 보통 자신 안의 하나님의 불씨와 하나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영의 불씨가 이제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영과 혼도 이제 자신의 겉형체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성공한다.

혼이 이 땅의 과정을 가는 일은 혼이 항상 투쟁해야만 한다는 당연한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왜냐면 혼이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혼도 고난이 없이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고 빛의 혼조차도 고난이 없이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면 혼이 육신을 입은 초기에는 깊은 곳에 거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고 묶임을 받은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은 빛의 존재의 이 땅의 과정을 더 쉬운 과정으로 여긴다면, 이런 점을 항상 참작해야만 한다.

이 땅의 육체는 혼이 육체를 떠날 때까지 혼에게 사슬이고 사슬로 머문다. 그러나 육체도 또한 서로 다를 수 있다. 육체가 아직 죄 속에 깊이 갇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육체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단지 사탄적인 특성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을 지배하면, 육체 안에 아직 많은 루시퍼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다. 반면에 두 사람의 사랑의 욕구가 새로운 생명을 깨어나게 해서 한 존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본성이 존재에게 주로 흘러갈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라 겉형체의 성품도 좋은 본성을 갖게 될 수 있다.

혼은 자신 안에 많은 유전자를 갖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땅의 삶에서 크거나 적게 힘든 싸움을 싸워야만 하고 또한 힘들거나 또는 쉽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에 투쟁이 없는 사람은 없다. 빛의 존재의 이 땅의 삶은 자주 특별하게 어렵다. 왜냐면 혼이 이 땅의 세상에 머무르는 일을 무의식적으로 고통으로 느끼고 또한 자신의 과제를 위해 자주 아주 어려운 땅의 운명을 짊어지기 때문이다.

출산의 과정이 아담의 실패로 인해 이제 축복받지 못한 과정이 되었다. 왜냐면 출산이 하나님이 적시에 첫 인간 부부에게 자신의 축복을 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시퍼가 인간의 잉태에 참여했고 그는 아담의 의지에 의해 그에게 부여 된 자신의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비록 사람들의 사랑의 정도가 그에게 어느 정도까지 저항할 수 있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할지라도 그는 항상 새 생명이 잉태되는 일에 참여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 자신이 언젠가 소유하기 원하고 태어날 때 이미 자신의 거주지로 섬겨야 할 물질적인 겉형체를 창조할 때 자신의 대적자에게 대항한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는 일에 절대로 자신의 대적자와 연관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또한 대적자가 자신의 겉형체를 소지한 자연적인 사람을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모든 것을 생성되게 하고 모든 것에 그의 목적과 사명을 부여하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에게 진실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자신으로부터 생성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출산의 역사가 없이도 사람이 생성되게 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고 자신의 뜻이 이뤄질 때까지 대적자를 멀리하는 일도 진실로 가능할 것이다.

하나님은 단지 순수한 걸형체 안에 거하고 어떤 순수하지 못한 것과 연결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대적자에게 속한 나라에서 사는 인간은 이제 모든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의 이 땅의 행로가 그의 이웃보다 적게 고통스럽지 않았고 치열한 투쟁을 했다. 왜냐면 싸움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는 패배해야만 했고 예수는 진실로 이 땅에서 벌어진 가장 힘든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는 하나님의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 오셨다.

B.D. No. 6951

1957년 10월 21일

나는 큰 영적인 위험 때문에 이 땅에 임했다. 왜냐면 내가 내 대적자에 의해 묶임을 받고 그에게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그들의 하나님께 구세주를 보내주기를 구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을 궁휼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기록이 된대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굳게 흔들리지 않게 믿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은 모든 간절함으로 메시야를 기다렸다. 그들은 메시아를 가장 깊은 곤경과 공격으로부터 구원할 그들의 구세주로 기대했다. 그들 때문에 내가 임했다. 왜냐면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부름이 내 귀에 도달했기 때문이고 내가 그들의 믿음을 실망시키기를 원하지 안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 예수의 사명을 위한 때가 되었다.

나는 대적자의 사슬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했고 나는 이미 이 땅을 떠났지만 그러나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큰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에게 구원을 주기 원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이미 영원한 기간 동안 그들을 사슬로 묶은 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그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축복의 나라인 내 나라로 향하는 길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임했다.

내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자세가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깨달았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게 자극해주려고 노력했을지라도 나를 따르는 무리는 크지 않았다. 사랑을 행한 결과로 그들은 나를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큰 위험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적은 데 있고 사람들이 이미 대적자의 사슬에 전적으로 묶여 있는 데 있다. 대적자 자신에게 전혀 사랑이 없고 대적자는 나에게 대항한다. 나는 내 승리를 통해 대적자가 묶고 있는 혼들을 그로부터 빼앗기 위해 그에게 대항해 싸우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았다. 왜냐면 사랑이 내 대적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무기였고 사랑이 사람들에게 스스로 대적자에게 저항할 능력을 주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들은 전적으로 대적자에게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대적자는 사랑에 저항할 수 없다. 사랑은 대적자를 패배시키는 가장 유일한 무기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찾아볼 수 있었다.

사랑이 유일하게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인 나와 연결시켰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원했으면, 연결이 이뤄져야만 했다. 내 말이 그들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왜냐면 그들의 부족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새롭게 내 뜻을 알려 주고 그들에게 내 사랑의 계명을 새롭게 주기 위해 그들을 축복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가르침인 복음을 그들에게 새롭게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임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줘야만 했다. 나는 이 전에 그들을 묶고 있는 그들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내 뜻을 성취시키는 일을 막는 권세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원했다. 나는 이런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주기 원했다. 내가 인간 예수의 형체 안에서 모든 곤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인간 예수의 형체를 택했다. 그러나 그들의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내 편에 서야만 했다. 나는 자유의지로 원수에게 머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었다. 그러나 나에게 향한 사람은 원수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나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이런 구속역사는 인간적인 영역 안에서 일어나야만 했다. 왜냐면 사람들의 의지가 강요받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의 구속역사를 인정하기 원하는지 또는 거부하기 원하는지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자유롭게 맡겨둬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인간 예수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갖고 속죄를 받기 위해 이 땅의 과정을 가는 사람들의 큰 죄짐을 속죄해야 하는 큰 속죄의 제사를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나를 깨달았고 내 안에서 선견자와 선지자들이 항상 계속하여 예언한 구세주인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위험이 아주 컸다. 그러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 왜냐면 내 사랑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 자신이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드림으로써 죄짐을 사했다. 이 사랑이 항상 또 다시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한 내 구속사역의 은혜를 아직 활용하지 못한 그러므로 항상 원수의 사슬 아래 고통당하고 도움이 없이는 자신을 절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상 또 다시 그들을 만나고 인간 예수의 구속사역을 알려 주면서 도움을 주려고 했다. 인간 예수는 인간으로써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자신의 이웃의 영적인 위험을 알고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측량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제사를 드렸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말씀 안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고 너희 모두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세주요 구원자가 된 예수의 큰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그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예수는 자신 안에 나를 모시고 있었고 사랑을 통해 나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아멘

그리스도의 탄생.

B.D. No. 7237

1958년 12월 24일

구 원은 위로부터 온다. 얼마나 많은 입술이 그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심장이 관심을 갖

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느냐? 어린 아이가 태어났고 어린 아이의 혼은 빛의 나라에서 내려왔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 어린 아이 안에서 육신을 입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아기 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인간 예수는 어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가 탄생할 때에 일어난 일들은 평범한 인간과 같지 않았고 특별한 걸형체 안에 비범한 어린 소년이 거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어린 소년이 영원한 신성의 걸형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영원한 신성은 단지 어린 예수처럼 순수하고 죄 없는 인간 안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다. 왜냐면 어린 예수는 큰 의미가 있는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고 이 사명을 위한 조건도 특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도 이 아기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했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흠이 없는 혼을 담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께 거할 수 있는 흠이 없는 걸형체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임한 일은 지극히 큰 긍휼의 역사였다. 왜냐면 이 땅이 가장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이 땅의 모든 거주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어두움의 권세자의 다스림을 받고 묶여 있었고 그들이 죄와 고통 가운데 자유가 없는 억압 아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때 자원하여 자신을 떠나 항상 점점 더 깊은 어두움 속에 빠져 더이상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들을 해방시켜 줄 구원자를 부르짖던 자신의 피조물의 어려움을 알았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름을 듣고 그의 권능과 사랑에서 나온 존재인 자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어두움 속으로 타락했을 때 그의 충만한 빛 안에 머물렀다. 예수의 혼은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했고 또한 타락한 형제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돋기를 원했다. 왜냐면 예수의 혼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복과 축복이 있고 그분과 멀리 떨어지는 일에는 환난과 고통과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두 상태를 다 알고 불행한 존재들을 사랑했고 죄를 지은 사람이 결코 속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를 원했다. 그러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순수하고 순결한 혼이 자신을 희생하기를 원했다. 왜냐면 혼이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또는 사랑이 인간 예수를 채웠다. 이로써 인간 예수가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의 일을 성취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자신을 담기 위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 인간의 형체를 취했다. 아기 예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사랑의 광선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심장은 사랑과 감사의 찬양으로 충만했다. 왜냐면 그들의 심장이 순수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아기 구유에 와서 아기 예수에게서 발산 된 사랑을 느꼈고 아기 예수를 향한 사랑이 타올랐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사건들은 단지 전설로 여기지만 영이 깨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해진 모든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 아기 주변과 자연계에서 하늘과 땅에서 기적 위에 기적이 일어났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아기 예

수 안에 육신을 입은 분 앞에 무릎을 끊었고 가장 큰 기적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을 때 사람과 동물들이 가장 거룩한 경외심과 침묵에 사로잡혔다.

그의 영이 깨어난 사람의 심장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것이다: "구원은 위로부터 온다." 왜냐면 그에게 마찬가지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비추기 때문이고 그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구세주가 이 땅에 임한 사람들에게 속하기 때문이고 그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궁휼의 역사를 이룬 구속받은 사람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자신이 죄와 사망에서 구속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단지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온 그날 밤 아기 예수가 세상의 빛을 보았을 때 일어난 모든 일에 생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찬양을 드릴 것이다: "이 땅의 평화가 임하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리라."

아멘

빛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

B.D. No. 7780

1960년 12월 24일

세상은 묶인 가운데 있다. 이 땅의 과정을 가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는 루시퍼의 세상에서 사는 어떤 사람도 사탄의 사슬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라. 사탄은 사람들을 묶고 있고 그는 사람들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그 안에는 단지 영원한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부터 그를 생성한 나를 향한 미움과 저항만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묶임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묶임을 풀고 사슬을 끊고 타락한 자들이 다시 높은 곳으로 도달하게 돋고 사람들을 그의 권세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왔다.

내가 이 땅에 임한 것은 가장 큰 궁휼의 역사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이런 불행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그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나에게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는 길을 가리켜 주기 위해 나 자신이 그들을 궁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빛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이런 타락한 존재들에게 어떤 작은 빛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빛 자신이 이 땅에 임했다.

영원한 빛이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가기 위해 아기 안에서 육신을 입었다. 아기 예수는 내 걸형체가 되었고 아기 예수는 내가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내 대적자와 공개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에게 돌아오려는 의지와 소원을 가진 혼들을 그로부터 얻기 위해 내가 사용한 인간적인 형체였다. 나는 이런 혼들을 위해 구매가격을 지불했고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희생했고 내 피로 내 대적자로부터 그들을 구매하여 자유롭게 했다.

그러므로 나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이미 특별한 일이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내 걸형체로써 나 자신을 섬겨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죄악 된 인류가 내 충만한 빛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빛이 자신을 가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아기 예수는 이미 특별한 빛을 발산했다. 그러나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빛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이로써 내 가까이에 거

하는 일이 허용 된 사람들이 이 빛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누가 이런 내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었고 그들은 그들의 왕에게 드리듯이 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경배드렸다. 왜냐면 그들의 단순한 혼이 나를 깨닫고 나에게 경배했기 때문이다.

내가 태어나는 일은 숨겨진 가운데 일어났다. 왜냐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발산 된 영의 충만함이 가장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가장 깊은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심장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내가 태어남으로 그들의 희망이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몰랐다. 아기로부터 그들에게 내 사랑이 발산되었고 그들의 심장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거룩한 나타남에 사로잡혀 그들의 모든 성정이 예수에게 향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들 앞에 구유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몰랐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로써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사랑이 깨어나게 하는 내 사명이 시작되었다.

나 자신이 인간으로써 살게 되었고 나는 모든 자연의 법칙에 순응했다. 목표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일인 이 땅의 과정을 나는 의식적으로 갔다. 한 동안 내 영이 역사하여 자신을 나타내었을 지라도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떠한 우월함도 없었다. 왜냐면 나는 나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너희 사람들에게 과제를 준 것과 같이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에게 모범이 되도록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육신을 영화시켜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야만 했다. 내가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의 삶이 나에게 주었다. 내가 인간으로 내 삶을 살았다면, 너희 모든 사람이 어린 시절에 내 실제적인 가르치는 일을 하기 전의 기간 동안 내가 행해야만 하고 행했던 것처럼 내 모범을 따라야 하고 너희 인간적인 육체를 하나님의 영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인간 예수 안에 거했다. 인간 예수는 자신을 가꾸어 내 거처로 섬겼고 그러므로 나는 인간 예수로써 충만한 영이었고 아버지 자신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으로 흐를 수 있는 영의 그릇으로 섬기려는 단지 진지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은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대적자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와 연결을 이루면, 나 자신이 사슬을 풀어주고 그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의 과정을 갔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여 그들이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하고 갈 수 있게 한다.

아멘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너희는 몰랐느냐?"

B.D. No. 3634

1945년 12월 23일

여의 음성을 들으라: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신을 형성해야 한다. 즉 그 자신이 아버지가 그 안에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 너희 모두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의 불씨를, 즉 나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에서 잠을 자고 있고, 너희가 스스로 사랑을 행함을 통해, 나와 긴밀한 연합을 통해 나를 깨우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는 나의 영의 불씨가 너희 안에 있지만, 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스스로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 너희 자신을 형성할 때, 내가 역사할 수 있다. 그러면 비로소 내가 내 집에서 활동할 수 있고, 나는 너희에게 거할 수 있고, 가장 충만한 진리대로 너희를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아버지의 소유 안에 거하고, 사랑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게 된다. 그러면 너희 자신이 가장 거룩한 분을 모신 하나님 자신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는 절대로 이 땅에서 혼자 살지 않게 될 것이고, 항상 계속하여 나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나의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 안에서 가르친 것처럼 너희를 가르치는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고 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으로 지혜가 된 나는 이 땅에서 사랑과 지혜를 나눠주면서, 끊임없이 일해야만 했다. 나는 나 자신이 받은 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줘야만 했다. 왜냐면 내가 그들이 축복되도록 돋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곳에 있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로부터 사람들에게 제공되거나 또는 내면에서 들리는 곳이, 아버지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즉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 나의 지혜를 받아드릴 수 있게 되는 곳이 항상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항상 내 집에서 활동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나를 영접하기 원하고, 때문에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하여,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이 그들과 연결될 수 있게 한 사람들의 심장이 나의 집이고, 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모든 곳이 나의 집이다. 그러나 나의 영의 역사가 없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장소를 선택한다면, 너희는 빈 강당에서 머물게 된다. 나는 단지 아버지가 계신 곳에 거할 수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서 단지 나의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말씀이고,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면, 너희는 너희의 심장을 영접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하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야만 하고, 이제 나를 위해 문을 열어야만 한다. 이로써 내가 너희의 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너희의 심장이 나의 집이 될 것이다.

아멘

나는 너희가 깨달음을 요구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이웃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올바른 지식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올바른 지식을 갖는 일은 나를 섬기기 원하는 너희의 과제이다. 나는 너희가 지식을 전하기 전에 너희 자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왜냐면 이웃은 종종 그다지 인내하지 않고, 의심이 있을 때 특별히 설명을 원하고, 그러면 너희가 이웃에게 또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문제가 대부분의 질문을 제기하다. 왜냐면 지금까지 명료함을 주기 보다는 항상 점점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산 일은 다른 사람의 사는 방식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고, 내가 단지 심장 안에 사랑이 발전할 여지를 주었고, 다른 사람은 자기애를 증가시키고, 베푸는 대신에 소유하기를 원했다. 모든 사람의 심장 안에 사랑의 불씨가 이글거리고 있고, 그러나 그는 이 불씨를 밝은 화염으로 타오르게 할 수 있고 또한 질식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된다. 왜냐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신성을 인정하는 반면에, 자기 사랑은 내 대적자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자신을 높였고, 이로써 타락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인간 안에 있는 신성한 것이고, 이 사랑은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시작될 때 아주 작은 불씨로 자신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미 아기 예수 안의 사랑의 불씨를 깨달을 수 있었다. 왜냐면 빛의 혼이 실제 영의 나라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한 채 아이 안으로 육신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럴지도라도 그는 그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영의 불씨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연결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사랑의 힘을 때때로 보여주었다. 이런 연결을 이루는 일은 모든 사랑이 충만한 자녀에게 일어난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신성을 믿도록 예수 안에서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이런 어린 아이에게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보장되지 않았고,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단지 희귀하게 일어났다. 왜냐면 인간의 이성과 자유 의지가 먼저 자신 안에서 내 영의 역사를 위해 추구해야만 하고, 시간이 감에 따라 비로소 의식적으로 추구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생각할 자유로 이성과 의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 예수의 기적과 비범한 사건에 대한 설명은 단지 높은 수준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면 예수의 혼은 위로부터 왔고, 예수의 혼은 빛과 사랑의 혼이었고, 이제 인간의 형체 안에 둘러싸였고, 인간의 걸 형체에 합당하게 머물기 위해 또한 지금까지 제한이 없게 창조하고 역사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 안의 사랑은 높은 수준에 있었다. 그러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도 자신을 주장했다. 세상이 즉 내 대적자와 그의 대적자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의 요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왜냐면 의지의 시험 때문에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내 영이 이제 잠잠해졌다. 왜냐면 인간 예수도 이런 의지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고, 비록 그의 사

랑으로 인해 내 영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혼을 신적으로 만드는 역사가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조건 하에 이뤄져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자신의 의지로 최고의 사랑에 도달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내 영은 이 기간 동안에 뒤로 물러났고, 밀어붙이지 않았고 몰아가지 않았고, 인간 예수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 이로써 그의 증가된 사랑을 통해 항상 점점 더 내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이런 일이 지혜와 능력으로 지극히 큰 지식과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

인간 예수는 이 사명을 위해 영원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최고의 빛의 존재가 이 땅에 임했고, 영광 중에 사는 내 자녀들 중의 한 명이 이 땅의 과정을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 혼이 이미 아기 예수의 이 땅의 곁형체를 빛으로 충만하게 해야만 했다. 예수 어린 시절의 특별한 모든 역사는 전적으로 자연스럽고 이해할 수 있는 역사였다. 그러나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훗날에는 발산되는 빛을 가린 가운데 사랑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 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실제의 사명이 시작되었다.

나는 실제 언제든지 내 영을 통해 인간 예수 안에서 역사할 수 있었다. 왜냐면 역사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의 사명을 위해 모든 신적이고 영적인 요소들이 뒤로 물러났고, 이 사명은 인간으로서 예수에 의해 완성되었다. 그는 모든 힘을 단지 오직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으로부터 얻었다. 이런 사랑을 성장시키는 일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어려웠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승리했고, 내 대적자는 패배했다. 내 대적자는 예수의 자유의지를 간섭할 수 없었고, 예수의 의지는 완전히 전적으로 나에게 향했다. 그러므로 그의 역사가 성공했다. 왜냐면 나를 향한 그의 의지가 그의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사랑은 힘이었고, 죽음보다 강했고, 그러므로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자를 이겼다. 사랑이 승리했고, 영원히 승리자로 머물 것이다.

아멘

예수의 공생애 전의 삶.

B.D. No. 8486

1963년 5월 3일

L희가 단지 진리를 갈망하면, 나는 너희에게 항상 모든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고 나는 너희가 가진 질문에 답변을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답변을 진리 때문에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희가 여러 가지 관점이 주장되는 가운데 선명하게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전하려는 사명을 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설명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 예수의 이 땅의 길은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다. 단지 영적인 길을 통해 너희 사람들에게 예수가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어디에서 그의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가족들과 가장 단순한 생활을 했다는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는 부모님과 교류하던 사람들 무리 가운데도 항상 아주 뒤로 물러서 있었고 그는 큰 모임과 같은 모든 감각적인 즐거움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했다. 그는 항상 혼자 머물렀고 그는 위험 가운데 있는 자신의 이웃들을 도우려는 특별한 자세를 통해 내적으로 성장했다.

왜냐면 그의 심장이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그의 지혜가 증가되게 해서 그에게 지식이 주어지게 했고 그는 모든 것을 밝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초기의 이런 내적인 밝음이 번개와 같이 그 안에서 비추어 주었을지라도 그러다가 다시 한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모든 다른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같은 나 이 또래의 모든 아이들보다 지식이 월등 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영접하는 일을 거절했다. 너희 사람들은 사랑이 가장 좋은 선생이라는 한 가지를 믿을 수 있다. 자신 안에 사랑을 올바르게 확장시킨 사람은 이웃들에 의해 절대로 이와 같은 빈틈이 없는 깨달음을 제공 받을 수 없는 깨달음에 내면으로부터 도달한다.

너희는 이제 예수의 혼이 빛의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예수의 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제 빛을 버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가장 순수한 빛의 존재로서 내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충만한 사랑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인간으로써 사랑의 빛은 모든 크기로 역시할 수 없었다. 왜냐면 이웃이 이를 견딜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예수 안에서 사랑의 빛이 계속 발산되어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써 그는 아주 빨르게 인류의 큰 위험과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고 자신이 사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너희는 이제 그가 소년으로써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것을 알고 그가 서기관들을 놀라게 하는 답변을 그들에게 해주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그가 이미 소년으로써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은 자신 안의 밝은 불길이 근원이 되어 그에게 가르쳐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해주는 일이다. 그의 사랑은 항상 강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의 지혜가 증가했다. 그는 청소년 시절에 이미 선생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았다. 왜냐면 그가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학교로부터 자신을 멀리 했기 때문이다.

그가 성전에서 가르친 후 그의 실제적인 가르치는 역사를 시작하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에 관해 후손들에게 어떤 기록도 남겨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이 주는대로 아주 서로 다른 짐작과 설명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삶이 아주 조용한 가운데 아버지 집에서 이루뤄졌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이다. 왜냐면 이 기간 동안에는 그가 모든 신적인 능력을 잃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공개적인 눈을 벗어나 전적으로 은둔하는 삶을 살았고 목수 아들로서 그의 직업인 목수 일을 행했다.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면 이 기간은 예수가 인간으로써 성장해야만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성장해 완성에 이르는 이 땅에 과정의 모범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 시간 동안 그 주변의 모든 것이 조용했고 그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는 영적인 발달이 뒤처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왜냐면 그는 자신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리 하고 그의 대답은 항상 단지 짧았고 일반적인 세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의 과제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하는 특별히 성전에 속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을 피했다. 그러므로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한때 그가 하나님이 보낸 아주 특별한 아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그의 가까운 친척들도 그의 주변에 없었다.

세상에서 거하는 기간은 예수에게 아주 특별하게 고통이 충만한 기간이었다. 왜냐면 외부에서 더 이상 깨달을 수 없는 것이 그러나 내면에 깊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예수 자신

이 이를 해결해야만 했고 자신이 인간으로써 모든 것과 씨름을 해야만 했다. 그는 인간으로써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육체를 공격하는 모든 내적인 충동과 정욕에 대항해 싸워야만 했고 그는 고난을 당해야만 하고 싸워야만 하고 사랑 안에서 섬기는 일을 통해 성장해야만 했다. 왜냐면 그는 지혜를 발산하는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곧 모든 연관 관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능력이 있게 해주는 성장 정도에 먼저 도달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조용함 가운데 은둔한 가운데 단순한 목수의 아들로서 이런 성장 과정에 도달했고 그는 자신의 고향을 벗어나지 않고 단지 내적인 성장을 위해 한적한 곳으로 자신이 물러나서 자주 홀로 있기를 구했다. 그는 산에 올라 자주 온 종일 단지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이 되어 그의 앞에 두고 있는 일을 위해 능력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머물렀고 그에게 자주 모든 세부 사항까지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 그가 끔찍한 공포의 상태에 빠지게 했고 이 가운데 그는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했고 그를 강하게 해주었다. 나는 그에게 항상 밝은 깨달음을 주어 그가 항상 새롭게 인류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주는 역사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드리게 했다. 그러나 인간 예수가 다른 나라들의 현명한 사람들과 선생들과 교제를 통해 깊은 지식을 얻었다는 일은 전적으로 잘못된 관점이다. 누가 실제로 나 자신보다 예수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러나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이런 일은 그의 아주 큰 사랑의 결과이다.

예수가 자신의 가르치는 사역을 그의 고향에서 수행할 수 있기 위해 이웃들이 주는 가르침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적으로 불합리한 생각이다. 너희 사람들이 단지 특정한 조건이 갖추면 나 자신이 진리를 이 땅에 전한다는 증거를 얻게 된다면,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이 나를 향한 사랑과 나에 대한 전적인 헌신하는 면에서 너희 모든 사람을보다 능가한 예수는 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단지 사랑의 삶이 주는 효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가 다른 나라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 깨달음을 얻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예수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만 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내가 단순한 이 땅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일어나게 하는 일인 내가 인간 예수에게 영을 통해 위로부터 순수한 진리를 전하는 일이 인간 예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너희 사람들은 진실로 인정해야만 한다. 예수는 나 자신이 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떠한 선생도 필요하지 않고 가장 깊은 지혜를 나로부터 직접 받아 인간으로써 가르치고 이웃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너희는 이제 이런 내 말씀을 가장 순수한 진리로 받을 수 있고 나는 너희가 오류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아직 알지 못하는 영역에 관해 너희에게 설명해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너희 사람들이 예수가 원래 누구였는지 왜 그가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한 형편으로 이 땅으로 임해 이 가운데 성장해야 했는 지에 대한 선명한 관점을 얻는 일이다. 왜냐면 비록 그가 다른 모든 사람처럼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모두가 자신 안의 영적인 능력을 최고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었고 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지식을 소유하고 이웃에게 이제 전했다는 것과 그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가르치게 하거

나 가르침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었다. 왜냐면 그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이 땅에서 나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최고의 완성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인간이 된 나와 하나가 되었다.

아멘

시험에 대항하는 예수의 싸움.

B.D. No. 7056

1958년 3월 5일

내 이 땅의 삶도 너희가 극복해야만 하는 같은 시험과 싸움이 있었다. 나도 이 땅의 모든 육체의 입자들을 올바른 질서 아래 두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나는 정욕을 알았고 이 정욕에 대항해 싸워야만 했다. 왜냐면 나도 너희를 힘들게 만드는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내 안의 의지의 능력이 연약함을 다스렸다.

그러므로 나는 내 육체에 강제를 행했다. 나는 내 육체가 내 혼을 능가하는 권세를 얻지 못하게 하고 종이 된 인류 가운데 거할 때 내 안에 불타오르는 사랑의 힘으로 육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나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짓누르는 위험을 보았다. 내 안에서 그들을 돋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의 육체적인 갈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갈망을 따르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내 육체의 욕망에 주의하고 성취시켰다면, 단지 내 도우려는 의지가 약해짐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아주 어려운 싸움이었다. 왜냐면 모든 방향에서 유혹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내 안의 인성이 만족을 구했다. 그러나 내 혼은 하나님께 향했다. 혼은 공격이 심해질 수록 항상 더욱 아버지와 연결이 되길 구했다. 그러므로 혼은 항상 더 많은 능력을 받았다. 왜냐면 아버지와 연결이 절대로 효과가 없이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과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쉬운 삶을 살지 않았다. 왜냐면 나는 너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전에 너희의 과제와 같은 사랑을 최고로 확산되게 하여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을 모든 충만함으로 내 안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 이는 이 땅에서 너희의 목표이다.

비록 내 혼이 빛의 나라에서 왔을지라도 그러나 혼은 너희의 육체와 같이 물질인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입자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 권세를 아직 가지고 있는 대적자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입자에게 항상 모든 종류의 욕망과 정욕을 따르게 재촉하는 아주 큰 공격을 받았다.

내가 인간으로써 이에 패배하지 않게 된 일은 단지 저항하게 내 안의 의지를 강하게 한 내 안의 사랑이 가능하게 했다. 어둡고 죄악 된 환경 안에 거하는 일이 악한 영들이 외부로부터 육체를 공격하는 기회를 주었고 유혹하는 장면들로 현혹시키는 기회를 주었다. 이런 현혹은 감각을 무디게 하고 내 저항을 약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는 안 되었다. 나는 그들을 진정시켜야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만 했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있고 언젠가 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그들도 궁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임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나는 권세로 이런 악한 영들에게 대항해서는 안 되었고 인내와 온유로 대해야만 했다. 나는 그들에게 대항해야만 했고 그들이 나를 떠날 때까지 내 사랑의 의지로 그들을 달래야만 했다.

나는 인간이었고 인간처럼 싸우고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 왜냐면 이런 모든 일이 내가 내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완성하기 원했던 구속사역에 속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그들의 연약함과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지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자유롭게 되고 영원한 아버지가 연합이 되는데 도움이 되게 모범적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했고 나는 그들에게 사랑의 힘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는 일이 가능한 일임을 증명해주기 원했다. 즉 사랑이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요 마지막 조건임을 증명해주기 원했다.

내 안의 사랑이 인간인 나에게 불행한 상태의 원인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고 너희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 비로소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구속사역을 목적으로 내 혼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내 안의 사랑이 나에게 구속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주었다. 나는 내가 인간으로써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힘으로 이 역사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을 요청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에게 주기를 간청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내 안에서 받을 수 있게 나 자신을 만들었고 모든 욕망에 내 대적자가 내 안에서 깨어나게 하기 원하는 모든 순수하지 못한 생각에 저항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나는 항상 내 사랑으로 대적자에게 대항했고 대적자는 사랑을 피해야만 했다. 이로써 곧 내 심장 안에 단지 사랑이 충만하게 되었다. 나는 항상 더욱 긴밀하게 영원한 사랑과 연결되었고 영원한 사랑은 사랑을 나에게 선물하고 이제 내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어 내가 강한 의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 가게 했다.

그럴지라도 대적자는 물러서지 않고 항상 또 다시 내 의도를 그가 볼 수 있게 될 수록 더 많이 나를 유혹하면서 내 육체를 특별하게 공격했다. 나는 내 죽는 날까지 그에 대항해 싸워야만 했고 항상 또 다시 내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서 내가 내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했다. „만일 원하시면, 이 잔을 내계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와 연결이 더 강했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했다.

나는 인류의 끝없는 비참함을 보았고 항상 강해지는 사랑은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위해 준비되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단지 나 자신의 곁형체였고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었다. 구속사역을 완성한 것은 사랑이었다. 인류의 죄짐을 사해준 것은 사랑이었고 이 사랑이 나 자신이다.

아멘

인간 예수의 투쟁.

B.D. No. 7872

1961년 4월 14일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했고 내가 원래 초기부터 나를 채우고 있는 사랑을 이 땅으로 가져왔다. 이 사랑은 단지 영원한 아버지

에게 향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현재의 너희들이 더 이상 믿기를 원하지 않는 너무나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고 된 메시아라는 증거를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나와 함께 이 땅에 사랑을 가져왔다. 그러나 나는 빛을 포기해야만 했다. 왜냐면 사람들이 빛의 광도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 몸을 통해 혼을 괴롭히는 모든 성숙하지 못한 영들과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왜냐면 내가 인간으로서 성숙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오직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영화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괴롭히는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을 달래려고 노력해야만 했고 사랑을 통해 내 안의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만 했고 이런 존재들이 자신의 갈망을 버리고 혼의 갈망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런 존재들이 영화가 되게 하고 혼과 하나가 되게 해야만 했다.

이 투쟁은 진정으로 쉽지 않은 투쟁이었다. 왜냐면 내 인간적인 요소는 모든 사람과 같은 욕망과 욕망의 성취에 위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위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인간들과 다른 성정이 아니었다. 유혹하는 세상이 너희와 마찬가지로 나를 유혹했지만 내 혼이 단지 그런 유혹과 거리를 두었다. 왜냐면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랑으로 세상 유혹이 어떤 위험을 주는지를 깨달았고 내가 또한 인간 예수로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체는 자신의 것을 요구했고 따라서 혼의 욕망을 따르고 모든 유혹에 꾸준히 저항하기 위해 내 투쟁은 종종 아주 어려웠다. 그러나 내 안의 사랑이 나에게 힘을 주었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저항할 수 없게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었고 아버지는 나를 거부하지 않았고 나를 점점 더 채워주었고 인간 예수인 내 안에서 역사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한 인류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깨달았고 이로써 인류에게 같은 유혹에 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이유를 알았고 사랑이 전혀 없는 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살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들에게 사랑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쳤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고 그들이 사랑의 삶의 효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했고 이런 효력을 나 자신을 통해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었다. 내가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했다. 왜냐면 내가 사랑의 힘이 역사하게 했기 때문이다.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해 역사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의 권능이 역사하게 했고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사람들에게 사랑이 부족했다. 그러나 나는 사랑으로 충만했다. 왜냐면 내가 사랑으로 아버지께 충성했고 원래에 창조 된 영들의 무리가 아버지를 떠날 때 내가 아버지와 함께 머물렀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향한 내 사랑은 아주 커고 이 땅으로 임했을 때에도 이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 이 땅의 내 모든 삶은 끊임없는 사랑의 역사였다. 이로써 곧 몸도 또한 이 사랑에 순종했고 혼이 몸을 자신에게 끌어당겼고 혼이 몸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사랑의 충만함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덜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일은 잘못 된 것이다. 왜냐면 나는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영향 아래 있었고 악한 영들은 나를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시도했고 내가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안의 사랑

이 그들을 물리치는 일을 허용하지 않았고 사랑으로 나를 놓아주도록 설득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깊은 곳에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내 도움을 약속했고 내 안에 거하는 큰 힘으로 나는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더 많은 고통을 받았고 오직 큰 사랑의 힘이 단지 내 구속역사가 이뤄지게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 자신이 악한 영들의 희생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면 사랑인 아버지 자신이 내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이제 나를 따라야 하고 너희는 마찬가지로 너희 안과 밖의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싸울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 안에 너희의 힘을 증가시키는 사랑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나를 의지하여 나에게 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얻은 구속역사의 은혜로 진실로 너희에게 힘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없이는 너희는 대적자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가 없이는 너희 의지가 너무 약하고 너희에게 힘이 없다. 나 자신이 내 구속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막으려는 내 대적자를 대항해 힘겨운 싸움을 싸웠다. 그러나 나는 사랑으로 싸움에서 이겼고 너무 연약한 너희를 돋기를 원한다. 왜냐면 너희가 완전히 영적이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타락한 영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 타락한 영들의 권세자의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즉 너희는 모든 세상의 욕망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너희의 몸과 동시에 혼을 영화시키고 몸과 혼이 영원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더 이상 이 일을 혼자서 할 필요가 없고 이제 힘을 받고 너희가 너희를 한때 생성되게 한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가기 위해 단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힘의 제공은 너희 안에서 사랑이 타오르게 했고 최고 수준의 화염으로까지 타오르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이런 사랑을 통해 너희 안의 모든 악한 영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너희가 어떤 유혹에도 저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너희가 너희의 대적자로부터 너희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내 편에 서고 내가 진정으로 너희의 대적자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의 내용. 사랑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명. 기록.

B.D. No. 4000

1947년 3월 16일

너희 안에 영이 너희를 가르쳐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무지 속에 머문다.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면, 영이 이제 일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나의 사명은 우선 하나님 사랑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먼저 사랑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사람들 안의 영이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비로소 계속되는 영적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 당시의 사람들은 사랑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그들에게 항상 또 다시 자세하게 사랑 없음의 결과에 대해 주의를 주며, 사랑의 계명이 꾸준히 전해야만 했다. 나는 단지 소수의 사람들을 깊은 지식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지식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지혜롭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면 이 지식은 사랑이 없이는, 아무런 열매 없는 죽은 지식으로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뜻을 따라 나의 제자들의 기록이 실제 깊은 지식이 없는, 그럴지라도 사랑의 가르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태로 남게 되었다.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만약에 그가 진지하게 원하면, 깊은 지식에 도달한다. 나 자신이 이 땅에 지식을 풍성하게 전해주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장을 알았고, 그들의 사랑의 수준과 그들의 의지를 알았고, 그들에게 제공된 지식을 유일한 진리로 영접하게 하는, 나의 존재를 깨닫는 정도를 알았다.

나는 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내가 하늘로 간 후, 나의 영을 부어 줌으로, 그들이 영을 통해 영접한, 동일한 것을 그들 이웃사람들에게 전할 능력이 있게 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잘 공급을 받았다. 그러나 사랑을 행하는 삶이 항상 깊은 영적 지식을 이해하고, 그의 축복에 이르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 때문에 이 사랑의 계명은 후세대에 계속 전달돼야 한다. 그러므로 나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내가 이 땅에서 가르친 대로 남기기 위해 기록하였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나의 삶의 행적이 이 기록의 핵심 내용이며, 내 제자들이 인류에 남긴 유산이다. 그러나 깊은 지식은 부족하다. 왜냐면 이 일이 나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실제 나의 말씀 속에 숨겨진 지식을 책에서 얻고자 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책으로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알지를 못한다. 왜냐면 영적 지식은 사랑을 통해 켜지는 빛과 같기 때문이다. 이 빛은 사람 안의 영이 깨어나, 이제 사람의 내면을 밝혀준다면, 비로소 모든 빛의 능력으로 발산할 수 있다.

학교 교육 방식으로 전달되는 지식은 지적 소유가 되기 위해, 점검하고, 가공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지 영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내가 이 땅에 거할 때의 나를 통해, 또한 나의 뜻을 따라 이뤄진 기록을 통해, 항상 단지 사랑을 가르쳤고, 사랑의 계명을 첫째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해야만 한다는 것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일이 있느냐? 사람들이 혼이 성숙하기 위해 이 계명을 따르도록, 아무리 경고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보다 이해하기 쉬운 일이 있느냐? 계속되는 모든 지식은 사랑의 삶의 결과이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대로 전해진다. 그의 영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는 측량할 수 없게 지식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그가 머물기 원하는 지혜의 정도를 스스로 정하고, 그는 지식을 더 이상 책에서 취할 필요가 없고, 영의 세계에서 그에게 직접 지식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식은 나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영이 깨우침을 받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 살며, 지식을 책에서 얻으려는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지식은 단지 죽은 지식이다. 그러나 영이 비로소 생명을 준다. 사랑이 비로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B.D. No. 6145

1954년 12월 25일

O간 예수가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과 영의 나라 사이에 연결이 이뤄졌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 예수의 입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시 말할 수 있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먼 간격 때문에 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일은 인간의 혼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자신을 형성할 때 단지 가능하고 혼을 이런 상태로 만드는 일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일어난다.

인간 예수는 사랑 그 자체였다. 그의 모든 생각과 추구하는 일은 단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의 몸과 혼의 모든 어려움을 돋는 일이었다. 그의 혼은 빛이었고 순수했고 그의 이 땅의 삶은 사랑을 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전제 조건을 갖추었다. 인간 예수의 혼이 영이 자신을 표현한 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듣고 이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 예수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회복되었고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였다.

그리고 예수는 이제 자신이 성취한 일과 같은 일을 성취하려는 추구를 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쳤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도록 가르쳤고 이로써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게 했고 이제 영의 힘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도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고 이로써 그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사랑의 정도에 도달했고 이런 길을 모든 사람에게 제시했다.

하나님은 실제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 자신의 심장을 이제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으로 정화 된 심장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동안에는 말하지 않는다. 인간 예수는 지극히 높은 혼의 성숙한 정도에 도달했다. 왜냐면 그에게 사랑이 전적으로 모두 충만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그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었고 하나님 자신이 말했고 이제 더 이상 인간 예수 자신이 말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일을 스스로 행했다.

예수는 자신의 이웃을 가르쳤고 자신의 사랑이 그에게 준 일을 이웃도 또한 성공시키도록 이웃을 돋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그는 먼저 사랑을 가르쳤고 항상 또 다시 사랑을 가르쳤다. 그의 큰 사랑에서 지혜가 나왔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통해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의 불에서 깨달음의 빛이 발산되었고 예수는 사람들이 먼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깨달음의 빛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모든 더 깊은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왜냐면 더 깊은 지식은 사랑의 삶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유일하게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고 사랑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게 하고 사랑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가장 깊은 지식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사랑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을 이룬 것이다.

인간 예수는 이런 수준에 도달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에게 깊은 곳에서 높은 곳의 아버지께 올라가는 길을 보여 주었다. 그는 사랑을 가르쳤고 사랑의 삶을 살았고 전에 지은 죄로 인해 사람들의 몫이 된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을 제거하기 위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삶의 과정의 최고점이 되게 했다. 이로써 그가 이제 사람들이 길을 갈 힘을 얻게 했다. 그는 자신을 따르려고 하고 그가 이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 있게 했다.

아멘

예수는 이 땅에서 사랑을 가르쳤다.

B.D. No. 8454

1963년 3월 31일

예 수의 혼은 이 땅에 사랑을 주었다. 그러므로 그는 넘치는 고난을 스스로 짊어질 수 있었다. 왜냐면 사랑이 그에게 그렇게 할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바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므로 그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비록 자신 안에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사랑을 행할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이 의지를 질식시켰고 자기 사랑을 항상 더욱 증가시켰고 모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나타나는 일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랑의 삶을 살았다.

예수는 자신의 이웃에게 단지 선한 일을 행했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다.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고 항상 사람들의 세상의 운명을 쉽게 만들어 줄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는 이 땅의 삶의 결과를 경고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삶이 주는 결과를 눈 앞에 보여주었고 최고의 능력을 쓸 수 있고 병자를 고치고 계속 증가되

는 그의 사랑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자신에 대해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왜냐면 그가 영원한 사랑 자체인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을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도록 가르쳤고 이런 연결은 단지 사랑을 통해 긴밀한 기도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이런 모든 일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 됐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사랑의 삶을 산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곧 약속 된 메시아로 깨닫고 그 안에 아버지를 깨닫고 사랑을 통해 그들 안에 작은 빛이 밝혀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양분을 제공받아 어두움이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되었다. 인류 가운데 이 가르침이 전파되어 한다. 그러므로 예수 자신이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쳐 자신과 자신의 구속역사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고 세상으로 파송했다. 왜냐면 사람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로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했으면, 그는 절대로 이런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사랑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사랑에는 어떠한 것도 불가능한 일이 없고 사랑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일도 없다. 왜냐면 인간으로서 그에게 부과 된 이런 크기의 고통과 고난의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의 힘이 그가 승리하게 도왔다. 사랑의 힘으로 그는 가장 극심한 고난과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견뎠고 역사가 완성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다.

사람들이 죄짐을 해결받지 못하는 동안에는 자신을 묶고 있었던 대적자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이 자신이 인류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구하고 강하게 해주기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그리고 그의 전횡에 넘겨지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사랑의 삶을 통해 능력을 얻으면, 사람들은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랑의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깊은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고 사랑의 복음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이 땅에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향상 제공한다. 왜냐면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이는 사람은 능력이 없게 되고 그는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 땅에 빛이 있을 수 없다. 왜냐면 이 땅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적자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추종자들을 잊지 않게 깊은 어두움을 전한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도 빛 가운데 그를 원수로 깨닫는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람들이 단지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깨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포도원 일꾼은 열심히 일하며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내용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왜냐면 사람들은 단지 사랑이 그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줄 수 있고 단지 사랑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사랑이 빛을 선물하고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지식을 갖게 해 그들이 이제 의식적으로 그들의 이 땅의 길을 가

게 하고 의식적으로 그들의 과제와 그들의 목표를 이제 모든 힘으로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 자신이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이제 그에게 의식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그들의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 땅에 목표에 도달해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최종적으로 연합을 이룰 것이다.

아멘

연약한 자와 병든 자와 궁핍한 자에게 오시는 예수님.

B.D. No. 5282

1951년 12월 27일

나는 연약한 자와 병든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임했다. 왜냐면 강하고, 건강한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혼자서 자신의 길을 찾고, 그들은 최소한 이 길을 찾았다고 믿는다. 그들이 길을 잃고, 그들 자신의 능력이 그들 자신을 다스리기에 부족하게 되면,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향해 달려온다. 나를 부르고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의 혼은 연약하고 병들어 있다. 나는 이런 모든 사람을 돋기 위해 다가간다. 왜냐면 그들이 나를 부름을 통해 그들의 위험한 상태를 고백하고, 그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고 병들어 있다. 이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나 자신을 강하고 건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이로써 불행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움이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거만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 그들에게 능력을 공급해주는, 그러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자신을 위해 얻으려는 자의 능력을 아주 쉽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는 혼을 요구하고, 대신에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다.

그러나 나는 병든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의 의사이다. 나는 슬픈 사람들에게 위로자이며,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이다. 그들 모두는 나에게 다가온다. 그들은 나에게 헛되게 구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 사람들이 즉시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너희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고, 그럴지라도 너희는 홀로 있게 되지 않는다. 왜냐면 심장으로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어느 누구도 헛되게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나는 너희에게 내 도움을 약속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도움은 확실하고, 너희에게 위험이 임하면, 너희가 육체적으로, 혼적으로 공격당하는 것을 느끼면,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무거운 짐이 되면, 너희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너희는 이를 항상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한때 그리고 언제든지 연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내가 단지 너희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라. 그러나 너희가 자유롭게 스스로 너희의 연약함을 깨닫고, 너희의 의사요 돋는 자인 나를 갈망하게 하기 위해, 내가 부탁을 받기를 원함을 생각하라. 너희가 너희의 부름을 통해 내가 너희

를 도울 수 있고, 돋기를 원한다고 믿는 너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런 믿음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

B.D. No. 8308

1962년 10월 23일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사랑의 복음을 너희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왜냐면 너희가 사랑을 최고로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 자신에게서 확인해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 주는 효과를 알아야 한다. 왜냐면 나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모든 종류의 기적을 행했고 이런 역사가 단지 내 안에 거하며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랑의 힘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사랑의 힘이 아버지에 의해 창조 된 모든 존재들의 목표대로 영원한 사랑인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했다.

그러므로 나는 모범이 되는 사랑의 삶을 살았고 내 주변에 항상 단지 사랑을 비추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지혜로 가르칠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었고 이 빛은 영적인 어두움을 밝게 해주었다. 왜냐면 내 사랑의 불이 지혜의 빛을 발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사랑의 삶을 살 때 항상 비로소 깨달음에 도달한다. 왜냐면 사람의 심장에 밝음을 주는 하나님의 빛의 흐름이 그에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고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빛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고 그들의 생각은 오류 가운데 있다. 왜냐면 그의 심장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불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 갔고 내가 인류 가운데로 가서 그들에게 빛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빛을 영접하지 않았고 나를 팍박하고 나를 대적했다. 왜냐면 그들의 사랑이 없는 삶은 죄악 된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악한 것을 단지 사랑으로 대했고 그들의 고난을 긍휼히 여기며 영접했다. 나는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고 항상 단지 사랑을 가르쳤다. 왜냐면 사랑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단지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르며 열심히 사랑의 삶을 산 사람은 단지 소수였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은 빛이 되었고 그들은 나에게 속하게 되었다. 왜냐면 그들이 내 안에서 구세주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구세주는 가장 깊은 위험으로부터 구원할 이미 오래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구세주이다. 그러나 내 말을 믿고 그대로 사는 즉 사랑의 삶을 살고 빛이 그들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영의 어두움을 떠나 빛으로 향한 사람들은 단지 소수였다.

나는 쉬지 않고 사랑을 설교했고 나는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이 가르침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사랑의 삶을 살도록 권면할 것이다. 이로써 그들이 왜 이 땅에 살고 있고 무엇이 그들의 과제이고 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깨달음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만약에 작은 빛이 사람들의 심장 안에 임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통해 영원한 사랑인 나와 연결이 되면, 그들 안은 더욱 밝아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지식은 증가할 것이고 이 지식은 진리에 합당할 것이다. 왜냐면 나와 사랑과 지혜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나와 연합을 이룰 것이고 전적인 진리 안에서 거할 것이다. 그는 영의 어두움의 밤을 벗어나 빛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두움이 그를 떠나 가게 된다. 단지 사랑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항상 또 다시 사랑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외부로부터 너희의 생각에 전해지는 것은 항상 너희 심장을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권면이 항상 있어야만 한다. 너희는 항상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이기심에 대항해 싸워야만 하고 이기심을 자신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으로 바꿔야만 한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단지 사랑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소개돼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능력이고 빛이고 축복이다. 사랑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직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의 이 땅의 길은 어둡게 그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킨 사람은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깨닫고 의식적으로 그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자유롭게 하고 사랑은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사랑은 행복하게 하고 넘치는 축복을 선사하고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고 다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왜냐면 사랑이 자녀를 아버지와 연합시키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미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을 주고 언젠가 영원 가운데도 줄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하나님이고 사랑이 아버지와 자녀를 모든 영원에 까지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머문다.”

B.D. No. 2147

1941년 11월 11일

내가 너희와 연합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머물라. 너희의 삶은 사랑으로 끊임없이 일하는 삶이 되야 한다. 너희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는 원동력에 따라 모든 일을 해야 하고, 이런 원동력이 사랑이어야 한다. 너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스러운 느낌이 너희의 내면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내 안에서 고양이 된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나와 영원히 연결된 가운데 머문다. 왜냐면 그가 나 자신과 같고, 나 자신을 사랑인 것처럼 그도 또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또한 너희 자신 안에 평화를 갖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영이 나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은 더 이상 나의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왜냐면 너희의 영은 영원으로부터 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있는 곳에는 평화와 사랑과 연합이 있어야만 한다.

너희가 나와 연합하여 살고 있다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은 싸움도 없고 걱정도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고 너희를 돌보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원래 초기부터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나에게 너희 자신을 완전히 드려야 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한다. 너희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될 정도로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너희 이웃사람에게, 너희가 나에게 행하고 싶은 대로 똑같이 행함으로써,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야만 한다.

나는 이웃 사람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통해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에 대한 증명을 얻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서로 돋고,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가 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행하는 너희의 사랑의 역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를 가장 깊은 평화와 고요한 행복의 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이런 약속을 했고, 나의 말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있다.”

아멘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B.D. No. 3460

1945년 3월 9일

그휼을 베풀고, 위험과 환란에 빠진 이웃 사람들과 함께 하고, 위험과 환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게 은혜가 볼 수 있게 함께 한다. 왜냐면 그들이 나의 계명을 성취시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 자신을 사랑한다. 왜냐면 그들이 나의 피조물인 이웃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때문이다. 의지할 데 없고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에게 베푼 사랑을 감사하게 느낄 것이고, 사랑은 응답하는 사랑이 깨어나게 할 것이다. 이 땅의 너

희들은 모든 사랑의 불씨가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단지 사랑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나에게 귀환하게 하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측량할 수 없다.

세상적인 영적인 어려움에 빠진 모든 사람은 받는 사랑의 도움을 행복하게 느낀다. 이 사랑은 힘으로 역사한다. 왜냐면 이 힘은 영원한 사랑인 나로부터 나왔고, 단지 생명이 깨어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도움을 주는 일은 선한 생각과 선한 느낌을 갖게 하고, 이웃 사람의 혼에 감동을 주고, 같은 역사를 행하도록 자극한다. 모든 사랑의 역사는 나의 대적자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러므로 나와의 간격을 줄인다. 긍휼을 행하도록,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혼의 고통의 결과로 육체의 고통이 나타나야만 하는 육체와 혼이 병이 드는 고난의 때가 필요하다.

너희가 긍휼을 행한다면, 너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으로 선한 일과 위로 해주는 격려와 사랑이 충만한 돌봄으로 이웃 사람들의 육체와 혼을 일으켜 세운다면, 그들에게 나에게 향하는 길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러면 육체와 혼이 건강해질 것이다. 왜냐면 혼이 사랑의 힘을 느끼고, 강하게 되고, 자원하여 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응답하는 사람을 깨어나게 한다. 사랑의 불씨가 불타오르는 곳에서 나 자신이 역사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이 있는 모든 곳에, 내가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거하는 곳에는 사람이 가진 사랑의 정도에 따라 위험이 더 이상 크게 않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을 통해 응답하는 사랑이 깨어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라. 너희는 너희의 긍휼의 역사를 통해 혼들을 구속한다. 혼을 구원하는 일은 너희에게 항상 단지 사랑만이 인정받는 저 세상에서 행복한 운명을 갖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준 혼들이 너희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아멘

어린 아이처럼 되라.

B.D. No. 3624

1945년 12월 10일

어린 아이처럼 되라. 모든 위험 가운데 나에게 도피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지 않은 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보호하는 나의 손을 너희에게 펼치는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믿고, 신뢰하라. 모든 육체의 고난을 단지 사랑이 충만한 너희 혼을 향한 양육의 수단으로 여기라. 너희가 이를 굳게 믿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육체의 고난도 나에 의해 해결될 것임을 알라.

자녀들처럼 평온하고, 모든 보살핌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단지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에 주의하라. 그러면 나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내 심장으로 이끌 것이다. 어떻게 될 지, 두려워하면서 질문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평안하게 머물고, 고난이 너희를 짓누른다면, 아버지의 도움을 기다리라. 너희의 모든 길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라. 어린 아이와 같은 신뢰와 겸손한 기도에 너희의 강함이 있다. 왜냐면 내가 그런 기도를 실망시키지 않고, 언제든지 너희에게 응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를 모든 위험에서 구하고, 자녀의 부름은 절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고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모든 저항을 포기해야만 하고, 너희는 내가 항상 너희의 손을 잡고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해야만 하고, 나를 자원하여 따라야만 하고, 절대로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구해야만 하고, 이제 나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는 가운데 나를 신뢰해야만 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의 뜻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 일이 나의 뜻이고, 너희가 너희의 염려를 나에게 맡기면, 어떤 일도 나의 뜻과 반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나의 축복과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사람의 의지가 이제 의지에 합당하게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역사는 항상 그의 구원을 위한 역사가 아니고, 나는 그에게 나의 도움을 줄 수 없다. 왜냐면 그가 나의 도움을 나의 도움으로 깨닫지 못하고, 나의 도움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통과하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나의 자녀들을 위해 길을 평탄케 한다.

나의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너희 자신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너희는 사랑을 행하는 아버지의 손길을 항상 느낄 것이다. 아버지의 손길은 너희를 안전하게, 해를 입지 않게 세상의 모든 재난을 헤쳐 나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항상 나의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라.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라. 너희가 다시 사랑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모든 사랑의 말씀을 받아 드리라. 아버지의 음성을 절대로 듣지 않고 흘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과 그의 음성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일로 인해 기뻐하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을 기쁜 열심으로 따르라. 너희는 나의 기쁨을 얻을 것이고,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더 강하게 느낄 것이고, 너희는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내 심장 곁에서 보호를 잘 받을 것이다.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B.D. No. 3767

1946년 5월 11일

ㄷ지 진리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왜냐면 진리가 나 자신이고, 너희는 단지 나를 통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하는 올바른 길을 간다. 왜냐면 순수한 진리는 사랑을 행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순수한 진리가 혼을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나의 피조물들을 위해, 나 자신에게 인도하는 길이다. 나의 피조물들은 그들에게 유일하게 영원의 세계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나에게 도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이 길을 가야만 한다.

이 땅에서 나를 따르기 위해,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은 진리를 알게 되야만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 전에,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나로부터 오는 순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위해, 그들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이 없이는 모든 지식이 죽은 지식이고, 유일하게 생명력이 있게 해주는 심장의 지식이 아닌, 이성의 지식으로 머물기 때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구하면, 너희는 올바른 길에 들어선 것이고, 진리를 찾고, 이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 가고, 그를 사랑의 길로 인도한다. 그가 저항하지 않으면, 그의 영은 생명으로 깨어나고, 그의 영이 그를 진리에 합당하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는 나 자신을 찾았고, 나를 영원히 더 이상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살고, 영원히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그러나 단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한 결과인 순수한 진리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다. 모든 잘못된 가르침은 나와 하나가 되는 목표에 인도하지 못한다. 모든 잘못된 가르침은 높은 곳을 향한 길을 더 멀게 만들고, 모든 잘못된 가르침은 다른 목적으로 사람들을 속인다. 단지 올바른 목표에 도달하려는 굳은 의지가 전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큰 위험을 막는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없이는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불러야만 하고, 나의 가르침을 영접해야만 한다. 너희가 진리에 도달하고, 나 자신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 너희는 내가 이 땅에서 모범을 보였던 사랑의 길을 가야만 한다. 너희는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써, 진리의 길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모든 깨달음이 없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지식이 전적으로 없어, 나의 근본 성품을 전적으로 알지 못하고, 너희가 생명에 도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이로써 단지 사랑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나와의 연합을 너희가 이루지 못하는 동안에는, 영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굳은 믿음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는 일.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B.D. No. 3927

1946년 12월 2일

너희가 단지 굳고 흔들리지 않게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나에 의해 모든 것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를 향한 나의 아주 큰 사랑을 명심하면, 너희는 내가 어떠한 기도도 무시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를 굳게 믿는 믿음은 그 자체에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자신 안에 내가 나의 지혜로 너희에게 축복이 되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것을 보장해,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이 깊은 사람은 무조건 나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는 내가 그를 도와주기 원하는 대로 나의 재량에 맡기게 될 것이다. 그는 요구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에게 자신의 부탁을 할 것이고, 항상 나의 뜻을 우선에 두고, 자신을 나의 사랑과 은혜에 의탁할 것이다. 나는 그를 아주 충만하게 도울 것이고, 나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가 절대로 굽주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나의 자녀의 기도를 절대로 듣지 못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가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왜냐면 바로 나의 사랑이 너희의 불행을 막기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이 항상 기도의 성취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달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너희 안건을 나에게 아뢰며, 모든 계속되는 일을 나에게 맡겨라. 나의 사랑의 너희를 도와, 너희의 나를 향한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확실하게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나의 자녀로서 영원 가운데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라. 모든 삶의 형

편 속에서 나를 부르라. 그러면 너희에게 위기가 있다면, 나에게 다가오라. 평안하고 평화로운 때에도 나를 생각하라.

나를 잊지 말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게 하라. 긴밀한 기도를 통해 자주 나와 연결을 이루고, 나를 항상 너희 가까이로 부르라. 왜냐면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를 구하면, 너희 생각이 나에게 향하고, 너희 심장이 나를 향하면,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 너희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나 사이에 놓아준 다리로 들어서야만 한다. 너희는 기도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 혼이 기도하는 중에 빛의 영역으로 올라가고,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향하는 다리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중에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오고, 나의 뜻대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로 불리우면, 너희 심장이 나에게 향하면, 나는 모든 간청을 들어줄 것이다. 왜냐면 나는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에게 나오는 나의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은 그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을 나눠줄 것이다. 나의 사랑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녀들을 도울 것이다. 자녀가 진실로 어린아이처럼 구하면, 다시 말해 영으로, 진리로 나에게 기도하면, 그는 절대로 위험을 당할 필요가 없다. 모든 기도의 은혜를 활용하라. 왜냐면 나와 나의 사랑을 믿는, 깊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너희는 모든 것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곁 보기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요구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왜냐면 그러면 나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단지 너희에게 해가 됨을 보기 때문이다. 너희를 이런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를 나의 의지 아래 두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가 언제든지 자신의 기도에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말을 첨가하면, 그의 기도는 올바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아멘

선한 목자의 비유.

B.D. No. 4360

1948년 7월 2일

나는 너희에게 비유해주기 원한다. 너희는 비유를 통해 내가 너희가 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기 원하는지 배워야 한다. 이 땅의 나의 자녀들은 원수의 악한 의지로 목자를 볼 수 있는 영역 밖으로 쫓겨나, 모든 방향으로 흩어진 양의 무리와 같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찾아 나서고, 양들을 가장 숨겨진 구석까지 가서 찾는다. 그는 산을 올라가고, 계곡을 타고 내려간다. 그는 부르고, 유인하고, 자신의 양무리를 다시 모을 때까지 쉬지 않는다.

그는 잘못된 길을 간, 더 이상 혼자서 돌아올 수 없는 어린 양을 돋고, 양들이 이미 아주 멀리 떠난 곳으로 먼 길을 간다. 그는 지친 양을 자신의 어깨 위에 짊어지고 데려온다. 그는 어느 양도 그의 운명에 맡겨두지 않고, 자신의 원수가 훔쳐가서 원수의 무리에 집어넣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양들을 알고, 자신의 양들은 그를 알고, 그의 음성을 따르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가 모든 자신의 작은 양들을 다시 찾으면, 자신의 목장에 자신의 모든 양들을 모으면, 길을 잃었던 모든 양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그의 심장은 기뻐한다. 너희 모두는 나의 양이다. 너희는 나의 양무리에 속해 있다. 그러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양들이 나 외에 다른 목표를 추구하면, 양들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

원수인 양치기는 너희가 나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려는 나의 대적자이다. 그는 자주 성공할 것이고, 나의 양은 길을 벗어난다. 내가 나의 무리와 함께 이동할 때, 그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명성과 부를 구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는 길을 벗어난다. 너희는 계곡에 빠지고, 낭떠러지로 추락한다.

세상의 죄와 정욕이 너희를 포로로 만든다. 너희는 한 걸음 한 걸음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너희가 가시와 덤불에 걸리면, 감사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아직 너희 안에서 작은 염려가 생기고, 너희가 이런 염려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구세주가 올 때까지, 가장 깊은 타락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다른 양들은 다른 목초지에서 다시 풀을 먹는다. 그들은 길을 잃고, 그들의 목장을 다시 찾아오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생각이 없이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내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나 아주 큰 세상 유익을 얻는 행위로 덕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온적이어서, 나에게 향하지도 않고, 나에게 등을 돌리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과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과정을 산다. 그들은 몰아냄을 당해야만 하고, 쫓김을 당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내가 선한 목자로써 언제든지 그들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의 팔 안으로 도망치게 돼야 한다.

나는 모든 곳에서 길을 잃은 양들을 구해야만 한다. 나의 부름은 모든 곳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의 음성이 항상 또 다시 울려 퍼져야만 한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말씀 안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만 하고, 그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야만 한다. 나의 말씀은 선한 목자의 부름이다.

나의 말씀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나의 말씀은 단지 사람의 심장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구석에까지 도달한다. 나의 부름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항상 더욱 잘못된 길을 가고, 항상 더욱 깊게 타락한다. 그럴지라도 선한 목자의 팔이 언젠가 비록 많은 시간이 흘러갈지라도, 그에게 도달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저항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잘못된 길 가운데 피곤해질 것이고, 자신을 나의 어깨에 둘러 메이게 할 것이다. 그는 언젠가 자원하여 선한 목자를 따를 것이다. 선한 목자의 음성이 그를 유인할 것이다. 그는 이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으로 깨닫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는 그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그에서 만찬을 준비해줄 것이다.

아멘

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나와 연합되기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눈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세상 밖에서 만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찾도록 허용하려면, 그는 세상을 향한 소원을 버려야만 하고, 세상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만 한다. 왜냐면 세상은 나의 대적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나의 대적자가 역사하고,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진실로 세상을 통해 사람들을 나에게 인도하려는 일이 아니고, 나를 몰아내려고 한다. 나를 잊도록 하기 위해, 그는 항상 세상을 전면에 내세우려고 한다.

너희 가운데 이제 누가 위로 성장하는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조공을 받치는 일이 불가능하다. 비록 그는 그에게 큰 요구를 하는 세상 가운데 있고, 이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지만, 그가 의무를 다하는 일과 그가 세상을 추구하는 일은 구별할 수 있다. 그가 의무를 다하는 일은 전적으로 나의 의지에 부합된 일이다. 너희에게 세상적인 과제 외에, 혼을 성장하게 하는 영적인 과제가 실제 주어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세상을 향한 소원이 지나치게 커서, 다시 말해 사람들이 나를 잊고, 나를 생각하는 일이 그에게 불편하게 되어, 나를 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보다도, 영적인 것을 향한 소원을 더 크게 가짐으로, 너희의 영적인 과제를 이룰 수 있다.

누구든지 육신의 정욕과 감각과 육체의 만족을 채워 줌으로써 또는 이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물질적 재산을 모아, 자신의 육체를 지나치게 크게 안락하게 만들려고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포로가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원하는 나의 대적자의 도구이다. 그가 세상을 향한 갈망을 버리고, 자신의 내면을 향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동안에는, 절대로 나를 향한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 그가 두 주인을 섬기면, 그는 어느 한쪽에게도 진정한 섬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너희 관점을 하늘을 향해 돌려야 한다. 왜냐면 나는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에 있는 것은 나의 대적자의 나라로서, 너희가 육체로는 이 나라에 거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혼은 언제든지 나의 나라의 나에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육체가 나의 대적자의 나라에 있으면,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세상 밖에 있는 영역으로 항상 올라갈 수 있다. 나는 나를 찾으려 하고, 나를 섬기려 하고, 나에게 속하려는 너희에게 이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 안의 영의 불씨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연결된다. 왜냐면 그가 진심으로 나를 추구하면, 그의 심장이 세상사랑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이웃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이미 나와의 연결을 이룬다. 그는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린다. 그는 이웃에게 베풀며, 섬기고, 그의 주인인 나를 섬긴다. 왜냐면 내가 이런 계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사랑은 자기 사랑의 한 형태이다. 만약에 그가 복되기 원하면, 그는 자기사랑과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세상을 향한 사랑과 싸워야만 하고, 자신 안의 영의 인도를 받아, 영적인 존재들에 해당되는, 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혼의 소원을 성취시켜야만 한다. 너희가 축복을 받으려면, 너희가 유일하게 섬겨야 하는 내가 주인이다.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B.D. No. 4580

1949년 3월 5일

내 영은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상기시켜 줄 위로자인 진리의 영을 보낼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 한대로 너희를 진리로 인도 한다. 그러므로 내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진리 안에 서고, 나로부터 영이 그에게 전하는 모든 것을 염려없이 영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의 역사가 진리 안에서 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 점에 대해 한번 전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그러면 너희는 또한 너희가 무엇을 나에게서 온 것으로 믿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말했던 내 말을 기억한다면, 내가 말씀을 통해 예고한 길을 통해 순수한 진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나를 위해 심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주하기 원하고, 그들을 혼자 두기를 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를 계시해주기를 원한다는 말을 내가 미리 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내 계시가 내면에서 와야만 하고, 내가 사람의 심장 안에 거하게 되었다면, 내가 심장 안에서 나를 표현하고 그 결과로 사람이 내면의 음성을 통해 내 음성을 듣는 일을 알 수 있다. 너희는 또한 주저함이 없이 이 음성을 믿을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이 음성은 나를 사랑하는, 그러므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그들의 심장 안으로 영접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그들 안에 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나의 말씀과 내 의지의 알려주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진리를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자신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너희를 나 자신에게 맡기면, 너희는 외부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너희가 나와 직접 의사 소통하는 일이 가능하다. 너희가 진리에 합당한 가르침을 받으려면, 이를 먼저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출처에서 진리를 받는 일이 너희가 추구하는 일이 될 것이고, 너희는 또한 너희에게 전해진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런 지식이 이제 완전히 의식을 하는 상태에서 너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나의 말을 듣게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 심장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고, 단지 외부에서 너희에게 전달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너희의 육체적인 귀가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심장이 나의 음성을 듣는다. 너희가 내면에서 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표현하는 분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 반면에 너희가 외부에서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말의 출발점을 조사해야만 한다. 왜냐면 외부에서 너희에게 많은 것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대적자도 또한 외부에서 너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너희는 진지하게 점검해야 한다. 너희가 진지하게 점검을 한다면, 너희에게 제공된 것의 원래의 저자를 나에게서 찾으려는 의지를 가지라. 너희가 나의 말을 듣기 원하면, 나는 반드시 너희의 소원을 성취시켜 줄 것이고, 너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이 나에게 헌신하는 종들에 의해 너희에게 전해지면, 모든 말이 진리이다. 이런 일은 너희가 가진 질문을 나에게 한다면, 너희에게 내가 모든 질문에 대답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1949년 3월 6일) 너희 모두는 항상 너희의 성숙한 정도에 맞는 형태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어느 정도의 성숙함에 도달해서 너희가 감추지 않은 상태로 영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게 되면, 너희가 비로소 가장 깊은 지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나의 역사와 비교한다면, 너희는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항상 사람들에게 비유와 상징적인 언어로 말해서, 그들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이런 가려진 가르침은 사람이 생각하도록 자극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사람이 영적 지식에 침투하고, 영적인 지식을 그의 육체의 귀를 통해 단지 피상적으로 영접하지 않게 한다.

내가 지금처럼 감추지 않고 나의 말씀을 준다면, 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을 보장하는 성장정도가 전제 조건이다. 모든 가르침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고, 즉 숨겨지지 않은 형태 위로부터 직접 준 말씀이고, 이런 말씀이 숨겨진 상태로 준 말씀과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험을 먼저 해야만 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너희는 단지 내 도움을 요청하기 만하면 된다.

대적자도 또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대적자를 벗어나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깨닫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진리를 찾으려고 추구하면, 대적자가 특별하게 역사한다. 그러면 그가 기회를 얻는 곳에서 그는 항상 빛을 끄거나 어둡게 하려고 시도하고, 항상 열심이 일할 것이다. 불순한 세력들이 너희의 생각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곳에서 너희 사람들을 돋고, 대적자의 권세의 역사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나 자신이 진리의 전달자를 통해 너희에게 설명을 한다. 위로부터 오는 것은 진리이고, 아래에서 오는 것은 오류와 거짓이다.

내면에서 직접적인 영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곳에는 단지 나의 발산을 받고 전하는 위로부터 온 세력들이 역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세력들이 무의식 상태에 있는 형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면 의지가 없는 형체는 비록 단지 짧은 시간 동안일지라도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형체로 사용된 사람이 스스로 자주 그들 자신의 생각과 소원을 통해 나타나는 말을 정한다. 왜냐면 형체를 통해 이제 들을 수 있게 표현하는 세력들이 그의 생각과 소원을 즉시 붙잡기 때문이다.

왜냐면 듣는 사람들 가운데 강한 의지를 가진 세력들이 있으면, 세력들의 생각은 강한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 생각이 가진 진리에 따라 빛의 세력이나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 붙잡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계시를 받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지식으로부터 해방이 되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무지한 자녀처럼 자신을 가르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가장 순수한 진리가 그에게 흘러갈 것이다. 왜냐면 진리가 흘러가는 일을 막을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순이 드러나는 일로 인에 거부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영은 사람들에게 항상 똑같은 것을 알려 왔고, 단지 모든 사람이 같은 의미로 이해하지 못했고, 나의 말씀을 받은 사람조차도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시선을 세상을 향해 돌리고, 세상의 사건을 영적인 일과 연결시켰다. 게다가 내가 이 땅에 거할 당시의 사람들은 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먼 앞날에 대해 해준 설명은 자신을 완전히 사랑으로 형성시킨 사람이 단지 마지막 때와 최후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주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이 부족했고,

그들에게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설명하게 해주는 일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에게 특별하게 예언한 예루살렘의 파괴되는 심판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심판은 당시 사람들에게 동시에 한 시대의 일부분을 의미하고, 종말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에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실제 새롭게 되는 일에 대한, 영적인 전환점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다. 그러나 이 땅의 변화보다 사람들의 변화에 더 많이 연관이 된 깨달음이 추가로 제공되었다. 왜냐면 이 땅의 변화에 대한 지식은 그들의 영의 상태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 땅의 마지막 단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혼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고 따라서 앞으로 올 일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향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남김 없는 설명을 해주고, 그들의 이웃사람들에게 이런 설명을 알리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르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 추구함으로써 또한 판단할 능력이 있고, 밝은 영을 가지고, 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따라서 아주 깊게 타락했지만 언젠가 구원을 받아야 할 혼들 때문에 이 땅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 외에 다른 가능성의 없음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단지 믿음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종말을 말한다. 그러나 당시에도 나의 말은 모순이 되지 않았다. 인간 예수로서 나는 내가 본대로 말했다. 나는 종말이 어떻게 올지 보는 일에 방해를 받았다. 나는 변형된 인류를 보았지만 변형된 이 땅은 보지 못했다. 왜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지한 가운데 머무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1949년 3월 7일) 이 땅은 영적인 교육의 장소로 유지돼야만 하고, 얼마동안 유지돼야만 하는 지가, 즉 이 땅이 세상의 창조물로 계속 존재해야만 한다는 일이 이 땅의 표면의 변화가 물질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의 성장과 관련이 있고,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믿음의 시험과 의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의 새로운 파문과 관련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해줘야 한다.

인류가 아직 이 두가지를 이해할 수 없다. 인류는 단지 현존하는 이 땅의 세계와 순전히 영적인 세계로 분류한다. 사람들에게 단지 물질 세계로서 이 땅을 아직 사라지게 할 수 없고, 무한히 긴 기간 동안 성장이 이 땅에서 이뤄져야만 한다는 설명이 주어진다. 왜냐면 행성으로써 이 땅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땅은 마지막 심판 후에 단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이 땅의 사명을 수행할 것이다. 즉 낙원 상태에서 이 전에 휴거 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성장 기간을 시작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마지막 믿음의 싸움에서 나를 향한 충성을 증명하고, 종말의 때까지 견디었고, 그러므로 나와 그리고 빛나는 영의 나라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을 이룬 가운데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B.D. No. 4662

1949년 6월 9일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도해야 한다. 나에게 신실하게 머물기 원하는 너희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원하는 나의 대적자가 너희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한다. 그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그는 너희가 나와의 연결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수단을 사용하고 이로써 너희가 연약하게 되면, 그에게 수월하게 만든다. 그는 너희를 무너트릴 기회를

찾기 위해 숨어 있다. 단지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항상 나에게 긴밀한 생각으로 도움을 청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의 대적자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몸과 혼의 모든 위험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내가 이를 기도라고 부르고, 깨어 있는 것이라고 부른다. 그가 따라올 수 없는 높은 곳으로 너희의 생각을 향하게 하라. 너희는 그로부터 안전하게 피하고, 너희 자신을 내 보호 아래 두라. 그는 모든 권세를 사용하여 너희를 그의 일부이고, 그의 나라에 속한 이 땅에 묶어 두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는 너희가 나를 배반하게 만들기 원하고, 영적인 추구를 그만두게 만들기를 원할 것이고, 너희에게 의심을 뿌리고, 고난과 환란을 통해 너희의 생각을 혼동케 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찾지 못하고, 세상의 일에 몰두하게 하고, 나를 잊게 하기를 원한다.

깨어 있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대적자인 그에게서 멀어지고, 내가 영원부터 너희의 아버지이고, 진실로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나에게 너희 자신을 점점 더 많이 묶여 있게 한다. 깨어 있고 기도하라. 왜냐면 유혹자가 끊임없이 너희 주위에 거하고, 너희를 사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를 깨닫고,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 쾌활하고 기뻐하라. 왜냐면 너희가 나를 너희 주변의 끊임없는 보호자로 알고, 너희가 위험할 때, 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심장에서 나오는 작은 부름을 듣고, 너희가 그에게 대항하는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너희를 돋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과 자신의 힘을 너무 믿고, 내 도움이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은 패배할 것이다. 그는 자신을 과대 평가하고, 자신보다 강한 대적자의 힘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없이는 모든 유혹에 굴복할 것이고, 희생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일은 기도와 사랑을 행함을 통해 나의 임재를 허용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면 너희는 대적자의 모든 공격에 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대적자는 너희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된다. 왜냐면 그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와 싸워야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깨어 있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는 모든 공격 지점을 잊게 되고, 너희를 피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나의 임재가 빛을 발산하고, 그가 이 빛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모든 유혹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B.D. No. 5336

1952년 3월 14일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세상에 단지 적게 주의를 기울이고,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과제가 요구하는 정도까지만 세상이 너희에게 다가오게 하라. 그러나 쉬지 않고 이 세상 밖에서 찾을 수 있는 내 나라를 추구하라. 내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이다. 반면에 이 땅의 세상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사라진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세상의 기쁨과 재물을 멀리하고, 너희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하고, 나에게 질문하면서 너희 생각을 무한 가운데로 보내고 내 답변을 찾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내 나라를 소유 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언젠가 너희가 거하게 될 곳인 영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영의 나

라가 너희에게 이 땅의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고, 너희는 너희가 세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영의 나라에 속한 재물을 받게 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통해 너희의 육신의 죽음 후에 너희를 다시 영접하기 원하는 너희의 진정한 고향의 나라로 내가 너희를 부르기를 원함을 이해하라. 내 나라는 빛의 나라이다. 이 나라는 단지 너희가 빛을 받을 수 있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내 나라를 추구했다면, 이로써 너희가 언젠가 내 나라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될 나에게 속한 나라의 후보자가 되었다면,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다. 이런 내 말은 너희가 이 땅의 세상의 나라를 사모하며 갈망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내 나라의 영접을 받기 원하면, 이 땅의 세상의 나라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는 너희에게 차이점을 분명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나는 세상이 나에게 속하지 않았고, 세상의 주인이 내 대적자임을 너희에게 말해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내 나라를 이 땅의 세상에 대항하는 나라로 여겨라. 나는 너희를 내 나라로 이끌기를 원한다. 왜냐면 나는 이 땅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된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 땅은 고난과 시험의 골짜기이고, 이 땅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야 할 장소이다. 그럴지라도 이 땅은 지속적으로 거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 땅은 사람들에게는 영원에 비교할 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단지 성장하는 장소이다. 사람 자신도, 이 땅의 물질적인 겉 형체도 헛된 것이다. 이 형체는 높은 곳을 향해 성장해야 할 영적인 존재가 단지 잠시 동안 거할 처소로 섬긴다.

그러면 혼은 비로소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혼이 이 땅에서 어떠한 영적인 성장도 하지 못했고 이로써 어두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나라가 내 대적자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영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 영의 나라에서는 내가 왕이고, 다스리는 권세자이고, 빛과 축복 만이 있고, 내 나라에 들어온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나 자신이 빛과 축복을 나누어 준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세상에 적게 주의를 기울이고, 너희에게 영광을 줄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하라. 너희가 이 나라에 관해 꿈을 꾸어 볼 수도 없는 이 나라의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약속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내게로 오라."

B.D. No. 5508

1952년 10월 15일

수고하고 힘든 너희 모두는 내 품 안으로 도피할 수 있다. 왜냐면 내 사랑은 너희 모두를 품기 원하고, 자신의 곤경 가운데 나에게 나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위로해주고 힘을 주기를 원하고, 상처를 치유해주기를 원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나는 모든 심장 안에 희망과 확신을 주기를 원하고, 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왜냐면 어느 누구도 은혜가 없이는 그의 혼이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 말을 듣지만 그러나 그에게 말한 것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짐을 짊어진다. 나는 그가 그의 짐을 나에게 넘겨준다면, 기꺼이 그의 짐을 짊어질 것이다. 나에게 오라. 너희의 의지 자신이 너희를 나에게 인도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도록 내가 단지 너희의 어깨에 짐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모든 고난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부름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으로 너희의 사랑을 갈망하고, 너희를 축복되게 해줄 수 있기 위해 너희가 다가오기를 갈망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위험들이 너희를 나에게 인도해야 하고, 너희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야 한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압박하는 것을 너희가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아릴 때,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 왜냐면 나는 너희가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처럼 처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모든 선한 자녀들이 가는 길인 아버지를 향한 길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으로 자녀들의 모든 걱정을 해결해주기를 원하고, 현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축복되게 해줄 조언과 행동으로 그들을 지원해주기를 원한다. 언제든지 너희를 보호하는 내 손을 펼치는 내 품 안으로 도피하라. 내 손은 너희를 절벽과 돌길을 피하게 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충만한 사랑으로 너희를 돌본다.

항상 한결같이 신뢰하라. 왜냐면 너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죄와 죄짐으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두는 이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도록 나를 부르라.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고, 너희를 향해 내 손을 펼칠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나에게 향하는 길을 쉽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돋고 치유하기를 원하고, 더 이상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병자와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내 안에서 너희를 구원한 분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면 그분의 너희를 향한 사랑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B.D. No. 6968

1957년 11월 14일

다지 너희 혼이 성장하게 돋는 일만이 너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너희가 항상 단지 너희 혼에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기 원하면, 너희는 육체가 필요한 것에 합당하게 내 제공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너희를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을 너희에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너희 혼의 구원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보이고 너희가 진지하게 나와 내 나라를 구하기 원하면, 너희는 내일을 위해 진실로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너희의 생각은 전적으로 모두 세상을 향해 있고 너희 육체의 행복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므로 염려와 위험이 너희에게 부담을 준다. 너희는 이런 염려와 위험을 통해 항상 단지 더욱 너희의 실제 이 땅의 과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너희의 관점은 항상 더욱 세상을 향한다. 너희는 너희의 쇠하는 부분을 위해 일하고 역사하며 너의 혼은 돌보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이 먼저 내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는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말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므로 이 말의 진리성을 시험해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단지 너희 혼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 이 땅의 삶을 너희에게 주었다. 왜냐면 육체는 쇠하지만 그러나 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직 전적으로 생명의 능력이 없는 혼이 이 땅에서 생명에 도달해야 한다. 이런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는 일을 너희 스스로 이뤄야 한다. 이 일이 바로 너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목적이다. 너희가 너희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너희는 나로부터 모든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육체를 지나치게 염려함으로 너희 혼에게 해야 할 일이 방해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단지 너희의 실제 과제를 긴급한 것으로 여기면, 너희가 내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육체를 돌보는 일을 넘겨 받는다. 그러면 진실로 너희에게 어떠한 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고 너희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제공받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 육체뿐만 아니라 너희 혼도 돌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넘치게 준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사랑을 얻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하여 짐을 진 가운데 있다. 왜냐면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리에 대한 증거를 얻으려고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더욱 혼의 생명을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나와 내 나라에 도달하려는 추구를 하지 않고 그의 혼이 견딜 만한 상태가 되게 돌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주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견뎌야만 한다. 왜냐면 그들이 내 약속을 믿지 않고 내 도움을 믿고 믿는 가운데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이 그들의 혼의 행복을 우선에 두지 않고 나 자신이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돌보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말을 조금 더 믿었다면, 사람들의 영의 상태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진지하게 나와 내 나라를 추구하면, 그들은 내 쉬운 사랑의 계명을 지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고 이로써 모든 의로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 나라를 소유했을 것이고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그들을 나에게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의 육체와 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약속한 대로 육체적인 재물과 영적인 재물을 이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믿게 강요받지 않는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다. 만약에 그가 나와 내 말을 신뢰하면,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이전에 나에게 헌신하는 일을 요구하고 그러면 나는 그에게 그의 세상적인 염려를 거두어 드리면서 요구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이다. 왜냐면 그가 이제 올바른 내 나라의 후보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육체의 행복을 그의 혼의 성장보다 더 우선에 두는 동안에는 그는 자신의 혼을 생각할 시간을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육체의 요구가 증가하고 혼이 주는 모든 조용한 경고를 물리치기 때문이다. 세상의 음성이 사람 안의 영의 나지막한 음성을 파묻을 것이고 혼은 피폐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아주 심하게 굽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육체가 우선을 차지했기 때문에 혼이 부를 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의 시간이 임하면,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취하고 얻은 것을 다 두고 가야만 한다. 그러나 혼은 헐벗고 가난한 가운데 저세상으로 들어간다. 왜냐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겸손한 사람에게 내 은혜를 베푼다.

B.D. No. 7057

1958년 3월 6일

내 영은 연약한 자 안에서 강하다. 그러나 이런 일은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도 된다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 자신을 연약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깨닫고 내 앞에서 고백하고 나에게 내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내가 그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는 심장에서 오는 겸손에 대한 일이다.

내 영은 단지 진실로 겸손한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전적으로 자신을 나에게 드리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위해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무엇을 선물할지를 나에게 맡긴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충만한 은혜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이 은혜를 활용할 것이다. 그는 내면으로부터 동인이 되어 사랑을 행할 것이다. 왜냐면 이런 일은 심장 안에 나를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는 진정한 겸손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이미 근본성향이 교만인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만든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 그에게는 유일하게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내 편에서 이런 갈망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 안의 영의 불씨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길 추구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줄 수 있다.

그러나 내 영은 내 대적자의 성향인 교만이 있는 곳에서 절대로 역사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그런 곳에서 역사한다면, 내가 그와 협력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 안에 역사할 수 있기 전에 그가 겸손하게 돼야만 한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이라고 이해할 수 있느냐?

진정한 겸손은 외적인 자세를 통해 표정을 통해 또는 이웃에 대한 외적인 태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단지 유일하게 심장의 겸손을 보고 내적으로 연약함과 죄악성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로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본다. 즉 한때 타락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본다.

모든 존재들은 실제 한때 빛나는 아름다운 상태에서 그들의 창조주인 나 자신을 기뻐했던 내 형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상태로 머물지 않았고 그들의 모든 성품이 반대로 바뀌었고 그들은 이 상태에서 내 눈 앞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눈이 먼 상태에서 나에게 다시 저항했다. 왜냐면 그들이 내 대적자의 성품인 교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그의 교만을 벗고 가장 깊은 겸손으로 변화되고 자신의 타락과 나와 떨어진 아주 먼 거리를 깨닫고 나를 갈망하면서 긍휼을 구하기 위해 두 손을 펼칠 때까지 나에게 귀환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들이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이 존재를 나에게 끌어드릴 것이다. 왜냐면 존재가 그의 겸손으로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사랑이 충만하게 자녀를 자신의 심장으로 끌어 드리고 이제 자신의 사랑의 증거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아버지는 이제 다시 자신의 영을 부어줄 수 있게 된다.

영의 능력이 이제 볼 수 있게 나타날 것이다. 사람은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단지 존재가 원래 초기에 소유했던 은사가 없이는 온전한 존재라고 할 수 없는 은사를 나타낼 것이고 사람은 빛과 능력이 충만할 것이다. 다시 말해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일반 사람이 소유하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의 하나님과 분명한 연결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이 겸손한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 하나가 겸손이기 때문이다. 이 겸손이 단지 타락을 통해 반대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실로 너희 안에서 내 영이 역사하기 원하면, 너희 사람들은 항상 진정한 겸손을 추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아직 교만의 불씨 하나라도 자신 안에 가진 사람은 내 대적자로부터 이미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적자의 지속적인 노력은 그를 계속해 자신의 사슬로 묶어 두려는 일이 될 것이다.

세상이 대적자에게 그의 일을 할 많은 기회를 제공해 사람들이 항상 더욱 명성과 명예를 추구하고 작고 낮은 모든 것을 내려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가 대적자에게 속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너희는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너희 자신을 진실로 올바른 겸손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내적인 생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너희가 나 자신이 너희 안에서 강하게 되기 원하면, 너희는 너희의 연약함을 의식해야만 한다. 왜냐면 나는 겸손한 사람에게 내 은혜를 베풀기 때문이다.

아멘

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B.D. No. 7075

1958년 3월 28일

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왜냐면 모든 나에 대한 깊은 생각이 나를 너희에게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대화 내용과 생각에 내용을 나 자신으로 삼을 때 너희는 항상 내 임재를 확신할 수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 너희는 나로부터 영적으로 비추임을 받게 되어 항상 너희의 혼이 행복하게 느끼게 될 축복을 체험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 내 이름 아래 자주 모여야 한다. 왜냐면 너희 모두에게 너희 혼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야 하는 내 힘을 계속하여 제공받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나에게 집중함으로 넘치는 능력을 받으면서 나와의 깊은 교제를 자신을 위해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영적인 교제는 축복된 일이고 이를 통해 많은 영계의 혼들이 참석할 수 있고 그들 자신을 위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이런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너희뿐 아니라 영계의 혼들이 골몰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쪽으로 너희 생각이 향하게 할 수 있다.

너희는 내 이름 아래 모여야 한다. 왜냐면 이로써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연결을 이루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영적인 토론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일의 필요를 단지 희귀하게 갖는다. 사람들은 겉으로 내면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을 겁낸다.

영적인 대화를 드물게 하고 이를 목적으로 단지 아주 적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로써 그들은 이런 만남으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함으로 자신의 영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내 말을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세상 생각을 할 수 있고 나와의 깊은 연합이나 헌신이 거론되지 않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해야만 한다. 나는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내가 단지 생명력 있는 믿음만을 평가하고 크리스천의 모양새만 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을 말해야만 한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내가 각 사람과 하나가 되는 일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하나가 되는 일이 각 사람이 스스로 이뤄야만 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연결은 그가 연결을 이루려는 진실 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심장으로 원하면, 항상 어디서나 이를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내 축복을 드러나게 느낄 것이고 자신을 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관해 말하기 위해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재촉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임재가 어떤 일이 일어나던 간에 그로 하여금 자신의 속에 품은 것을 드러내게 하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 영적인 교제를 위해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약속의 말씀이 그가 내 이름의 능력을 시험해보게 인도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믿으면, 나와 연결을 통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나 너희 모두는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나 나는 항상 또 다시 내 말씀을 너희 사람들의 기억에서 불러 일으킨다. 너희가 진지하게 내 말씀에 대해 생각하면, 너희는 이 약속의 말씀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강한 믿음으로 내 역사를 허용하면,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의 연약한 믿음으로 너희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곳에는 역사할 수 있는 내 능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내 말을 통해 너희의 믿음을 강하게 되도록 너희를 축복하기 원한다. 왜냐면 내가 있는 곳에는 내 영이 역사할 수 있고 내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내 음성을 들으면, 내 영이 너희에게 낮아져 임한 것이고 내 영원한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의 영의 불씨와 연결 된 것이다. 영의 불씨는 나와 떨어질 수 없게 하나로 머물고 단지 발산 된 불씨이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하고 아버지의 영과 항상 또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들으면, 너희는 내 사랑의 불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너희 안의 영의 불씨에 불이 붙고 역사할 것이다. 영의 불씨는 그의 원래의 성분에 합당하게 너희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영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깨달음이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 왜냐면 나로부터 나온 영은 모든 것을 알고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없고 이 영은 나와 같이 알고 있고 나와 같이 그의 지식을 전한다.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영이고 이 영은 나 외의 두 번째 영이 아니라 너희에게 사랑과 진리의 말을 하는 나 자신이다. 너희는 한때 나로부터 발산되어 나온 사랑의 힘이고 너희는 내 영으로부터 나온 영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 왜냐면 사랑의 힘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스스로 피조물로써 너희 자신을 단지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런 간격은 단지 너희의 의식 가운데 존재하고 그러나 이런 간격이 나에게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는 나와 같은 원래의 요소이고 영원한 원천과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힘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들리고 내 영이 열린 그릇으로 내려가 임하고 이로써 이제 그 사람을 충만하게 채워 그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면, 이 연결이 실제가 된다. 그러면 사람과 나와의 간격이 사라진다. 그는 다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로 다가가고 자신 안의 영의 불씨를 화염으로 타오르게 하고 이 불은 영원한 사랑의 불에게 다시 향한다. 사람 안의 불씨는 나에게 향하는 길을 구하고 사람의 의지는 절대로 끊어 질 수 없게 영원히 지속되는 연결을 이룬다. 그러나 이런 연결은 의식적으로 연결을 이루는 데에 달려있고 사람들 편에서 간격이 사라지게 만들려는 추구를 해야 하고 사람이 나와 연결되기를 원해야 한다. 그러면 내 영이 역사할 수 있고 그러면 내 영을 육체 위에 부어줄 수 있게 된다.

이런 일이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아주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내 영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질 것이며 남종들과 여종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아주 희귀하고도 희귀하게 사람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을 통해 나를 나타내는 일이 분명하게 일어나야만 한다. 나에게 저항하지 않고 내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해서 내가 내 영을 그 안에 부어줄 수 있게 하고 내가 그를 통해 이제 인류의 유익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 인류에게 말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을 택하는 일이 분명하게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너희 사람들에게 말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내 음성을 들어야 하고 너희 모두는 너희 내면으로 들어가 내 말을 생각하고 내 말대로 행하고 이로써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피할 수 없는 종말을 위해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나는 모든 육체 위에 내 영을 부어 준다. 이 일은 이미 너희에게 예고 된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편에서 행하는 이런 역사를 믿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때가 내가 남종과 여종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는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남

종과 여종은 이제 내 사명을 받아 그들의 예언자적인 영을 통해 선포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미래의 일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내가 예언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영을 다시 부어줬다는 일과 모든 선포자들이 그들 자신으로부터 나온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그들에게 알려 주는 것을 단지 말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순수함과 선명함으로 너희 사람들에게 내 말을 다시 줄 전달자로써 그들이 필요하다. 나는 그들이 나 대신에 너희에게 말하도록 그들이 필요하다. 왜냐면 내가 말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내면으로 들어가 너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너희가 처하는 위험을 내가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 모두가 사랑이 없이 살고 이로써 너희를 내 대적자에게 속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고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내 음성에 항상 더 크게 울리고 나는 항상 자주 내 일꾼과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내 영을 항상 또 다시 부어 주는 사람을 단지 믿으라고 요구한다. 왜냐면 그들은 내 사명을 받아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그들의 말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들과 그들의 경고를 따른 것으로 인해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말은 위로부터 내 종들을 통해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이고 영원한 너희 아버지의 음성이고 한때 너희를 생성되게 했고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를 떠났던 나에게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말씀이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내 말씀을 들으라. 이런 역사가 내 영의 역사라는 것을 알라. 내가 너희를 돋기 원한다는 것을 알라. 그러므로 때가 되었을 때 너희가 멸망받지 않게 내가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 내가 그들을 통해 너희 모두에게 말할 수 있게 그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라.

아멘

요한복음 14 장.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B.D. No. 7702

1960년 9월 17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로서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를 주기 원한다. 나는 너희가 홀로서 인도가 없이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너희가 홀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즉시 너희 가까이로 다가올 내 대적자에게 넘겨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고 실제 자유의지로 올바른 길을 벗어난 내 자녀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 들이지 않고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아버지 사랑은 단지 너희가 다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강팍하게 나에게 저항을 하지 않고 너희가 자원해 내 인도를 받으면, 나는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너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세상 가운데 홀로 있는 고아처럼 느끼고 그러므로 자주 위험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작은 양들이 흩어져서 그들의 길을 가지 않게 모으는 일과 내가 선한 목자로써 그들을 인도하고 부르는 일과 내가 어떤 양도 잃기를 원하지 않는 일은 내 사랑 때문이다. 내 양들은 그들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고 목자는 그들을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목자

는 자신의 양 무리를 항상 또 다시 원수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혼돈을 일으키고 양들을 서로 흩어지게 하기 위해 다가오는 원수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 내 부르는 음성이 울리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그들을 내 원수에게 넘겨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길을 잃거나 절벽으로 떨어질 위험에 빠진 양들을 뒤따를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내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양도 잃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나와 내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게 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내가 위험 가운데 함께 하고 홀로 있고 도움에 의존 된 모든 사람을 돋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나를 생각하고 그들의 위험 가운데 자신을 나에게 의탁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나는 나를 떠난 사람들과 사랑의 부름으로 그들이 생성되어 나온 출처로 돌아오도록 인도받아야 할 모든 사람을 선한 목자처럼 대할 것이다. 내 약속의 말은 다음과 같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내 도움을 예상할 수 있고 너희는 항상 내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는 모든 영원에 영원 까지 너희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로 남기를 원하는 한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아버지에게 무엇이 너희를 짓누르던지 간에 너희 자신을 맡겨야 한다. 그러면 그는 너희 손을 붙잡고 안전하게 모든 불행을 통과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는 너희의 길을 평탄하게 해서 너희가 안전하게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고 너희가 나를 찾게 하고 이제 내 곁에서 영원히 머무르게 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 모두는 한때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 하고 돌아오는 일은 단지 내 도움으로 가능한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 자녀들은 자신을 연약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 왜냐면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나는 내 자녀들이 이제 진정한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갈 수 있고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인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다.

B.D. No. 8786

1964년 3월 21일

L희에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왜냐면 나에게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너희의 사랑의 정도를 높이려고 하라.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라. 위험에 처한 이웃을 영접하라. 이를 통해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라. 너희 이웃을 한때 축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내가 창조한 너희의 형제로 여겨라. 가장 큰 기적을 이루고 너희 인간들이 가능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을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단지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라. 나는 진실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항상 단지 내 사랑과 지혜가 언제 내 능력이 나타나게 할지를 정한다.

너희는 진실로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사랑으로 내 의지와 내 사랑을 정할 수 있고 너희는 나에게 강요를 할 수 있고 내가 그런 일을 아주 기뻐한다. 왜냐면 사랑은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고 항상 단지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사랑을 주면, 마찬가지로 내 사랑을 너희에게 나타내 너희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아주 다양한

과제를 주고 나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를 안다. 나는 그가 도울 준비가 되어있는지 언제 도울 준비가 되어있는지 안다. 나는 자신의 도움을 주려는 준비 된 자세를 통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 세상적인 종류이든 영적인 종류이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너희가 그에게 전하게 한다.

세상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통해 너희는 나를 항상 사랑을 증명한다. 왜냐면 너희가 내가 가장 작은 형제에게 행하는 일이 나에게 행한 일이기 때문이고 게다가 너희는 나에게 너희가 이미 물질을 극복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적인 것을 나눠주면, 이런 일은 내 역사이다. 내가 너희가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혼이 지치고 배고파 너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너희에게 인도해 그들의 혼이 강해지고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도움을 주려는 자세에 내가 특별한 상급을 줄 것이다. 왜냐면 이런 일은 생명을 주는 영적인 내용을 전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가 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전하면서 나를 섬기는 사람과 이웃의 혼의 구원에 심장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내 도움을 받는 일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사랑의 역사를 실행하기 때문이고 그가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다시 전하기 위해 이전에 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먼저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나를 항상 사랑의 아버지로 깨달을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이 땅에서 그를 인도할 것이고 그의 모든 길을 축복할 것이고 때가 되면, 내가 특별하게 역사할 것이라는 내 약속들을 성취시켜 줄 것이다.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위험 가운데 처한 모든 사람이 너희의 이웃이다. 그들에게 너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줘야 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진지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진실로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너희가 나누어 줘야 할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며 계산하지 말고 충만하게 주라. 왜냐면 너희가 측량하는 대로 너희가 측량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주는 것은 항상 너희가 도움을 주게 하는 너희의 사랑의 정도의 합당하게 천 배의 보상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염려하기 때문이다. 항상 단지 너희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고 모든 유혹을 이기라. 너희의 성장 정도에 위험을 주는 사랑없음에 너희가 빠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항상 내 임재를 느끼고 행복한 정도로 내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전능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단지 내 지혜가 올바른 때가 언제이지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역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너희가 분명하게 내 사랑을 체험할 때가 언제인지 내가 너희의 육신과 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때가 언제인지를 안다. 왜냐면 내 도우려는 의지는 너희의 도우려는 의지보다 훨씬 더 크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주기 원하는 내 은혜의 선물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자연 가운데 원소들이 분출되는 일을 알게 해주는 일들이 증가하는 일은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기대하지 않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을 주는, 특별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징조들을 미리 보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징조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그리스도가 인류에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언젠가 어떠한 결과를 주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할 때 이미 이런 때에 대해 말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예고해주는 징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자연적인 것을 벗어나는 어떤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상의 질서에 개입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든 일어나는 일의 연관관계를 선명하게 깨닫는다면, 사람들에게 영적인 성공을 줘야 하고, 줄 수 있는 일을, 사람들이 어떤 준비도 하지 않은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다가오는 일을 알려준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때가 다가왔다는 깨달음을 준다. 이제 사람들이 이런 알림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질지는 각자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그가 믿는다면, 그는 그의 삶을 믿음에 합당하게 만들 것이다. 그는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자신의 운명을 순복하며 하나님께 맡기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개입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는 사람들처럼 위험이 크지 않을 것이다. 어떤 믿음도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준비하지 않고, 모든 알림과 경고를 듣지 않고, 자신의 귀를 지나가게 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끔찍할 것이다. 왜냐하면 깊은 믿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 위의 주님을 깨닫고, 자신을 그의 은혜에 의탁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떠한 지지 대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류가 생각하도록, 오래 전에 이미 예고하는 일꾼들을 보냈다. 이러한 예고해주는 일을 믿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일은 생각하도록 자극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징조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주 정기적으로 반복이 되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 스스로가 대부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따라 자신의 설명을 한다. 만약에 그가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연관시키면, 그는 이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통해 자신이 유익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는 다가오는 때를 준비하고, 이러한 준비는 자신의 혼에게 큰 성공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경을 통해 예언한 것은 거부할 수 없이 성취된다. 단지 성취되는 시점이 사람들에게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한 징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이 크게 흔들리는 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인류가 이를 통해 말할 수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이제 자신을 형성하여 다가오는 때를 태연하게 기다릴 수 있게 만들지는 그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는 싸워야 하고, 인류가 이제 앞두고 있는 파괴의 역사 앞에 연약하게 되지 않도록 강한 믿음을 구해

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돌볼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홍수 전의 때처럼 먹고 마신다.

B.D. No. 4575

1949년 2월 28일

종말이 다가오면, 홍수 전의 때처럼 이제 다시 될 것이다. 사람들은 증가된 삶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힐 것이고, 세상은 모든 유혹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고, 다스리기 원하지 않고, 양심이 없이, 죄악 속의 삶을 즐길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순수한 기쁨이 아니고, 죄악이 모든 곳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 죄들은 자기 사랑이 모든 이웃사랑을 물리쳐, 이로써 사람들을 죄악되게 한다. 왜냐면 단지 자신의 육체의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해, 이웃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이웃 사람의 소유물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이로써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된다. 증가된 삶의 쾌락이 양심의 소리를 죽일 것이고,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모두 다 누릴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나의 대적자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단지 나쁜 것 만이 올 수 있고, 세상은 혼에게 단지 위험을 의미한다. 왜냐면 육체를 성취시켜 주는 것에 대한 댓가를 혼이 치러야만 하고,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행복을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단지 사람들이 쾌락의 요동 속에 마취되면, 어떤 때가 되었는지 알게 된다. 그러면 종말이 가까이 다가온 것이고, 내가 이미 오래 전에 홍수가 나기 전의 때처럼 된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신다. 사람들은 결혼하고 혼인하며, 위로부터 오는 경고와 권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전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단지 이 땅의 삶에 주의를 기울이고,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을 회심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모든 진리의 전달자들을 조롱하고, 놀린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기쁨에 도취된 상태에 임한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세상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은 끔찍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높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빠지고, 기쁨에서 가장 큰 두려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왜냐면 세상의 유혹과 함께 세상이 그들의 하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소멸되지 않고, 가장 심한 감옥이 이 땅에서 그들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죄 가운데 살며, 죄를 추구한 사람들의 운명은 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라. 왜냐면 세상은 너희에게 가장 큰 위험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실제 현재까지도 아직 많은 갈망할 만한 것을 너희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이를 포기하고, 나중에 다가오는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고 희생하라. 이로써 너희가 모든 충만함으로 하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라. 단지 자기 자신 만을 사랑하는 사람에 속하지 말라. 기쁨의 도취는 잠시이다. 그러나 기쁨의 도취를 이어, 말씀과 성경에 예언이 된대로 끔찍한 깨어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큰 위험 속에 있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세상의 거짓 빛에 의해 눈이 가리워졌고, 그들의 요구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더욱 높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큰 걸

음으로 마지막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지만, 죽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은 기쁨을 구하지만,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큰 환란.

B.D. No. 4639

1949년 5월 14일

수 고해서 얻고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육체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에게 세상 재물을 잃는 일을 감당하게 할 영적인 재물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끊임없이 너희에게 이 때를 알린다. 왜냐면 말씀과 기록에 예고된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높은 권세를 통해 이런 꼼찍한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이해할 수 없게 보일지라도, 이 일은 피할 수 없게 일어난다. 왜냐면 이 일에 먼저 교육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 일을 통해 다른 형체를 입어야 할, 영적으로 낮은 성장 단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위해 이 일이 영원한 구원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을 사람들이 피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변화되려는 의지와 성장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들에게 이런 일이 필요하다. 왜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거의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더 심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더 이상 부드러운 경고로는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고, 같은 목적으로 지금까지 그들에게 행한 모든 일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가올 때가 되면, 사람의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향하게 하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실로 구원을 가져다줄 변화가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1949년 5월 14일) 고난이 심하게 되어, 심장 안에 사랑의 불씨가 있는 곳에서 도우려는 의지가 깨어나게 될 것이다. 사랑의 불씨가 양분을 얻고, 화염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단지 돋기 원하는 사람이 또한 돋는 개입을 할 것이고, 이웃의 어려운 운명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왜냐면 그 자신이 또한 고통스러운 운명이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자원하여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을 내가 또한 도울 것이다.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더 높은 권세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혀 탈출구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왜냐면 세상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 자주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아직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항상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큰 환란에도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행하는 사랑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 사랑이 나의 사랑이 역사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은 도움과 은혜를 받고, 특별한 힘을 받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들은 고통을 그렇게 힘들게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이 힘이 충만하고, 나를 항상 나를 돋는 자로서 그들의 곁에 두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종말 전에 믿음이 약하지만 선한 의지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 그들의 믿음을 돋기 위해 분명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하게 되는 일을 경험할 것이고, 그들의 혼이 해를 입지 않고 고난의 때를 넘기게 될 것이다.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나의 보호 아래 있고, 염려없이 이 때를 맞이할 수 있다. 왜냐면 이 기간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하늘나라의 세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는 일. 휴거.

B.D. No. 5029

1950년 12월 28일

우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은 하늘나라에서 오는 힘이고, 이 힘은 하늘의 빛의 나라인 영의 나라에서 온다. 이 힘은 지옥에서 나와 아래로부터 오는 힘의 나타남과 대조가 된다. 그러므로 영의 나라에서 제공되는 것에 자신을 열고, 영적인 선물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행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게 되면, 빛의 나라의 존재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한다.

하늘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그들은 종말 전 마지막 때에 특별하게 역사한다. 그러므로 이런 설명이 먼저 종말의 징조와 자신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야만 한다. 그가 한 말은 강력한 말이었다. 왜냐면 그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자연의 법칙을 무너지게 하는 일을 의미하는 변화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는 항상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는 영적 의미에 더해 두 번째 의미가 밝혀질 것이다. 왜냐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이런 자연의 법칙들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연 법칙일 뿐이고, 이런 과정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표현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고, 태양과 달이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과 과학자들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설명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빛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그들의 지식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아무도 그 원인을 알아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왜냐면 이런 역사가 단지 한 구원의 시대가 끝나고 물질적인 곁형체의 해체가 필요할 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는 자연의 법칙과는 상반되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계획되어 있다. 그러므로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이고, 영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이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역사할 수 있게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또한 법칙을 벗어난 일도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전능함에 제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인다. 왜냐면 이런 역사를 판단하는 일이 사람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역사를 의심하는 일은 주제를 넘는 일이다. 왜냐면 이런 의심은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위해 얻기 원하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필요하고 좋은 대로 자신의 뜻을 실행할 것이다.

종말 전에 인간이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특별하고, 실제 거의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예고하는 말씀은 단지 사람들에게 암시를 해줄 수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순수한 진리이고 때가 되면, 성취가 된다. 그러면 우주에서도 가장 이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인류는 단지 초기에만 그런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일은 휴거 되어 이 땅과 이 땅의 주민들이 파멸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옛 형태와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새 땅에는 단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살고, 그들은 이 땅의 종말의 때에 일어난 일의 모든 원인을 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아주 큰 사랑과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

아멘

나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 이 날을 줄여 줄 것이다.

B.D. No. 7225

1958년 12월 9일

종 말의 때까지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짧아지고 있다. "나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 이 날을 줄여줄 것이다."라는 내 약속에 따라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내 원수요 대적자로써 대항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무릎을 꿇으라는 강요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저항하기 위한 많은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면 대적자가 너희에게 아직 해를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적자가 너희에게 위협을 가할지라도 너희는 이 때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의 손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속한 사람들 자신이 그의 영향이 없이 보낸 모든 날에 대해 감사할 것이고 내가 그의 역사를 끝내고 사슬로 그를 다시 묶으면, 그들은 나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종말의 때까지 기간은 자주 실제 두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허깨비와 같고 꿈과 같이 빠르게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영의 존재로 둘려 쌓여 있고 영의 존재들은 빛이 충만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크게 조심해야 한다. 왜냐면 그는 마귀와 같은 생각으로 충만해 있고 때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불가능하게 여기는 일이 그의 영향으로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그에게 자신을 따르고 그를 섬기려는 이로써 그의 자극을 받아 너희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위험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에게 내 보호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모든 것을 조종해 너희에게 너무 어렵게 되지 않게 하고 너희가 그에 대항하는 싸움을 견디고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싸움은 싸움으로 남을 것이다. 나는 이를 항상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너희가 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가 항상 더욱 나에게 속하게 되고 대적자가 공격할 수 없게 내 가까이에 머물게 한다. 나에게 굳게 속한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 내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는 항상 나로부터 받는 능력을 통해 월등하기 때문이다.

시간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날들이 더욱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이를 너희가 항상 분명하게 의식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 내가 날짜를 줄여주게 될 나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임을 알 것이다. 항상 자주 내가 너희에게 말하게 하라. 나와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을 미지근하게 하거나 게을리하지 말라. 왜냐면 너희가 받는 것을 나눠주면, 너희는 이로부터 많은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영의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 일이 많이 필요하다. 이로써 내 말씀을 통해 얻기 원하는 능력이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쉬지 않고 일해야 하고 이 땅의 내 포도원의 일꾼으로써 항상 많은 시간이 너희에게 남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이 말을 진지하게 여겨야 한다. "나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 이 날을 줄여 줄 것이다." 너희가 믿는 것보다 빠르게 종말이 임할 것이다. 너희 모두는 종말 전에 너희 자신을 무장시키고 나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종말은 밤 중의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내가 자고 있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면, 나는 사탄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를 불러낼 것이고 그의 모든 고난은 끝나게 될 것이다.

아멘

받아먹으라.

B.D. No. 6135

1954년 12월 14일

밥 아먹으라. 내가 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떡을 그들에게 나눠 주었다. 떡은 하늘의 양식을 상징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는 내 말씀의 상징이다. "받아 마셔라." 내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건네면서 이 말을 말했다. 포도주는 내 피를 상징하고 사람들이 강하게 되기 위해 마셔야 하는 내 말씀의 힘을 상징한다. 빵과 포도주는 살과 피의 상징이었다. 나 자신이 육신이 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피라고 말할 수 있었다. 왜냐면 내 죽음을 통해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가 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했고 내 죽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어두움 속에 가둔 사슬을 끊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축복되기 원하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서 들려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라. 너희는 내 말씀을 굽주려하며 영접해야만 하고 너희는 말씀을 섭취하고 너희 혼에게 양식을 제공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 말씀 안에 생명을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살과 피는 생명에 속해 있고 나는 너희가 생명을 얻도록 죽었다. 생명의 떡은 내 말씀이고 나 자신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내가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성찬에 대해 이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내 말씀을 받고 굽주려하는 가운데 너희 안으로 섭취할 때마다 너희는 나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생각하는 가운데 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너희가 듣는 동안에는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제자들을 위해 떡을 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줄 때 나는 오직 내 말씀이 나와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이루고 이런 연결을 증명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내가 그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그들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나아가 그들이 내 구속사역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고 내 앞에 놓인 일인 내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내 목숨을 바쳐야만 하는 일을 알았다.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를 위해 희생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릴 것이다."

영원한 말씀 자신이 너희 사람들에게 말했다: "받아먹으라. 받아 마시라." 너희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나에 의해 하늘의 양식을 제공받기 위해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너희는 단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나와 긴밀한 관계를 다시 이룰 수 있고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안으로 나 자신을 영접하고 너희는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 피가 너희의 생명을 보장하고 내가 손에 가득하게 너희에게 나눠줄 것이고 너희 혼은 절대로 굽주리거나 목

마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혼을 배부르게 하고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혼에게 성찬을 제공할 것이고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제공할 것이고 그들의 혼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성찬식과 사랑.

B.D. No. 7120

1958년 5월 14일

사랑이 없이는 나와 교제할 수 없다. 왜냐면 사랑은 내 원래의 성품이고 사랑은 단지 같은 것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와 연합하기 원하는 사람의 심장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 다른 방식으로는 이런 연합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찬식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돼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 사람들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면, 비로소 너희 안에서 내가 임재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외적인 형식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임재를 위한 조건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나를 기억하기 위해 행하라"는 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생각해낸 외적인 형식을 단지 행함으로써 내가 이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지나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

심장 안에 나 자신을 영접하기 위한 조건은 사랑을 행하는 삶이다. 나와 함께 성찬식을 행한 내 제자들은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동시에 내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직분을 준 내 말을 이해했다. 왜냐면 그들은 나로부터 받은 생명의 양식을 내가 그들에게 이 땅의 빵을 나누어 준 것처럼 나누어 줘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포도주가 든 잔을 건낸 것처럼 생명수를 제공해야 했다.

나 자신이 육신이 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주었다. 나는 나를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나 자신을 줄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과 마실 수 있는 생명수를 제공할 것이다. 그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들에게 임재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이런 연합이 불가능하다.

나는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설교할 수 있고 그들이 사랑을 행하게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아직 사랑으로 변화되지 못한 심장 안에 거할 수 없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제 생각해보라. 그들은 실제 그들의 관점으로는 주님의 식탁으로 향한다. 그러나 올바른 사랑이 없고 그러므로 그들의 심장은 나를 영접할 능력이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 된 생각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생각하라. 왜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충분하게 행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모든 사람이 나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너희를 내 임재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위해 단지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알지라도 영적인 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적인

형식을 지키는 일보다 내 말씀에 적게 주의를 기울인다. 내 말씀이 유일하게 내가 사람들에게 단지 형식적인 관습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할 수 있다.

내 제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직분을 부여할 때 해준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단지 진지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보기 원하면, 사람들은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하는 일에도 사랑으로 사는 삶이 요구 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작업하는 일이 요구 된다. 반면에 여러 가지 관습들은 이런 자신을 극복하는 일을 요구하지 않고 이 때문에 관습들은 열심히 지킨다. 관습들은 혼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고 심장 안에 내가 비로소 임재할 수 있게 해주는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기 위한 선행조건인 자신을 사랑으로 바꾸는 이 땅의 삶의 과제를 행하는 일에 사람들이 단지 무관심하고 이 일을 계을리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와 연합되는 일이 인간의 첫 번째 목표이며 마지막 목표이다. 사람이 이 땅에서 이 목표를 이뤄야 하고 그가 단지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이로써 자신의 성품을 자체가 사랑인 내 원래의 성품과 같게 만들려고 하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아멘

임명할 때 주는 말씀.

B.D. No. 7666

1960년 8월 5일

내 은혜의 흐름이 너희에게 감동을 주면, 너희에게 항상 축복이 될 것이다. 왜냐면 나로부터 나온 어떤 것도 만약에 자원해 영접하면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향하고 너희가 내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면, 자원해 영접하는 일이 보장 된다. 나는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라는 내 말을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기 원하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 말을 통해 문자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의식을 만들었고 너희는 이 떡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나 자신을 너희 안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나는 떡과 포도주를 내 말씀의 힘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너희가 하늘에서 온 만나이고 생명의 떡인 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너희는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을 위해 육신이 된 말씀인 내 말씀이 너희에게 감동을 주게 만들어야만 한다.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나는 손에 가득하게 생명의 말씀을 주었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선한 의지를 가진 그들에게 혼의 양식을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인 내 힘으로 축복을 받은 내 말씀을 주었다.

나는 내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내 말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들로 삼았다. 왜냐면 그들이 내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혼을 위해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모든 사람이 내 말씀을 나로부터 나온 상태 그대로 깨우칠 수 있게 되야 하고 단지 영원한 진리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진리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단지 짧은 동안에만 거했고 이 기간 동안 내 제자들의 가르치는 직분을 위해 내 제자들을 준비시켰다.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내가 내 어려운 골고다의 길을 가기 전에 내 제자들과 성찬을 할 때 내가 이제 그들을 파송하는 사명을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에 대해 내 가르침에 대해 내 앞에 놓여있는 일에 관해 세상에 알리라는 사명을 알려 주었고 나는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말을 했다. 나는 떡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포도주가 담긴 잔도 나누어 주었다. 내 제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살과 피라고 그들에게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을 알았고 그들은 내가 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요구를 그들에게 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생각하고 영원히 더 이상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나를 떠나지 않게 했다.

제자들은 나 자신이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 나누어 준 것처럼 그들의 이웃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로써 나는 내 제자들에게 내가 이 직분을 위해 양육했던 직분을 부여했다. 그러나 내가 절대로 너희 사람들이 내 말씀에서 유추해낸 것과 같은 이런 성찬식을 만든 것이 아니다. 너희 사람들이 의식을 행하고 이로 인한 효과를 위해 단지 떡과 포도주를 받는 일 외에 다른 조건을 성취시켜야만 하는데 그렇지 하지 않으면서 효력을 기대하는 일은 내 뜻이 아니다.

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라. 이 사명은 진실로 내 살과 내 피인 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떡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나와 하나가 되기를 구하고 만약에 내가 직접 말해줄 수 있고 내 힘이 직접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인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나가 되는 일을 이룬 사람에게 이 떡은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왜냐면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가 그 안에 나 자신과 내 말씀과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사랑이고 나는 단지 사랑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외적인 의식을 행하며 떡과 포도주를 섭취하지만 그러나 그의 심장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의 심장 안에 내가 거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면 나는 사랑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적인 흥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 사랑과 싸워 이기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로써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사랑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서 말할 수 있게 되는 일과 내가 그 안에서 내 살과 내 피와 힘을 가진 내 말씀을 제공하는 일이 진정으로 나와 하나가 된 일이다. 그러면 사람은 항상 나를 생각할 것이고 그는 모든 것을 나와 함께 시작하고 끝낼 것이다. 그는 항상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는 위로 성장하는 길을 갈 것이고 목표에 도달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나를 기억하며 실행하라.” 주의 성찬.

B.D. No. 3740

1946년 4월 10일

나로부터 힘이 나오고, 지혜와 생명도 나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를 힘과 빛의 근원으로 깨달아야만 하고, 힘과 빛을 받아 생명을 얻기 위해, 나와의 연결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에서 내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돼야만 한다. 즉 빛과 힘을 다

시 찾을 수 있게 돼야만 하고, 그러므로 영원한 진리에 대한 지식과 그 결과로 인한 모든 풍성한 힘이 너희 안에 있어야만 하고, 나의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더 이상 생명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와 연합이 되고, 이런 연합은 진정한 친교이다. 너희가 나와의 결합은 이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힘도 빛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왜냐면 나의 사랑의 흐름이 이제 사람의 심장 안으로 전해지려면, 영원한 원천과의 결합이 먼저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연결을 이루기 위해 나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는 의지가 먼저 필요하다.

그러나 의지는 생각의 활동을 요구한다. 즉 나를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원천으로, 제공자로, 심장과 이성으로 깨달아야만 한다. 사람은 생각으로 나를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의지가 역사하고, 의지가 나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킨다. 역사하게 된 의지는 사랑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런 일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소통하기 원하고, 나와 연합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의 사랑의 계명을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

은사를 나눠 주라. 도움이 필요한 너희 이웃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처럼, 이웃사람의 혼과 몸을 쾌활하게 하라. 연약하고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짓눌린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 항상 계속하여 고난을 줄여주라. 너희에게 이 땅의 삶의 모범을 보여준 나를 항상 바라보라.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사랑의 계명을 성취한 것이고, 이로써 나와의 연합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성취한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심장을 사랑으로 형성했을 때, 비로소 내가 너희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의 연합은 불가능하다. 너희가 아직 외적인 형식을 많이 생각할지라도, 이런 일은 너희 심장과 혼의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고, 힘과 빛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역사하게 만들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가 사랑을 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할지를 나 자신이 너희에게 가르쳤고, 끊임없이 나를 따르도록 권고했다. 나와 내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나의 영을 받는 그릇이 될 것이다. 즉 너희는 내 자신의 일부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할 것이고, 너희는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나를 너희 자신에게 이끌 것이다. 이로써 너희는 영원한 힘과 빛의 근원인 나와 하나가 될 것이고, 너희는 또한 제한이 없게 빛과 힘과 지식과 권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1946년 4월 10일) 나와의 연합이 먼저 사랑을 행함을 통해 이뤄져야만 한다. 그러면 나 자신이 너희 안에 임재할 수 있고, 그런 후 내가 비로소 영적인 양식을, 영적인 의미에서 살과 피를, 내 몸을 너희가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다. 왜냐면 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 혼에게 영적인 양식인 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찬을 제공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전에 사랑을 행하지 않고도 양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런 일은 교제가 아니고, 나와 연합이 아니다. 왜냐면 그러면 말씀이 아직 성찬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단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심장으로도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산다면, 말씀이 성찬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사랑을 행하는 일이, 비로소 나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한다. 그러나 사랑을 행하는 일은 주는 일이고, 너희가 가진 것을, 너희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이웃 사람들도 또한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이웃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쉬지 않고 전하고, 나눠주는 일이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나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식탁에서 양식을 먹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와 성찬을 나눌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스스로 나의 손님이 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나의 본질이고, 영원히 나의 본질로 남게 될 사랑으로 바꿀 때까지, 나는 너희에게 가까이 갈 수 없게 머물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사람들이 택한 형식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이런 일은 항상 외적인 역사에 지나지 않고, 심장이 단지 감정적으로 너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런 일이 비로소 깊은 영적 의미를 갖게 된다. 왜냐면 단지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성찬을 정한 것이다. 너희는 항상 이 땅에서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주목해야 하고, 모든 일에서 나를 따라야 한다.

너희가 나눠주는 것처럼 너희가 또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와 사랑으로 긴밀하게 연합하면, 너희는 언제든지 배부르고, 힘이 있게 될 것이다. 나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사랑을 행하고, 이를 통해 나와 확실하게 연합을 이루라. 이런 연합이 너희에게 나의 말씀과 나의 살과 피의 공급을 보장할 것이다. 이런 일이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이다. 나의 말씀의 영적 의미를 헤아려 보려는 너희의 의지가 진지하다면, 너희 모두는 실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는 자신의 역사를 미리 알았다.

B.D. No. 6088

1954년 10월 24일

나는 너희를 위해 고통받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의식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고 나는 너희를 위험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가 가야야만 했던 극도로 어려운 고난의 길을 알았다. 나는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은 나에게 전혀 비밀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갔다. 나는 거부하지 않았고 위험을 피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그 길을 갔다. 왜냐면 내가 단지 내 구속역사의 과정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환난 가운데 땅에 쓰러진 내 피조물들의 연약함과 속박을 보았고 단지 십자가의 내 고통과 죽음을 통해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 영의 눈 앞에 모든 것이 밝고 선명했고 내 대적자의 잔인한 권세와 끊임없이 커져가는 심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존재들과의 간격을 선명하게 보았다. 나는 한 쪽의 가장 깊은 어두움을 보았고 다른 한쪽의 가장 밝은 빛과 축복을 보았다. 나는 빛에서 왔고 어두움 속으로 빛을 전해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다리가 필요했고 고통받는 혼을 깊은 곳에서 빛으로 끌어 올릴 권리를 얻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제공해야만 했다. 나는 불행한 피조물들의 생명을 사기 위해 내 목숨을 드려야만 했다. 자신을 내어주고 내가 가진 가장 높은 것을 희생하는 단 한가지의 방법이 있었다. 즉 죄의 결과로 죽은 자들을 향한 사랑에서 내 생명을 희생하는 단 한가지의 방법이 있었다. 나는 내 생명으로 그들의 생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내 눈 앞에 모든 것이 밝고 선명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미 이전부터 겪었다. 왜냐면 인간으로 내가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갖도록 창조되었고 죽음과 끔찍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나 자신이 무기력하게 될 수 있고 내 힘이 너무 연약해서 내가 실패하면, 타락한 내 형제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의 감정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어나야 할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내 힘이 커졌고 내 힘은 불행한 인류에 대한 내 사랑처럼 커졌고 나는 불행한 인류의 위험을 매일 점점 더 많이 깨달았다.

앞에 놓인 일 앞에 내가 때때로 나약함에 빠졌지만 내가 시작한 일을 완수하려는 내 의지는 약해지지 않았다. 왜냐면 내 안의 인간적인 요소가 항상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고 아버지가 나를 힘으로 채워주었고 이로써 내 사랑이 항상 더 강해졌고 내가 마침내 완전하게 의식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이제 죽음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죽음을 극복하는 일이 또한 내 임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쓰라리고 고통스러웠다. 왜냐면 깊은 곳에서 빛으로 올라오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빛의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 내가 가장 깊은 어두움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구속역사와 내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게 멸망을 받았을 너희를 돋기 위해 인간으로서 가장 쓰라린 고난과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사는 내 이 땅의 삶은 극도로 고통스러웠다. 왜냐면 아버지가 내 곁형체 안에서 자신을 계시한 아래로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일을 알았고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갔고 그럴지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타락한 자를 향한 내 사랑이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성취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나에게 죽음의 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아멘

인간 예수의 고난과 두려움.

B.D. No. 7278

1959년 2월 9일

인간으로 사는 이 땅의 삶도 때때로 나에게 어려웠다. 왜냐면 내가 너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법칙 아래 종속되었고 동일한 약점과 유혹에 맞서 싸워야만 했고 비록 내 심장이 사랑으로 충만했고 이로써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신적인 힘으로 충만했지만 이에 대항하는 일이 항상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혼이 고난을 당하는 시간도 내 삶의 길의 일부였고 내가 너희처럼 느끼는 이런 고난을 느끼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와 같은 "인간"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내 혼은 이 땅에서 영화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고 이런 영화가 아버지와 완전하게 연합이 되게 했고 아버지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게 했다.

내 혼은 실제 위로부터 왔다. 그러나 내 혼은 모든 성숙하지 못한 입자를 가진 이 땅의 육체를 입었다. 모든 물질적인 곁형체는 근본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모든 성숙하지 못한 입자들이 영화돼야만 한다. 왜냐면 육체가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가지고 혼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죄와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 예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혼의 과제와 마찬가지로 혼은 이런 유혹을 피할 수 없었고 저항해야만 했다.

그러나 내가 견뎌야 했던 투쟁은 어려웠고 이 땅의 내 길이 종종 나에게 너무 큰 짐이 되어 나를 짓눌렀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을지 겁이 나게 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사랑에서 힘을 얻었다. 왜냐면 나는 사랑의 힘과 사랑의 힘의 효력을 보았고 또한 내가 가야만 하는 어려운 길도 보았고 미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보았고 나를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길을 끝까지 가야만 했고 나는 항상 또 다시 내 두려움과 연약함을 통제해야만 했고 아버지께 매달려 아버지가 몸과 혼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했다. 왜냐면 내가 이 모든 환난을 너희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죄 많은 인류 가운데 사는 삶은 내가 그들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죽기를 원했던 사람들 가운데 완전히 순수하게 살았던 나에게 고통이었다.

그러나 내 몸이 성숙해질수록 내 혼은 더욱 긴밀하게 내 안의 아버지와 연합을 했고 그럴수록 내가 실제 인간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친 내 사명이 나에게 더욱 선명해졌다. 나에게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불행한 인류에 대한 사랑이 커진 것처럼 내 안의 힘이 끊임없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고 사랑이 내가 구속역사를 실행하게 하는 힘이었다. 사랑이 내 안의 아버지였고 나는 타락한 형제들을 돋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키기를 원했다.

나는 의식적으로 이 땅의 길을 갔고 처음에는 이런 의식이 단지 어두운 예감이었고 때로는 밝은 생각과 환상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 내면이 더 많이 영화될수록 내 눈 앞에 내가 빛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목적인 구원의 계획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러나 내 육체 안의 인간적인 요소가 붙어있는 동안에 나는 또한 인간적인 고난과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이런 고난에 내가 내 과제에 합당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내적인 갈등이 속해 있다. 왜냐면 너희 모두의 대적자로 머물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대적자로 머물 그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대적자에 대항해 승리를 얻었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싸웠고 항상 더 큰 힘을 얻었다. 왜냐면 고통을 받아야 할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이 너희가 대적자와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까지 점점 더 커졌기 때문이다. 내 사랑이 커짐에 따라 내 힘도 커졌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이 땅의 과제를 위한 힘을 단지 사랑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항상 너희에게 사랑이 없게 만들고 너희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으로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너희를 약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 그와 맞서 싸운 나를 생각하고 대적자도 내가 사명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질문으로 나를 약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는 단지 나에게 향하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돋고 너희 혼의 원수에 맞서 너희를 강하게 하고 세상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삶의 투쟁을 위해 너희에게 힘을 줄 수 있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헛되이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자신의 고난 가운데 나를 부르는 사람의 부름을 내가 진실로 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체포당한 후에 제자들의 의심.

B.D. No. 7328

1959년 4월 7일

내가 심판의 자리로 인도 받았을 때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왜냐면 내가 나를 체포하게 허용한 일이 그들 안에 내 신성과 내 권세와 강함에 대한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그들이 나를 앞잡이들이 나에 대한 권세를 가진 연약한 인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일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믿음의 시험이었고 그들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다. 왜냐면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실제 사명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고 내가 내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면 절대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과정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험은 있어야만 했다. 이로써 내 부활 후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가질 수 있게 했다.

그들은 아직 내 기적의 역사의 매력에 빠져 있어 내가 의지가 없이 저항하지 않고 내 대적자의 손에 맡긴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비록 오랜 기간 동안이 아닐지라도 진지하게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곧 다시 믿음이 강하게 되는 체험을 하기 원했다. 나는 그들이 그들의 혼의 큰 비참함에 빠져 그들의 위험 가운데 있어 내 동정심을 일어나게 만든 의심에 빠진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특별하게 강하게 돼야

만 했다. 이 일은 단지 내가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위로를 해주고 강하게 해주는 일로 가능했다.

사람들이 내 대적자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동안에는 그들은 아주 연약하다. 그러나 내 제자들은 전적인 깨달음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항상 내 임재 가운데 있었고 내 신성에 대한 많은 증거를 체험했다. 그들은 진실로 의심을 해서는 안 되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실패했다. 왜냐면 내가 나타나 그들에게 충만한 빛을 줄 때까지 최종적인 그들의 마지막 불신을 내 대적자가 자신을 위해 활용하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갖게 한 내 대적자의 사슬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때까지 그들이 전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나타남으로 그들은 최종적으로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나는 죽음에 대항해 승리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부활 후에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전적인 생명을 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연약한 믿음은 항상 내 대적자가 아직 역사하는 증거이다. 내가 믿음이 연약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가 혼의 두려움 가운데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강하게 되는 일이 필요하면, 너희는 나에게 너희 심장을 열어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너희 관점을 항상 단지 십자가를 향하게 하라. 너희 관점을 너희의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게 향하게 하고 나에게 너희에게 향한 문을 열라. 너희는 진실로 위로와 강함을 얻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 모두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너희를 강하게 해주고 내 권세와 능력과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사라지지 않을 내 영광에 대한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해주기 위해 너희를 대적자의 손으로부터 빼앗기 원하는 너희에게 가장 최고의 가장 선한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아멘

고난의 금요일. 골고다를 향한 길.

B.D. No. 5643

1953년 4월 3일

골 고다의 길은 내 이 땅의 여정의 끝이었고, 이 길은 승리였고, 성취였다. 이 길은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한 희생의 길이었다. 왜냐면 이 길의 세부적인 일이 죽음의 순간까지 선명하게 내 눈앞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고통을 알았지만, 의식적으로 이 길을 갔다. 그러나 나는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아주 큰 위험을 눈 앞에 보았고, 측량 할 수 없는 죄짐과 이로 인한 효력이 마치 뭉쳐진 짐처럼 내 어깨 위에 있었고, 만약에 내가 이 짐을 내려놓으면, 내가 내 권세와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인류가 이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죄짐이 영원에 영원 동안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복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나는 모든 인류의 고통을 내 영의 눈으로 보았고, 불행한 영적인 존재들을 궁휼히 여겼다. 그러므로 나는 인류의 죄 짐을 대신 지고 골고다의 길을 갔다. 나는 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스스로 짊어 졌다. 이 죄는 아주 크기 때문에 단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으로 속죄가 가능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을 위해 고통당하고, 죽으려고 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절대로 이 고통을 줄이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 사람들은 절대로 내 궁휼의 역사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나를 믿는 너희들도 내 신성을 알고, 이 신성으로 또한 가장 큰 고통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안다. 그러나 나는 인간으로서 고통당하고 죽었고, 사람이 단지 견딜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나에게 주어졌고, 나는 혼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고난을 당했다. 내 원수는 단지 육체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아주 끔찍하고 미움이 가득한 말들을 했고, 내 혼은 이를 지옥의 표현으로 깨닫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는 견디었다. 그들이 그들의 엄청난 죄 짐을 스스로 져야만 했다면, 이를 위해 그들에게 영원에 영원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사람들의 고통을 나는 인간 예수로서 지나쳐 버릴 수 있었다. 내가 이런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질 수 있는 한, 내가 짊어짐으로써 나는 고통을 피하게 해주기를 원했다. 내 사랑이 인류의 큰 위험을 지나쳐 버릴 수 없었고, 내 사랑이 도우려고 했고, 내 사랑이 모든 종된 자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했고, 내 사랑이 모든 죄인들에 대한 용서를 간청했고, 내 사랑은 속죄를 행하려고 했고, 그러므로 자신을 하늘의 아버지께 제물로 드렸다.

그러나 사람들이 드려진 제사를 인정해야만 하고, 나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부른다: 내 제사가 헛되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 아주 큰 죄 짐이 있음을 깨닫고,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라. 내 십자가의 제물이 너희를 위해 드려진 것으로 영접하라. 너희를 골고다의 십자가 아래에 두라.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너희를 위해 헛되지 않게 하라. 너희의 모든 죄를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게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를 영접하게 하라. 너희 모두는 내가 너희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흘린 내 피로 구원을 받으라.

아멘

고난과 죽음.

B.D. No. 6233

1955년 4월 9일

십 자가의 내 고통과 죽음은 피할 수 없었고 나는 잔을 마지막까지 마셔야만 했다. 너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는 구속사역이 너희를 위해 이뤄지게 하려면, 나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만 했다. 너희의 불쌍한 상황에 대한 깨달음이 단지 내가 이런 희생을 하게 만들었다. 왜냐면 내 심장이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고 이런 사랑이 너희의 육체의 죽음 후에 너희를 기다리는 끔찍한 운명을 너희가 벗어나게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끔찍한 운명을 알고 있었고 빛의 나라의 축복과 어두움의 나라의 고난과 고통이 내 눈 앞으로 지나가게 할 수 있었고 내 사랑이 타락한 형제인 너희에게 향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끔찍한 운명을 피할 수 있게 하는 탈출구를 찾았고 나 자신이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갔다. 나에게 이 땅에서 행해진 일은 전체의 죄짐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를 단지 비유한 일이었다. 그러나 내가 아주 큰 사랑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압박과 고통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를 땅에 쓰러지게 했던 짐을 짊어졌다.

내 몸이 단지 견딜 수 있는 고통을 나 자신이 짊어졌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죄짐을 지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피할 수 없게 해결해야만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짐을 너희를 위해 해결하기를 원했다. 나는 고통을 겪으며 싸웠고 진실로 피를 흘렸고 지옥의 모든 깊이를 보았고 두려움과 공포가 내 혼을 흔들었고 나는 너희 자신이 겪어야만 하는 모든 것을 견뎌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죽음의 순간까지 버틸 힘을 나에게 주었다.

내 고난과 비교할 만한 고난은 없고 아무도 이런 정도의 고난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유의지로 나 자신을 제공했다. 왜냐면 내가 단지 이 방법으로만 너희가 사탄의 사슬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전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았고 이 짐을 짊어지고 의식적으로 십자가가 최종적인 목표인 길을 갔다. 그러나 나는 이런 지식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절대로 기뻐 할 수 없었다. 나는 혼들에게 부과 된 불행을 보았고 내가 실패하고 그들에게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이 땅의 삶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보았다. 이런 지식이 내 의지를 강하게 했고 이로써 내가 저항하지 않고 이 땅의 내 삶의 목적이자 목표인 내 운명에 내 자신을 맡겼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까지 투쟁해야만 했고 마지막까지 짐이 아주 심하게 짓눌러 내 힘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이 인간의 연약함보다 더 강했다. 내가 말할 수 없게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날이 너희 사람들을 위해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이 되었다. 내가 이를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인내하며 견디게 했고 이로써 마침내 다음과 같이 외칠 수 있었다: "다 이루었

다." 내 혼은 내 혼이 나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왜냐면 내 죽음을 통해 나를 한때 생성되게 한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을 이뤘기 때문이다.

아멘

인간 예수의 자유의지.

B.D. No. 7992

1961년 9월 15일

人 자가의 내 고난과 죽음도 마지막까지 자유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 왜냐면 내가 실제 이 일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들의 미워하는 생각을 나에게 실행에 옮기려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내가 완성한 역사는 내 전적인 자유의지가 이룬 역사이고 나는 이웃들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죽을 자세가 되어 있었다. 왜냐면 인간 예수로써 나는 한때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전 인류가 처해 있는 끔찍하게 처량한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내 사랑이 타락한 모든 내 형제들을 돋기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아버지께 속죄의 제사로 제공했다.

나는 그렇게 행하도록 전혀 강요받지 않았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는 내 의지를 정하지 않았다. 나는 나로부터 울어 나와 전적으로 자유롭게 행했고 이런 역사는 나에게 끔찍하게 어려웠다. 왜냐면 내가 구속사역이 남김 없이 완성되기까지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으로써 아버지께 가장 깊은 고난 가운데 그가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기를 기도하고 싸웠고 나는 강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전적으로 아버지께 드렸다. 왜냐면 내 안의 사랑이 아주 강력했기 때문이고 영원한 사랑 자신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랑이 인간으로써 내 의지가 이 역사에 저항을 했었다면 불가능했을 내 역사 가운데 나를 정하게 했다.

불행한 인류를 향한 사랑이 나를 이끌었고 나는 그들을 돋기를 원했다.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너희가 측량할 수 없는 정도의 고난을 짊어지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짊어진 죄는 측량할 수 없었다.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인간으로써 측량할 수 없게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짊어져야만 했다. 사랑은 힘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었다. 만약에 사랑의 힘이 십자가 상에서 내 육체의 죽음으로 역사가 완성되고 내 십자가의 제사를 영접하고 구속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보장이 되기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으면, 진실로 내 육체가 이미 이 전에 죽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와 내 구속사역을 인정할지는 다시 사람들의 자유의지 자체에 달려 있다. 왜냐면 모든 존재가 자유의지로 스스로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 존재가 인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깨닫고 예수 안의 나 자신을 깨닫고 스스로 자유의지로 자신과 자신의 죄를 나에게 맡기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나에게 돌아오기 원하면, 존재들이 다시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이 의식적으로 내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고 자신의 연약한 의지가 강하게 되는 일을 체험하게 되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보장 된다.

그러나 내가 인간으로써 짊어졌던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의 아주 큰 죄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 예수가 사랑으로 충만했고 자유의지로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가장 힘든 희생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제사로 만족하고 그의 타락한 형제들을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원했던 예수의 큰 사랑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했다. 나는 이 제사로 만족했고 그러므로 내 공의가 만족되었다. 왜냐면 속죄가 없이는 내가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속사역은 자유의지로 완성이 돼야만 했다. 나는 어떤 존재 안에서 필요한 속죄를 행하게 요구할 수 없다. 왜냐면 나를 떠난 큰 죄는 내 사랑에 대적하는 죄였기 때문에 속죄는 다시 사랑의 역사 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인간이 예수 안에 있었고 예수는 사랑에게 큰 공간을 제공해 그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사랑이 이제 그가 구속사역을 이루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사랑이 죄를 용서했다.

사랑이 한 사람의 심장을 전적으로 채웠고 이 사랑이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고 나 자신이 인류를 위해 고통을 당했고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예수 자신이 모든 고난을 짊어졌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을 자유의지로 행했다. 왜냐면 사랑은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가장 큰 희생 제사를 드릴 준비되어 있고 사랑은 모든 일을 이루게 한다. 왜냐면 사랑은 가장 큰 고난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사랑으로써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역사했고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했다.

아멘

성 금요일 1951년 3월 23일

B.D. No. 5092

1951년 3월 23일

그리스도의 고통.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비슷하게라도 이해하게 해줄 수 없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들의 온전하지 못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죄의 희생자가 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들의 악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은 그에 대항해 어떤 의미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빛의 혼이 지옥에서 나온 것에 몸을 떨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혼은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더러운 것과 사람들의 악의에 의해 그는 공포를 느꼈다. 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혼이 몸에게 가해진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

혼은 어두움 속에 있었고 혼의 빛은 어두움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럴지라도 혼이 어두움을 피해 도망치지 않았다. 왜냐면 혼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잔을 끝까지 마시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혼은 스스로 자신의 빛을 버렸다. 버리지 않았다면 인류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예수의 사랑이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원했던 일이 혼에게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혼은 자신의 빛이 역사하지 못하게 했고 어두움 가운데 거했고, 이 어두움이 혼

을 아주 괴롭히고 두렵게 했고, 혼의 고통을 천 배로 크게 했다. 왜냐면 혼이 받는 고통이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온전하게 된 사람이 단지 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는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의 죄 가운데 거했다. 그의 나라는 빛의 나라이고, 세상은 사탄의 나라였다. 이런 사탄의 나라에서 빛의 혼이 폭력을 당했다. 이 땅에 살았던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였던 혼이 해아릴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지옥에서 혼에게 손을 펼쳐 혼을 사로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혼을 끔찍하게 놀라게 한 손이 자신을 붙잡게 해야만 했다. 혼은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 혼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세계를 떠나 무방비 상태로 어두움에 자신을 맡겼다. 이런 일은 구속역사를 성취하려는 자신의 영원한 의지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적게 끔찍한 일이 아니었다. 왜냐면 혼이 겁에 질렸고 쓰러질 정도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외쳤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혼은 이 순간에 더 이상 자신의 사명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고, 혼은 자신이 갈망하고 자신의 고통 가운데 외친 하나님과 빛으로부터 단지 분리된 것을 느꼈다. 이런 일은 인간이 이 땅에서만 견뎌야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잔인한 일이었다. 왜냐면 그가 육체의 고통을 견뎌야 할뿐만 아니라 혼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인류는 이런 혼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힘든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예수가 견뎠던 수준의 고통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런 고통에 대해 알았고 그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기도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는 일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그의 혼의 의지였고, 혼이 자신의 운명에 순종했다. 왜냐면 고통받는 인류를 향한 사랑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죄짐이 아주 커서, 단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속죄의 제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인간 예수가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그가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의 몸과 혼이 스스로 짊어진 모든 고통의 깊이를 해아릴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사랑의 깊이를 해아릴 수 없다.

아멘

고난의 금요일.

B.D. No. 7083

1958년 4월 4일

내가 너희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한 너희를 향한 내 끝없는 사랑을 항상 생각하라. 이웃의 가장 큰 영적인 위험을 알았던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체험하고 견뎠던 일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행했다. 그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큰 죄짐과 도움이 없이는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고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이를 알게 된 것은 그의 사랑의 삶의 결과였고 그러므로 그는 인류를 궁휼히 여겼고 돋기 원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자신의 사랑을 결과로 나 자신이 그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로써 그가 나 자신의 곁형체가 되어 나를 섬겼고 나 자신이 큰 죄짐을 사하는 구속역사를 그 안에서 완성할 수 있었다.

그의 이 땅의 삶이 이런 사명을 합당하게 성취시켰고 그의 이 땅의 삶은 측량할 수 없는 위험과 고난의 길이었고 위험과 고난이 먼저 그를 성숙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이런 위험과 고난은 죄악 된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자체가 그의 혼에게 준 것이었다. 왜냐면 그의 혼은 빛의 나라에서 어두움의 나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을 담고 있는 이 땅의 형체는 먼저 고난과 위험을 통해 정화가 돼야만 했고 혼에게 불어있는 정욕과 욕망에 대항해 계속해서 싸우는 일을 통해 정화가 돼야만 했다. 이로써 나 자신이 그 안에서 모든 충만함으로 임하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고 내가 그 안에 전적으로 모두 거했다. 즉 내가 그와 하나가 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고유의 사명을 행했다. 즉 그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진리를 선포했고 사랑의 복음을 설교했고 그들이 그들의 죽음 후에 빛과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면, 그들이 가야만 하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비교할 수 없는 궁휼의 역사를 써 그의 가장 혹독한 고난의 길인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이 땅의 길을 마쳤다.

한 사람이 실제 이런 사명을 성취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그 사람 안에 거했고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이런 희생제사를 드릴 능력이 있었고 사랑이 단지 십자가의 길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고 사랑이 단지 그가 죽을 때까지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부르짖었을 지라도 그러나 이 부름은 단지 그 안의 신성이 그에게 행하게 강요하지 않고 인간 예수가 전적인 자유의지로 자신의 이웃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음을 증명하고 자신 안의 사랑이 그가 실행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런 사랑이 그의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인간 예수가 인류의 모든 죄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갔다. 너희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말의 모든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 나 자신이 궁휼의 역사를 완성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사랑이 없이는 이런 정도의 고통과 고난을 짊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성은 고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고통과 고난의 정도를 견딜 수 있는 혼이 견뎌야만 했고 동시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했다.

그의 혼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왜냐면 그의 혼은 빛의 나라에서 왔고 이 땅의 어두움이 혼에게 이미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내가 크게 기뻐한 내 아들이었다. 그는 모든 생각과 모든 그의 사랑으로 나에게 향했고 그는 죄악된 인류 가운데 살았다. 그의 혼은 쉬지 않고 자신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인 나를 구했다. 그의 사랑이 내가 그 안에 제한이 없이 부어주게 강요했다. 이로써 인간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또는 하나님의 인간이 되는 일이 전적으로 질서에 합당하게 이뤄졌다. 왜냐면 나 자신이 순수하지 못한 것과 연결될 수 없고 내가 절대로 전적으로 사랑이 아닌 인간의 겉형체를 거하는 장소로 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성숙하지 못한 입자는 인간 예수의 고난의 길을 통해 영화되었고 동시에 모든 인류를 위해 죄짐을 해결했다. 왜냐면 한 사람이 사랑으로 자신의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나 자신을 영화롭게 했다. 나는 그를 영원히 볼 수 있는 나 자신의 겉형체로 택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합당하게 자신을 만든 내가 창조한 모든 존재를 위해 나 자신이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신성이 되면서 그를 영화롭게 했다.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항상 단지 구속사역을 통해 너희가 자유롭게 되게 도운 내 끝없는 사랑을 의식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빛에 나라에 들어가고 한때 그랬던 것처럼 깨달음의 빛이 너희에게 다시 비추어 지면, 너희는 비로소 이런 궁휼의 역사의 모든 깊이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자신도 이 역사에 참여할 것이다. 너희는 이 역사를 현재의 일로 체험할 것이고 너희는 이제 비로소 한때 나를 떠난 큰 죄로 인해 길을 잃었던 사랑의 자녀들을 다시 얻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 내 끝없는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멘

십자가 상의 주님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

B.D. No. 7758

1960년 11월 28일

나는 너희의 사랑을 갈망한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한 말을 생각하면, 내 말이 단지 육체적인 욕망이 아니라 내 혼이 내 피조물의 사랑에 목말라 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인간 예수 안의 “신성”이 자신이 표현했다는 것을 알라. 나는 내가 너희의 죄짐을 해결한 후에 너희를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할 너희의 사랑을 목말라 한다. 너희는 먼저 너희 안에 사랑이 살아나게 해야만 한다. 이로써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깨닫고 인정하고 이제 구속역사의 이유를 알게 돼야 한다. 왜냐면 사랑이 단지 너희에게 이런 지식을 줄 수 있고 너희가 단지 사랑 안에서 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말을 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이미 나와 하나가 되었고 그러므로 고통받는 몸에서 나온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설명한대로 신성이 자신의 피조물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인간 예수는 자신이 이 말을 한 줄도 몰랐고 나 자신이 사람들이 단지 말씀의 세상적인 의미를 이해하도록 표현을 했다. 왜냐면 신성이 이런 초인간적인 고통을 허락한 일과 원죄를 갚기 위해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일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한때 내 사랑을 거부하고 스스로 사랑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죄를 지었다. 나는 이런 존재들의 사랑을 원했고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존재들 자신이나에게 돌아올 자세가 있으면, 그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했다. 이런 자세는 사랑을 전제로 한다.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얻는다면, 사람들은 자진해서 나에게 돌아오고 돌아올 수 있다. 왜냐면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서 예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가 간절히 원했던 사랑이 너희를 그에게 인도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떠나 타락한 후로 내가 간절히 원했던 사랑을 나에게 드리게 된다. 사랑이 너희를 생성되게 했고 사랑이 너희가 의지의 시험을 치르게 했다. 왜냐면 너희가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내 자녀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깊은 곳까지 너희를 뒤따라 갔고 내 사랑이 너희를 위한 구속역사를 완성했다. 너희는 이런 역사에 대해 단지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드리면 된다. 단지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느낄 수 있는 모든 긴밀함으로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드렸을 때 너희의 죄는 해결되었고 나에게 돌아가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내 사랑의 희생 제사가 너희 안에 사랑을 타오르게 했고 너희는 희생 제사를 희생 제사로 깨달을 수 있었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어두움에 묶여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 신적인 사랑의 가르침은 나에게 향하는 길을 알려주고 이 가르침을 따르는 일은 또한 너희에게 너희의 본성을 사랑으로 다시 바꾸는 일을 의미하고 너희가 이제 다시 나와 최종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고 이로써 또한 너희의 사랑에 대한 내 갈망을 성취시킨다.

아멘

십자가 상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B.D. No. 7764

1960년 12월 5일

나는 너희가 갈망하는 것을 항상 나누어 주기 원한다. 너희는 단지 너희 안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이 음성이 진리에 합당하게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진리 안에서 서기를 원하고 선명한 개념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 사람들에게 구속을 주었고 너희가 한때 지은 죄짐을 용서해주었다. 나는 인간 예수로써 가장 큰 고통을 스스로 짊어졌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 내 운명이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서 고통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에게 나에게 향하는 길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이웃을 위해 고난을 당하려는 의지를 가진 인간적인 형체 안에 거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하게 만든 것은 그의 자유의지였다. 비록 사랑이었던 나 자신이 그가 이런 의지를 갖게 만드는 동인이 되었을 지라도 그는 자신 안에 거하는 신성에 이끌려 그가 나에게 드리기 원했던 그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 자신이 사람의 의지에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고 내 사랑도 어떤 강요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빛이 발산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사랑을 발산했고 그는 단지 사랑을 발산하는 일을 통해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이웃들이 축복받게 도울 수 있는 일을 원했다.

인간 예수의 의지는 자유 했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전적으로 나와 내 뜻에 복종했다. 그러므로 그의 의지가 내 의지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될 수 없었다.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아주 강하여 이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했고 나 자신이 그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그럴지라도 인간 예수는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에 들어설 때 마지막 결정을 스스로 해야만 했다. 이로 영원한 사랑인 내가 그 안에 있었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은 뒤로 물러섰다. 다시 말해 사랑이 그리고 영이 더 이상 그로 하여금 그가 행하게 재촉하지 않았다. 영은 조용하게 처신했고 인간 예수는 겉으로 보기에 자신의 싸움 가운데 홀로 있었다. 인간 예수가 그의 고통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을 느끼고 그럴지라도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간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왜냐면 내가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된 그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면 큰 죄를 용서하기 위해 아주 큰 인간적인 고난과 고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을 인간 예수는 자원해 자신이 짊어졌다. 그러므로 구속의 제사는 이 땅에서 행하여진 모든 사랑 가운데 가장 긍휼을 가진 사랑의 역사였다. 이런 고통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고 그가 다음과 같이 부르짖게 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해 나를 떠나십니까?" 나는 그 안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말하였을 때 그의 혼이 나를 다시 깨달을 때까지 고통 당한 것은 단지 육체였다.

육체는 마지막까지 고통을 당했다. 나는 이 시간까지 뒤로 물러섰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영화 된 혼이 육체를 고통을 느낄 수 없게 했을 것이다. 왜냐면 나로부터 온 영은 고통을 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그의 이 땅에 삶을 통해 혼과 육체의 영화에 이미 도달했다. 그러나 그의 이 땅의 과정의 목적과 목표는 단지 아주 큰 정도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가능한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신성이 뒤로 물러서고 인간 예수를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맡겨 두었다. 그들은 내 대적자의 명을 받아 진실로 가장 악한 일을 행했다. 왜냐면 예수 자신이 그렇게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1960년 12월 5일)

왜냐면 그의 혼이 이 땅에 임해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혼은 바로 이런 측량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자신이 짊어지도록 육신을 입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다. 왜냐면 단지 인간이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제사를 받아들이고 절대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는 사랑을 주었다. 비록 사랑이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을 지라도 사랑은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그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비록 사람이 자신의 이웃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게 하는 제사를 그가 실제로 드리는 구속사역이 최고점에 도달하도록 내가 조용하게 처신했을지라도 나 자신이 그 안에 있었고 내가 이런 제사를 모든 인류의 죄짐을 위한 속죄의 역사로 받아드렸다.

신적인 능력이 그의 희생제사를 쉽게 만들어 주지 않았다. 왜냐면 사랑 자체가 비록 전적으로 모든 인간 예수를 소유하게 되었을지라도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 사람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하내 비밀이다. 인간 예수가 체험해야만 했던 자신이 혼자 남겨지고 버려진 것처럼 느낀 일은 가장 큰 고난이었다. 바로 이런 고난이 모든 존재가 나를 떠날 때 지었던 죄를 용서했다. 나는 내 모든 사랑을 존재에게 선물했고 존재가 이 사랑을 거절했다. 인간 예수는 이런 아주 큰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는 부르짖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해 나를 떠나십니까?"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구속사역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 눈에 벗들이 벗겨지면, 너희는 나를 찬양하고 끊임없이 칭송할 것이다. 왜냐면 이 구속사역이 너희 모두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이고 너희 모두가 구속사역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고 너희 모두에게 구속사역을 통해 나에게 향하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이다.

아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B.D. No. 8201

1962년 6월 27일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충만했다. 모든 고난을 묘사하는 일은 단지 내가 고통 당한 것에 비하면 연약한 비유일 뿐이다. 왜냐면 내가 구속사역의 모든 단계를 미리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지막 과제가 무엇인지 알았고 나에게 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어떠한 위로도 없었다. 왜냐면 나는 마지막 시간을 단지 인간으로써 견뎌야만 했기 때문이다. 나는 실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마지막까지 나를 채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은 내 의지 의해 더 이상 사랑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 능력이 나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또는 없애기 위해 나 자신에게 더 이상 역사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주 큰 인류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고난이 요구되는 구속사역이 전적으로 유효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내 안의 신성은 내 의지를 알고 있었고 스스로 뒤로 물러서면서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왜냐면 가장 큰 위험과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특별히 내 육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간절히 사모했던 내 아버지를 향한 내 사랑과 다시 사람들을 향한 내 사랑을 최고로 높은 정도로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간절한 소원은 증가되었다. 왜냐면 내가 그의 역사와 그의 사랑의 힘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영원한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 가운데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 자신이 인간으로서 죄악 된 인류를 위한 궁휼의 사역을 끝까지 실행하기를 원했다. 왜냐면 내가 나 자신을 아버지 대신에 십자가에 못박게 하는 일은 내가 아버지에게 증명할 수 있

는 가장 큰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아버지 자신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해 내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넘겨 받아 마지막까지 견디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려고 자주 시도할지라도 너희는 너희가 빛과 축복의 나라이 영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를 절대로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항상 단지 가장 간단한 설명을 해주는 말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전적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인간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 그는 인간으로써 고난을 당했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충만한 죽음의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신성과 하나가 되었다. 왜냐면 사랑이 마지막까지 인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는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행위를 모르고 있나이다."

사랑이 조용히 처신하면, 이렇게 하는 일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가 세 번째 날 무덤으로부터 부활하기 위해 그의 육체가 무덤에 놓일 수 있게 하는 일이 구속사역을 완성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일은 결국 사람들이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심할 수 있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의 나와의 연결을 깨달았을 것이고 구속사역에 대한 믿음이 이제 강제적인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속사역에 대한 믿음은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이 돼야만 한다.

너희는 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너희의 영을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하나로 만들 때 이것이 너희 안에서 밝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이제 항상 너희 혼의 성장 정도와 사랑의 정도에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게 너희에게 설명해 주려고 시도하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구속사역이 너희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해주고 이를 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내 큰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내 사랑이 너희 사람들과 너희 죄짐을 위해 이 땅에 임했고 내 큰 사랑이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너희에게 다시 자유롭게 만들어 주고 너희의 큰 죄짐을 속죄해주기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왜냐면 너희의 큰 죄짐이 너희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영원히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고난의 금요일

B.D. No. 8964

1965년 4월 16일

내가 내 어깨에 지은 죄짐은 측량할 수 없게 무거웠고 마찬가지로 단지 큰 속죄제사로만 용서받을 수 있었다. 이 속죄제사는 나에게 십자가의 길이였고 아주 큰 고통이 충만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고 이는 넘치게 큰 고통이었다. 너희 사람들은 이 고통의 크기를 비슷하게라도 상상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난 것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항상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던 나는 혼자서 영원같이 생각되는 이 길을 가야만 했다. 그렇더라도 나는 이 길을 끝이 없는 사랑으로 가기로 했다. 왜냐면 나는 인류를 긍휼히 여겼고 내

가 단지 나 자신을 제사로 드리는 일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교수형 집행자의 무자비함을 체험해야만 했고 모든 지옥의 세계가 이에 동참을 했다. 그럴지라도 나는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대항해서는 안 되었다. 왜냐면 이 구속역사는 자유의지의 역사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단지 인간으로서 이런 고통의 길을 내가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할 수 있고 구원사역을 완성시키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단지 기도하면서 고통과 굴욕을 견뎌야만 했다.

너희가 내 십자가의 죽음을 볼 수 있게 되면, 너희는 저세상에 가서야 내가 견뎌야만 했던 고통과 굴욕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내 고통에 대해 묘사할 수 있는 개념이 없다. 왜냐면 아주 작은 크기로 내가 받은 고통이 너희 자신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이미 생명을 잃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를 구속하려는 내 의지가 커서 이 의지가 나에게 모든 최고의 고통을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식적으로 견디었고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나이다. "

그들은 인류를 모든 죄 가운데 구원하려는 내 안의 아버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인간인 나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기 위해 단지 나로부터 뒤로 물러섰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단지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했다. "다 이뤘다." 이로써 나는 이 역사가 영원 전부터 정해진 역사였고 단지 실행되었다는 것을 말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역사의 효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한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존재가 구속을 받게 되었다. 너희가 인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저세상에서 영원히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누구도 체험할 수 없고 끔찍한 고난을 헤아릴 수 없다. 왜냐면 헤아리기 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큰 고통은 단지 그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고 구속사역을 위해 빛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그의 순수한 혼이 더 많이 고통을 당했다.

순수한 혼에게 죄의 구덩이 가운데 거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와 온전한 혼이 온전하지 못한 피조물들 사이에 거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단지 혼 자신이 빛의 나라에 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예수가 죄악 된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실천한 이 깊은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게 되고 경외심으로 전율하면서 모든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신 분께 찬미와 찬송을 드리게 될 것이다.

아멘

다 이루었다.

B.D. No. 7668

1960년 8월 7일

너희 죄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게 한 분이 진실로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하는 역사를 완성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세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모든 인류를 긍

훌히 여기고 그들이 이제 다시 나에게 귀환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그들의 죄를 속죄했다. 나에게 귀환은 한때 나를 떠나 깊은 곳으로 타락한 원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각각의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나 자신이 인간의 겉형체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을 내가 항상 또 다시 강조해야만 하고 내가 영원으로부터 사랑 자체이고 이 사랑이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항상 또 다시 강조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모든 깊이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을지라도 너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역사는 단지 인류가 자신의 엄청난 죄를 깨닫고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죄를 남김 없이 해결하기 위한 단 일회적인 역사이고 단 일회적으로 남게 될 특별한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게 일어났고 죄를 남김 없이 해결하는 일이 이뤄졌다. 이로써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동안에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죄짐으로부터 그가 자유롭게 될지는 단지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게 되었다.

구속사역은 모든 시간을 위해 완성되었고 이 역사는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고 이 역사는 한때 타락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구속을 위해 충분하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들을 영접했기 때문이고 나 자신이 내 사랑 때문에 죄를 용서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공의 때문에 죄에 대한 속죄를 행했다. 인간의 겉형체인 예수가 견뎌야만 했던 끔찍한 정도의 고난은 나에게 속죄로 충분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안의 사랑이 그를 돋지 않았으면, 인간 예수만으로는 이런 정도를 견딜 수 없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이런 구속역사가 단지 일회적이고 일회적으로 남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왜냐면 구속역사의 구속하는 효력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직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론될 것이다.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일이 항상 사람들이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진실로 어떠한 다른 속죄의 제사도 필요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모든 시간을 위해 이 역사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만족해야 하고 너희의 관점을 내 구속사역에 부합될 수 없는 사탄적인 역사를 돌려서는 안 된다.

왜냐면 내 구속사역이 절대로 완성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유일한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을 축복의 길로 가르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의 구속을 방해하기 원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깨닫고 인정하기 원하는 나를 떠나게 하려는 세력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대적자는 빛의 천사의 옷을 입고 자신을 소개하는 법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가 드러나게 하는 일이 너희에게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적자인 그를 잘 알고 그의 원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올바른 생각을 구하고 모든 영적인 위험 가운데 도움을 구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러면 너희는 올바른 길로 인도받고 이로써 너희의 구속이 분명해질 것이다. 너희는 선명하고 확실하게 너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 것이고 어떻게 어디에서 너희에게 위험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죄로부터 너희를 구속했다. 왜냐면 내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죄에 대한 속죄이기 때문이다. 이런 속죄를 행한 일이 내 대적자에 의해 약화될 수 없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항상 역사해서 너희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게 하려고 너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왜냐면 종말의 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잘못 된 길로 인도하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믿음 안에서 강해야 하고 너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육체와 혼의 모든 고난과 위험 가운데 이제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부르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속죄.

B.D. No. 6513

1956년 3월 30일

내 가 짊어진 인류의 죄는 말할 수 없게 무거웠다. 악한 행동은 그의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쳐야만 했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죄 값을 치러야만 했다면, 너희는 측량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한때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한가지가 이미 아주 커서 너희는 이 죄를 묶여 있는 상태나 또는 인간의 상태에서 속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졌고 모든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내가 감당했다. 나는 모든 것을 인간의 내 육체로 짊어졌고 내 육체가 아주 고통이 충만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너희의 죄를 속죄했다.

내 사랑이 너희들 둘째 했다. 모든 빛이 충만한 영적인 존재들과 나에게 신실하게 머문 모든 창조 된 원래의 존재들은 너희를 향한 같은 사랑으로 충만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것도 멀망을 받게 놔두지 않고 사랑은 어떤 것도 어두움과 위험과 고통 가운데 놔두지 않고 사랑이 큰 죄를 사해주고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다. 사랑 자체가 빛과 사랑이 충만한 존재 안에 거하면서 이 땅에 임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나야 하는 일은 인간적인 형태로 일어나야만 했고 사랑이 인간의 곁형체를 입어야만 했다. 나 자신이 육신을 입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 안에서 거했다. 그럴지라도 인간 예수는 죄가 없이 순수했고 내가 그 안에서 나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인간 예수가 너희 죄를 속죄했다. 인간 예수가 거대한 인류의 죄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갔다.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비 인간적인 고난을 이야기할지라도 너희는 이 고난의 모든 깊이를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성품의 부족함이 이를 깨닫는 일을 막기 때문이다. 그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었고 그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런 고난을 알고 있었다. 왜냐면 그는 내가 그 안에 거했던 내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모든 것을 알았고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다.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혼은 떨고 요동했고 사랑을 통해 도달한 신성이 그에게 실제 힘을 주었지만 그러나 이 힘이 고난의 정도를 줄여주지 않았다.

자신의 이웃을 위해 고난 받기 원한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 왜냐면 그가 내 대적자에 의해 깊은 곳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대적자로부터 혼들을 구매하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고 죄가 있는 자녀를 아버지 집

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큰 죄짐이 속죄돼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 자녀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했고 죄가 아주 컸기 때문에 희생제사도 특별하게 커야만 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아주 큰 고통을 자신이 짊어졌다. 그러므로 그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자신에게 임하게 했고 그는 의식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갔고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인류를 위한 이런 큰 긍휼의 역사를 헤아려보는 일은 너희 사람들에게 아직 불가능하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또 다시 그가 전적으로 죄가 없었다는 것과 너희를 위해 고통을 당했고 너희가 그의 구속사역이 없이는 절대로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고 사랑이 인간 예수 안에 충만했다. 이런 사랑이 없이는 그는 절대로 이런 역사를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인간 예수 안에서 그의 가장 어려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조용하게 처신해야만 했다. 왜냐면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고 그 안의 신성은 고통을 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성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속죄가 없이는 죄를 용서해줄 수 없다.

너희 사람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너희는 언젠가 이 일의 모든 깊이로 헤아려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런 가장 큰 긍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 예수가 인간이 되는 일을 통해 너희의 영역에 거했다. 그러므로 높은 곳의 빛의 나라로부터 내려온 그의 혼은 가장 깊은 어두움을 보고 지옥의 권세들에게 공격을 당하며 끔찍하게 고통을 당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혼의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혼의 고통이 그의 고통을 천 배나 더 크게 했다. 그러나 그는 너희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주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B.D. No. 6600

1956년 7월 20일

내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한 구원의 시대가 끝나게 되었고 이때까지 희망이 없었던 상태가 끝나게 되었다. 왜냐면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내가 십자가의 죽을 때까지는 불가능했기 때문이고 사람의 혼이 최선을 다할지라도 단지 정화되는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고 한때 나를 거절한 죄를 남김없이 처리하는데 영원에 영원의 시간 걸릴지라도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죄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도록 강요받았다. 고통당하는 혼들이 자신들의 위험을 깨닫는 가운데 한 구원자를 향해 부르짖었다.

인간의 죄를 위해 내가 내 생명을 드린 순간부터 내 대적자의 권세는 파괴되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전적으로 구속받은 혼들은 그들의 기준의 처소를 떠나 내가 열어놓은 문을 통해 복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 혼들

이 항상 또 다시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고 항상 또 다시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고 한 구원의 시대가 이제 실제 시작이 된다.

비록 창조적인 성장과 이 땅의 삶이 남김 없는 구원을 위해 필요하고 항상 또 다시 전적으로 나에게 귀환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선행조건을 먼저 충족시켜야만 할지라도 이때부터 혼들이 전과 같이 빛과 힘을 가진 가운데 살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선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사람들을 위해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놓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들이 나와 내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 자유의지로 내 대적자의 권세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로써 그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사람의 혼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아직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운명인 자유가 없고 빛이 없이 단지 연약함과 고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구원자가 위로부터 사람들에게 임했지만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를 깨달았다. 그러나 구원사역은 완성되었고 빛의 나라를 향한 문이 열렸다. 그러므로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비록 이 땅에서는 특별한 나타남을 볼 수 없을 지라도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왜냐면 당시의 희망이 없는 상태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그에게 향하고 사랑의 제사를 영접하면서 죄 사함을 받는 일을 통해 변했기 때문이다.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전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동안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이 지났다. 사람들에게 제공 된 엄청난 이 은혜는 활용되지 않고 더 이상 활용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적자의 세상에 묶여 있다. 왜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얻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 자신이 자유의지로 자유를 추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 하내 경계선이 세워져야만 하고 구속의 사역이 높이 평가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 자신의 의지가 구속사역의 효과가 나타나게 허용하면, 구속사역의 효과가 변화되지 않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자들은 다시 모든 끔찍한 감옥의 묶임을 체험해야만 한다. 이로써 언젠가 그들 안에 자유하고 복된 상태와 빛에 대한 열망이 깨어나게 돼야 한다. 이런 존재들이 십자가의 빛을 볼 수 없게 하는 흑암 가운데 가두는 내 대적자로부터 존재들에 대한 권세를 빼앗아야만 한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멈추지 않고 영적인 존재들의 위를 향한 성장이 이뤄진다. 새로운 혼들이 항상 또 다시 이 땅에 임하고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자유롭게 할 기회가 제공 된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내 구속사역의 은혜를 혼들에게 부어주고 이런 혼들이 항상 또 다시 내 자녀로서 나에게 돌아온다. 한때 타락했던 영적인 존재들을 위한 구원역사가 완성되었다. 구원의 역사는 남김 없는 구원을 이를 때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에게 역사했고 역사하게 될 것이다.

아멘

나는 모든 때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귀환이 아직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언젠가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그들이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가는 때가 온다. 이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그들에게 보장되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면 사람이 깊은 곳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가 자유의지로 내 대적자를 따랐기 때문에 내 대적자가 그에게 부여하고 부여할 수 있는 사슬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되기 원하면, 사람이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서 얻은 은혜를 활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리면 되는 이런 헌신을 통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다시 깨닫는 아주 짧은 기간이 다가올 것이다. 이 짧은 시간이 인간으로써 이 땅에서 사는 과정이다. 이 가운데 존재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다시 돌려받고 이제 새롭게 결정해야만 한다.

그는 도움이 없이는 이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아직 그를 묶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구속사역을 통해 이런 결정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가능하다. 왜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만들려고 저항하기 위해 단지 사람들을 위해 얻은 은혜를 활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땅이 영적인 존재들 성장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인류에게 자신을 대적자의 권리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보장이 될 것이다. 왜냐면 희생 제사는 영원한 기간을 위해 드려졌기 때문이다. 희생제사는 절대로 과거에만 속한 일이 아니고 절대로 현재에만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미래의 구속사역도 단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 땅의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혼들이 성공할 것이다.

저세상의 나라에서 예수 안의 구속하는 능력을 아직 활용할 수 있다. 저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세주를 부를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내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즉 예수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일이고 이 것이 비로소 존재가 다시 축복되기 원하면, 언젠가 일어나야만 하는 내 대적자로부터 구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땅의 인간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이 번의 이 땅의 시대가 아주 축복된 시대이다. 이 시대 동안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나에게 귀환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는 강요받지 않고 절대로 강요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직 셀 수 없이 많은 창조물들이 생성돼야만 하고 또는 모두가 구속사역의 증거 앞에 서게 될 끝 없이 많은 창조의 시대들이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희생에 관한 지식을 십자가에서 얻은 은혜의 보물을 전할 것이다. 깨어난 사람들이 항상 또 다시 내 영을 통해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깨어난 사람들이 항상 또 다시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의미와 내가 이 땅에서 인간이 된 역사와 인간 예수가 하나님

이 된 것을 진리에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식은 이 땅의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전해질 것이고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긍휼의 역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구속을 받게 하지 않은 한때 타락했던 어떤 존재도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B.D. No. 8222

1962년 7월 24일

내 가 스스로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드린 십자가의 제물로 내가 너희를 위한 구속역사를 완성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나와 영원히 떨어져 있게 되었을 것이다.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심연이 있었고 너희 자신은 이 절벽 사이를 결코 넘을 수 없었을 것이고 내 나라가 너희에게 영원히 닫히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은 너희의 큰 죄가 속죄되기 전에는 내 공의가 너희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속죄는 인간 예수에 의해 이뤄졌고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거했다. 왜냐면 그의 순수한 인간의 곁형체가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일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고 내가 죄가 있는 사람 안으로 육신을 입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법과 피할 수 없는 내 공의에 따라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속죄하기 위해 빛의 혼이 자유의지로 이 땅으로 임해야만 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실제 사랑이지만 내가 최고로 온전한 존재라고 할 수 있기 위해 공의가 없이는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공의를 만족시켰다. 인간 예수는 타락한 피조물을 나에게 다시 데려오고 그들에게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향하는 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예수의 빛의 혼이 스스로 자신을 희생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다. 왜냐면 사랑이 구속역사를 이뤘기 때문이다. 사랑이 인간 예수를 전적으로 충만하게 채웠고 가장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짊어질 힘을 그에게 주었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힘을 그에게 주었고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게 했다.

인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분명히 그런 희생을 치르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무한 가운데 가장 큰 영인 내가 인간 예수의 곁형체를 입고 나를 나타냈다. 나는 인간 예수를 내 원래의 본질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웠고 그는 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존재들의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로 향하는 마지막 길을 갔을 때 단지 인간의 곁형체가 내 사랑의 힘이 역사하는 일이 줄였다.

내가 그 안에 있었고 그는 내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유의지로 자신의 혼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일을 성취했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는 나였고 내가 그였다. 나는 인간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이 되었다. 왜냐면 그는 전적으로 사랑으로 충만했고 사랑은 내 원래의 성분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큰 죄가 속죄되었고 너희 사람들이 이제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갑자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너희의 자유의지가 너희가 나를 떠나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올 자세를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이전에 지은 죄를 의식해야만 하고 예수 안의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짐을 가진 가운데 머물게 되고 너희는 빛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역사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고 인간 예수의 영적인 사명과 그 이유에 대해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가르침을 믿어야만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았다면, 너희가 스스로 구속역사에 대한 모든 깨달음 얻는 일 외에는 다른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결과는 항상 내 영이 역사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영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이런 일이 너희가 너희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의 자유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고 너희 자신이 준비 돼야만 하고 예수의 피로 구속 된 사람들의 무리 안에 속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구속사역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에게 돌아가는 길을 가는 가운데 있게 되고 예수가 너희를 위해 건설한 다리에 들어선 것이고 빛과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은 것이다. 예수가 구속사역을 통해 자신의 빛과 축복의 나라의 문을 너희에게 열어주었다. 예수 안에 나 자신이 거했고 내가 또한 너희를 위해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고 이로써 너희가 언젠가 나를 대면하여 볼 수 있게 했다.

아멘

1954년

B.D. No. 5934

1954년 4월 18일

부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면 그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말했다. 그들은 내가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믿었고 내가 실제로 진정한 하나님이었고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했다는 것을 믿었다. 나는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로써 나는 그들에게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말한 내 말이 진리임을 증명했다. 나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쳤다.

그러나 내 부활이 단지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돼야 하고 사람들은 죽음 후의 삶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마친 모든 각각의 혼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의 길을 갔다. 왜냐면 죽음 후의 삶을 믿는 믿음이 모두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선지자의 죽음을 가장 경건한 사람도 결국에는 죽는다는 예로 사용했다. 그들은 삶의 영적인 효력을 알지 못했고 혼의 부활을 의심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고 불편해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가르침을 따르는 일의 영적인 효력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이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은 사람들을 살렸다. 사람들은 나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통해 나에게 죽음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는 것과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은 비록 이 땅의 삶을 마칠지라도 생명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 땅의 육신을 부활시켜, 육신 안에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이 들어 있지 않음을 보여줬고 내가 영화되었음을 보여줬고 이로써 육신이 영적인 형체가 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다.

내 육체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전혀 없었다. 왜냐면 끔찍한 고통을 통해 전적으로 정화되었고 모든 이 땅에 속한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영적인 것이 전적인 생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체가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왜냐면 그 어떤 것도 육체를 이 땅에 묶어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육신의 죽음 후 다시 살아나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왜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과정을 모든 인류가 깨달아야 한다. 왜냐면 이를 깨닫는 일과 내 부활을 믿는 일이 내 신성에 대한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내 사명을 믿는 믿음과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실제로 진실로 죽음에서 부활했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나를 볼 수 있게 나타냈다. 이를 통해 나는 내가 사람으로서 죽음을 극복했다는 사실과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자가 구속역사를 통해 영적인 옷을 입은 내 육체를 이 땅에 묶어둘 권리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했다.

명했다. 이런 구속역사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 그러므로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을 받아 내 대적자의 세력을 벗어난 어떤 혼도 내 대적자가 끌어들 수 없게 되었고 혼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 혼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면 혼은 그의 구속자가 살아 있음을 알고 그의 구속자가 자기를 믿고 자기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3 일 후에 부활.

B.D. No. 6810

1957년 4월 20일

너희 사람들이 내 구속사역을 어떻게 고백하는 지가 너희가 죽음 후의 삶을 믿을지에 결정적이고 무덤으로부터 부활과 저세상으로 가는 일을 믿을지에 결정적이다. 왜냐면 구속사역인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3일 후에 부활을 통해 최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내 부활은 이 전에 내가 가르친 모든 가르침을 확인시켜주고 사람들에게 육체의 죽음 후에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사람이 내 가르침대로 산다면, 이제 영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사람들은 실제 이런 내 부활을 의심하고 단지 전설로 안다. 내 부활은 증명해줄 수 없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단지 믿거나 거부할 수 있다.

믿음도 또한 내 구속사역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효과이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았다는 증거이다. 왜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이다. 즉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내 육체가 볼 수 있게 무덤으로부터 일어난 일은 육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내 걸형체인 육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전적으로 영화되었다는 의미이다. 혼이 입은 것은 영적인 옷이었다. 내가 죽음에 대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모든 놀라게 하는 일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이 영적인 옷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내 이 땅의 삶은 사람들에게 깊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줘야 하고 나는 내 모든 가르침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과 연결시켰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믿는 믿음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나는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본다. 내 제자들 자신도 믿음이 연약했고 내가 나를 내 원수의 손에 맡겼을 때 그들은 죽음과 같은 두려움에 빠졌다. 그들의 믿음은 내가 죽음을 다스리는 자임을 믿을 정도로 아직 강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3일 후에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한 말을 믿지 않았다.

나를 가장 긴밀하게 따랐던 그들 모두는 큰 슬픔에 빠졌다. 그들이 내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해야만 했을 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다. 나는 그들을 돋기 원했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해주고 동시에 그들에게 내가 삶과 죽음의 지배자라는 증거를 주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혼들에게 해당이 되는 일인 혼은 죽을 수 없고 다른 세상에서 깨어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따라 저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해줬다. 혼은 육신을 떠난다. 그러나 육신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써 뒤에 남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음 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의 자유 때문에 그에게 증거를 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동시에 부활하게 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의 입자들이 영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3 일 만에 부활한 일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그들에게 3 일 후에 내 부활을 알려 주었고 그들의 성장 정도가 허용하기 때문에 단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내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내 육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 충분한 다른 이유들을 찾았고 그러므로 이런 일이 믿음의 강요가 되지 않았다. 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 사람들이 단지 내 육체를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육체도 내 십자가의 죽음 후에 더 이상 자연의 법칙 아래 놓이지 않게 되었다. 왜냐면 육체가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육체의 죽음 후에 육신의 입자들이 혼과 동화될 수 있는 성장 정도에 희귀하게 도달한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 단지 연약하거나 또는 잘못된 개념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먼저 받아야만 한다. 왜냐면 아직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전적으로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모든 부활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없애 버릴 것이고 그는 항상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내 구속사역과 내 부활을 그들에게 믿을 수 없게 묘사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전적으로 모두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3 일 후에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 영이 그에게 이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생각은 내 올바른 인도를 받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내 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찾은 모든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약속한 생명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을 벗어났다. 왜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도피했기 때문에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자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린 순간부터 이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고 그는 이제 비로소 생명력이 있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멸되지 않고 단지 그들의 세상적인 육체를 잃을지라도 그의 혼이 존재하는 일이 멈추지 않게 될 것이고 그들의 혼이 단지 죽음과 같은 상태로 저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덤이 혼을 가두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무덤의 바위를 치우지 않으면, 혼은 자신의 무덤 속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세주는 모든 혼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언젠가 모든 혼들에게 부활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왜냐면 언젠가 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부르게 될 것이고 내가 이런 부름을 듣지 않고 지나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혼은 무덤에서 일어나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고 그러면 무덤의 어두움이 혼으로부터 사라지고 혼은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무덤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들도 내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생명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생명을 준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든 사람에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럴지라도 그는 마지막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 순간이 실제 끝이 아니고 그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혼이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혼에게 사슬이었던 이 땅의 겉형체를 버리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내 뜻에 합당하여 그의 혼이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성장에 도달했다면, 이제 어려움 없이 저세상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혼의 죽은 상태는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다시 말해 사람의 혼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게 혼이 무덤을 벗어나 혼의 진정한 고향의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혼이 소멸되지 않는 일은 바꿀 수 없는 법칙이다. 왜냐면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것은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혼은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영적인 존재이고 그러므로 혼은 육체가 죽을지라도 계속해 존재한다. 그러나 혼이 빛과 영광 가운데 육체의 죽음 후에 부활할 수 있는 일은 내 십자가의 죽음과 내 부활 후에 비로소 가능하다. 왜냐면 혼이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원죄의 짐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는 항상 혼이 피할 수 없었던 어두움이었고 무덤의 어두움이었고 이 상태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치우지 않은 무덤의 돌이 있는 상태였다.

다시 말해 이런 혼들에게 아직 속죄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들의 죄짐은 속죄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람 안의 혼은 어두웠고 혼들에게 죽음 후에 부활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었고 음산한 무덤의 밤이 혼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죽음이 혼들에게 끔찍한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3일만에 부활했 혼이 부활했고 단지 육체와 혼이 영의 옷을 입었고 육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성장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서 가능했던 것처럼 육체가 혼과 동시에 영의 나라로 같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영화되지 않은 육체만 버려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3일만에 부활했다.

나는 내 부활을 통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원했다. 나는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서 그들이 이 땅의 육신을 벗게 되면, 혼이 단지 거하는 장소를 바꾸는 것임을 그들에게 증명하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 왜냐면 내가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자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죽음의 순간은 단지 실제적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자신의 가시를 잊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이 내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얻은 은혜를 영접하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구원을 받게 허용하는 한 가지가 필요하고 이 전의 그의 원죄를 사함 받고 혼이 무덤의 어두움으로부

터 밝은 빛으로 나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예수그리스도가 무덤에 돌을 치울 수 있게 만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큰 죄에 묶여 있는 것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이고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 것이다. 그는 비록 그의 육체가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그가 아직 그의 죄의 무덤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내 품 안에 맡기고 그가 죽음의 순간이 임했을 때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나에게 긴밀하게 부탁했다면, 그는 그의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축복스럽게 잠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자신의 육체를 이 땅에 남겨 둘 것이다. 그러나 그의 혼은 부활할 것이고 혼은 빛을 향해 올라갈 것이다. 혼은 자신 주변에서 무덤의 어두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이 혼의 손을 잡고 혼의 겉형체인 육체를 벗게 이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혼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할 것이다. 혼은 죽음으로부터 자신이 부활했고 이제 자신이 영원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알 것이다.

인간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이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로 내가 보낸 존재로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단지 먼저 가는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약속한 것처럼 그들을 자신에게 데려갈 것이다.

아멘

예수의 영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B.D. No. 1739

1940년 12월 15일

십 자가의 죽음 후에 예수님의 영화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한다면, 동시에 예수님의 “나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극복하고, 자신의 혼을 형성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충만함으로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한,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을 희생했다. 그의 외형인 그의 몸은 혼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고, 마찬가지로 단지 거룩한 하나님을 향했다. 그러므로 모든 입자가 하나님께 향한 영적인 존재였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더 이상 이 땅의 성장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육체가 죽은 후에 모든 온전함으로 영의 존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

모든 온전한 영적인 존재들은 근원의 힘과 연합하고, 가장 긴밀한 융합을 통해 근원의 힘과 하나가 된다. 한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의 과정은 무한한 시간 동안 지속되고 또한 저세상에서 수많은 단계를 거쳐 높은 곳으로 인도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덜 성장한 영적인 존재인 겉형체는 항상 뒤에 남고, 혼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혼은 영적인 존재로서 저세상에서 같은 정도로 성숙한 존재를 찾게 된다. 겉 겉형체는 분해가 되고, 각각의 영적인 입자는 그들의 성장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비슷한 물질과 다시 연결이 된다.

그러나 예수의 몸은 그의 순수함과 사랑의 역사에 있어서 이미 영적인 완성에 도달했다.십자가의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이 형체가 된 영적인 입자의 마지막 정화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입자가 완전히 정화되고 온전한 혼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입자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영과 혼과 몸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나란히 생각해야 하는 두 존재가 아니라, 모든 온전함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단지 하나님의 존재이다. 예수의 신성은 영원한 신성 자신이고, 이와 다르게 생각할 수 없다. 단지 인간 예수의 외형이 영원한 신성에 속하게 되었다. 인간 예수의 영적인 입자들이 근원의 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입자들이 이미 예수가 죽을 시에 하나님과의 가장 긴밀한 연합을 위한 전제 조건인 온전한 정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몸은 이 땅의 기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엄격한 자기 수양을 통해 모든 물질의 정복자가 되었고, 따라서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 그 안에 변형된 모든 영적인 입자들은 혼과 합류할 수 있었고, 동시에 혼과 함께 빛이 있는 높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땅의 계곡을 떠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혼의 주변이 가장 빛나는 빛이었고, 결과적으로 예수의 몸과 혼은 변형된 상태로 이 땅을 떠나야만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융합된 존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능력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영원한 신성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빛과 힘을 발산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존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또한 모든 충만한 빛과 권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빛을 발산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다. 그러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세와 영광의 증거를 주고, 세상에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선포해야 할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주기 위해, 예수를 따르고, 이 땅에서 예수와 같은 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영화된 예수를 보게 했다.

예수님의 영화는 인류에게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화로 여기고 예수님의 영화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하나님과의 마지막 연합을 위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연합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예수의 혼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과 능력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게, 그러므로 그는 모든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게 자신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자신의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게 되었고, 아버지처럼 창조하고, 형성할 수 있었다. 그의 본질은 사랑이었고, 그의 말씀은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을 향한 그의 큰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단지 사랑이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 땅의 행로는 화려함이나 영광이 없는 끝없는 일련의 기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의 눈 앞에서 자신을 영화시키고 높은 곳으로, 영원한 영광을 향해 올라가면서, 찬란한 빛 가운데 끝을 마쳤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혼은 하나님께 향했다.

B.D. No. 2345

1942년 5월 24일

예 수 그리스도의 몸은 더 이상 그의 혼에게 저항을 하지 않았고, 그는 혼 자신 안의 영과 전적으로 하나가 된 혼이 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가 예수가 자신의 사역을 마쳤을 때의 상태였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다. 그의 몸은 이 땅과 이 땅의 법칙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몸을 형성하는 영적인 입자가 혼의 물질과 연합이 되어, 완전하게 영화가 되었고, 아버지 영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영의 의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동시에 이 땅의 육체와 혼도 또한 영원한 신성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연합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연합은 영적인 존재 자신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가 파악할 수 없는 일이다. 이일은 가장 큰 자기를 정복하는 일이었고, 가장 깊은 사랑을 행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가장 무한한 헌신의 역사였다. 인간 예수 안의 혼은 결형체인 몸을 하나님의 사랑이 발산되는 영역으로 끌어 들였고, 그의 혼과 몸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인간 예수는 능력과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에게 권세가 있고, 그는 지혜로웠고,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순종했고, 모든 창조물이 그에게 순종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모든 충만함으로 거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하나님께 혼편에서 또한 육체편에서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이 없는 헌신이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했다. 이제 예수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일에서 자신을 표현한 분이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에게 헌신하는 모든 것을 붙잡고, 창조물 안의 영적인 존재가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창조물에게 빛을 충만하게 비춰준다. 저항이 사라진 곳에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자신에게 저항하지 않는 곳에서 거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저항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신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한 존재가 비로소 저항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는, 저항이 존재가 하나님 밖에 거하는 존재가 되게 한다.

인간 예수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했고,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로써 그는 전적으로 영화가 되었다. 왜냐면 하나님과의 연결된 상태가 빛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자신의 혼과 동시에 그의 몸을 영원으로 가지고 갔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더 높은 성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몸과 혼이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영적인 입자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들이 영원한 신성과 완전히 융합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가장 깊은 지혜를 영접할 능력이 있으면, 너희는 가장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단지 영이 깨어난 사람들이 이 모든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에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진리를 갈망하고 너희의 생각이 아직 전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얻기를 갈망하면, 나는 항상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울 것이고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너희에게 말을 해줄 것이다. 나는 내 자녀들의 깨달은 정도에 알맞게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음성으로 말할 것이다. 실제로 내 성품은 헤아려 볼 수 없다. 비록 너희가 계속하여 더욱 완성에 도달할지라도 너희에게 내 성품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헤아려 볼 수 없게 남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최고의 온전함을 추구해야 하고 이로써 마침내 나와의 연합을 이뤄야 한다.

너희는 전적으로 내 성품과 같아져야 하고 너희가 한때 발산되어 나온 빛의 불씨로써 다시 영원한 내 사랑의 불과 하나가 되게 할지라도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 남을 것이다.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희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하나가 되는 과정은 단지 모든 온전한 존재에게는 더 이상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와의 연합이 실제 전적으로 내 사랑의 힘이 채워질 수 있게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 자신이 너희에게 영원히 도달할 수 없게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절대로 나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면 너희가 나를 제한 된 존재로 상상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내가 시간과 공간에 묶여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전적으로 나로부터 온 내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긴밀하게 연합이 될지라도 너희는 영원히 더 이상 너희가 너희라는 의식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무한한 가운데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 역사할 것이고 이런 일이 바로 너희의 축복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세운 목표인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일에 도달한 것이고 너희가 내 형상이 된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원래 성품 안에서 나와 똑같이 되었고 너희는 가장 밝은 지혜의 빛 안에서 제한이 없는 능력을 소유한 가운데 전적으로 자유함 가운데 너희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생성되게 하고 역사하며 창조할 수 있게 된다.

너희는 내 축소물의 된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혼도 같은 법칙 아래 있었고 예수의 혼은 나로부터 발생 된 존재로써 그의 의지의 시험을 치러야 했고 합격했다. 그러므로 원래 창조 된 영의 무리들이 나로부터 타락하였을 때 그는 나에게 머물렀다. 그는 사랑 안에서 나에게 전적으로 복종해 자유의지로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그들을 구속하고 내 자녀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인간으로써 타락한 형제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는 이 땅의 사명을 위해 나에게 자신을 제공했다.

인간 예수는 전혀 전에 없었던 절대로 이 후에 인간이 행하거나 행하게 되지 않을 일회적인 역사를 완성했다. 그는 이 땅에서 이미 자신과 나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게 했고 혼과 육체를 남김 없이 영화시켜 그에게 전적으로 비추임을 받을 수 있게 된 일을 그의 승천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했다. 그 안에서 나 자신이 현현할 수 있었고 영원한 신성이고 모든 것을 채우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권세인 나 자신을 절대로 인격화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한 형체에게 전적으로 비추어 이 형제에게 어떤 인간적인 것도 더 이상 남지 않게 할 수 있다. 육체는 내 영으로부터 나온 영의 겉형체였고 혼은 내 안에서 완전히 자신을 바쳐 성취되었고 예수는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었다. 그의 의지와 그의 생각과 그가 행하는 일이 내 뜻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었고 더 이상 두 존재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다. 나에 의해 창조 된 모든 존재에게 예수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남게 되었다. 자신을 의식하는 예수의 혼은 자신의 혼 안에서 원래의 존재로 돌아 가게 되었다. 왜냐면 혼은 마찬가지로 발산되어 나온 사랑의 힘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의 힘은 단지 원래의 능력과 하나가 되어 원래의 능력 안에서 전적으로 헌신해서 예수를 이야기하면, 이제 단지 원래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의 혼은 완성에 도달한 영으로써 이 땅으로부터 돌아온 것이 아니고 혼은 이 땅에서 영원한 신성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드렸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가장 큰 비밀을 위해 자신을 포기했다. 즉 한때 하나님의로부터 생성 된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예수는 두 번째의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의 이 땅의 과정은 그가 나와 남김 없이 하나가 되어 내 뜻과 내 생각이 단지 그를 지배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영의 나라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최고요 마지막이 되게 했다. 너희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는 일은 너희에게 더 이상 상상력이 제한이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성품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헤아려 볼 수 있게 머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무한 가운데 최고로 온전한 존재인 너희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수 안에서 너희가 볼 수 있게 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하나님이 더 이상 없음을 알 것이다. 너희는 그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이고 항상 영원히 그를 추구할 것이다. 그는 너희의 사랑에 응답하고 너희를 넘치게 행복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에는 제한이 없고 그러므로 축복에도 더 이상 제한이 없게 될 것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의 몸이 영화 됨.

B.D. No. 8574

1963년 7월 29일

나 자신의 볼 수 있는 겉형체로써 예수그리스도의 몸은 다르다. 그의 몸은 전적으로 영화되었고 그의 몸은 실제로 세상적인 물질이었고 그의 몸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나에 의해 창조 된 존재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머물게 하기 위한 몸이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신적인 능력으로 생성되었고 동시에 이 몸은 이 땅의 육신의 어머

니 마리아에게서 나온 같은 영적인 입자였고 영적인 입자들의 요구와 충동과 연약함을 가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로부터 영향을 받는 환경에 대응해야 했다. 이로써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의 몸은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육체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에 반응했다. 그러나 항상 또 다시 예수의 의지에 능력으로 이런 모든 유혹에 저항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싸움이 필요했고 사랑 안에서 역사하려는 지속적인 자세가 필요했다. 왜냐면 예수는 모든 입자를 구속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자들은 예수가 그의 혼 안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동안에 자신의 혼과 연결이 되었던 입자들이다. 그러나 이런 입자들은 어떤 다른 타락한 원래의 영에 속하지 않은 내 창조의 작품이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안에서 사람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택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또한 그의 육신의 겉형체를 이루는 구속되야 하는 입자들을 가졌다. 그러나 혼 안의 입자들은 혼에 속한 입자들로 머물렀다.

다음을 이해하라. 예수의 육체와 마리아의 육체는 순수하고 죄가 없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는 죄악 된 세상에 거했고 그러므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었다. 그의 육체는 이런 가운데 자신을 증명을 해야만 했고 이런 공격에 대항해 더욱 심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물질을 통해 자신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고 대적자가 순수한 혼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대항해 싸워야 하는 일과 모든 사람의 과제인 대적자의 유혹의 역사가 최고로 다양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이를 아직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너희는 예수의 몸과 마리아의 몸이 남김 없이 영화 되었다는 것과 그럴지라도 자신의 겉형체를 영의 나라로 가지고 갔고 이를 유지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왜냐면 내가 나에 의해 창조 된 모든 존재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길 원했고 절대로 다시 분해가 될 수 없게 몸과 혼이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혼에게 아직 구속받지 못하는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달라붙어 공격한 일이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런 어두움의 세력과의 싸움이 아주 어려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분명하게 한다. 왜냐면 이런 세력들이 내 대적자의 명을 따라 예수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절대로 자신의 육체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를 시험하기 위해 모든 외부에 있는 것들과 예수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했던 어두움의 세력 편에서 주는 유혹들과 싸워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의 순수하고 죄 없는 육체는 측량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모든 종류의 공격에 대항해 싸워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구속했고 이로써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인간으로써 이 땅에서 마지막 성장을 이뤘다. 이런 사람들을 분명하게 예수에 대해 입장을 취하는 일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자주 알아볼 수 있다. 예수의 순수하고 죄가 없는 육체 때문에 그의 싸움이 쉬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영접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가 지속되는 성장 과정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돋고 구속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떨쳐 버려서는 안 되는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넘치게 그의 혼에 달라붙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의 육체가 남김 없이 영화 된 상태에서 혼에게 속하게 되었고 속한 가운데 머물렀다는 일이 너희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믿을만 하게 돼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한 사람 안에 거한 일이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순수한 영적인 잉태와 태어나는 과정들처럼 모든 특별한 조건들을 전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예수는 한 사람이었고 그의 싸움과 모든 육체의 입자들이 영화되게 하는 일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고 사랑과 고난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항상 단지 사랑과 고난이 사람들이 남김 없이 영화되는데 필요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의 부활과 영화.

B.D. No. 7693

1960년 9월 6일

내 혼과 마찬가지로 내 육체도 영화되었다는 것을 너희는 안심하고 진리로 영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장 과정을 아직 가야만 하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도 무덤 안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너희는 안심하고 진리로 영접할 수 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체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모든 입자들을 영화시켰다. 다시 말해 나는 인간 예수로써 모든 입자들을 영원한 내 아버지에게 향하게 했고 내 안의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어떤 것도 육체에 더 이상 없게 되었다.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나 때문이거나 내 육체의 영화를 위해 당한 것이 아니고 이 고통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내 육체는 아직 인간적인 요소이고 육체가 큰 고통을 느끼고 견디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했을 때 나는 내가 영화 된 증거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내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났고 그러므로 육체와 혼이 부활할 수 있었다. 왜냐면 육체와 혼이 영화되는 일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이제 이런 영적인 존재를 무덤에 묶어 둘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왜냐면 영은 모든 것을 비록 가장 굳은 물질이라도 통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육체를 영화시키는 일이 나에게 가능했다. 왜냐면 나는 전적으로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고 사랑이 모든 순수하지 못한 입자를 분해시켰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 순수하지 못한 것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사랑은 영원한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보장해주기 때문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분해시키고 이제 영원한 근원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단지 가장 순수한 것만 남겨두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랑 가운데 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변화되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 육체를 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물질적인 입자를 올바른 질서 안에 있게 할 것이다. 물질적 입자 안에 묶임을 받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영원한 사랑인 나에게 향하고 한때 자신의 입자를 굳어지게 한 물질 안으로 파문을 받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모든 저항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너희 육체를 영화시키는 일은 이 땅에서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가능하다. 그러면 너희 육체는 혼과 함께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너희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체험하는 일이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는 것을 너희는 믿을 수 있고 내 육체가 무덤으로부터 일어섰다는 것을 너희는 믿을 수 있다. 왜냐면 인간으로써 내 삶은 진실로 육체가 영화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고 계속되는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한 아버지와 연합을 이루었고 나는 전적으로 그에 의해 충만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성품밖에 있지 않게 되었고 나는 그와 영원에 영원까지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너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없다. 왜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고 모든 것을 통과하는 영이기 때문이다. 그를 인격화 할 수 없고 그를 볼 수 없다. 만약에 존재가 자신을 높은 정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지 않았고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 내 안에 거했던 사랑으로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멸시켰을 정도의 힘과 빛이다. 나는 소멸되지 않고 이런 빛과 능력으로 전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영화 된 육체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태를 유지했고 그러므로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한 존재들로서 나 자신 앞에 나온 존재들에게 내가 볼 수 있게 머물렀다.

모든 공간을 채우는 영원한 큰 영이 인간의 형체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고 내가 창조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너희가 스스로 사랑이 충만하고 나와 하나가 되면, 너희 사람들이 비로소 이해하게 될 나 자신이 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부활의 문제와 육체와 혼이 영화되는 일과 내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전적으로 하나가 된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이해할 것이고 너희는 나와 전적으로 연합이 된 것이다. 너희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 깨닫는다. 왜냐면 그와 나는 하나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기 때문이다.

아멘

지옥으로 내려간 일.

B.D. No. 6315

1955년 7월 18일

O류를 위한 구원의 때가 되었을 때 구원의 때가 임하기 전인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에 이 땅을 떠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혼들은 중간의 나라에서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간 나라는 이 땅도 아니고 빛과 축복의 나라도 아니다. 너희가 원죄와 구속 역사의 이유를 알고 한 때 타락한 영과 하나님 사이에 끝 없이 큰 간극을 알게 되면, 너희는 비로소 이런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인간은 이런 간격을 극복할 수 없었다. 왜냐면 인간이 홀로는 이 땅의 삶 동안에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원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모든 영적인 존재에게 해당되고 구속역사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뤄졌다. 왜냐면 빛의 나라로 가는 문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제 중간 나라에 거하는 혼들도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빛의 나라로 가는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계획이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시작 때부터 정해졌고 최초의 조상들 때부터 구세주의 오심을 가르쳤고 선견자와 예언자들에 의해 항상 또 다시 구세주의 오심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 들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세주를 체험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면 구세주 이전의 여러 세대가 이 땅을 떠났고 그들의 혼이 이제 구세주를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 후에 지옥으로 내려갔다. 그는 죄값을 아직 완전히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여전히 결박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사탄의 속박에서 해

방시키기를 원했다. 왜냐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절대로 이런 혼들을 결코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깊은 곳으로 대적자를 따랐기 때문에 대적자에게 그들에 대한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옥에도 또한 완고한 혼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세주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구세주를 통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또한 결정을 내릴 자유의지를 보장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빛을 발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은 인간 예수로서 그들의 나라로 갔다. 그러나 많은 혼들이 예수가 항상 또 다시 선포되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 왜냐면 모든 혼들이 하나님의 빛의 일꾼을 통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조상들도 그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조상들이 주님의 사명을 받아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로써 구세주가 지옥으로 임할 때를 기다리게 했고 구세주가 이제 수많은 혼들을 구원했고 그들에게 또한 축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게 되었다.

지옥으로 내려간 일이 첫 번째로 타락한 영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인간 예수가 십자의 죽음으로 속죄의 재물을 지불했고 그 때부터 최종적인 귀환이 시작되었다. 비록 이 전에 이런 영적인 존재에게 이미 길을 열어 주었고 방금 전까지 닫혀 있던 문을 이제 예수가 열어주었고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가기 원하는 모든 혼을 위해 열리게 되었을지라도 예수가 지옥으로 내려간 일이 루시퍼에 의해 묶임을 받은 첫 번째 영들이 그들의 최종적인 자유를 찾게 했다.

아멘

지옥으로 내려간 일. 루시퍼의 저항.

B.D. No. 6531

1956년 4월 25일

내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후에 지옥으로 내려갔고 영원한 축복의 문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존재들을 구원한 일은 맞다. 왜냐면 이 문이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먼저 열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무수한 혼들이 그들의 구원의 시간을 기다렸고 나는 그들에게 인간 예수로 나타났고 그들에게 내 고난과 죽음을 눈 앞에 보여주었다. 왜냐면 그들도 자유의지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고백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나를 깨달았고 내가 모든 사람에 의해 거절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거부했고 그들은 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거절했다.

이런 혼들에 대한 내 대적자의 영향력이 아주 강해 그들은 나를 단지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반역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고 이런 모든 혼들에게 그들의 의지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내가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날 수 없었고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단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명과 완성 된 구속역사를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는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했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혼들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내 대적자는 처음으로 내 구속역사의 결과를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나를 고백한 혼들과 내가 그들에게 열어준 문을 통해 자

발적으로 나를 따르기를 원했던 혼들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런 혼들은 내 대적자의 권세를 벗어났고 사슬을 풀었다. 왜냐면 그런 혼들이 내에게 힘을 얻었고 나 자신이 그들의 사슬을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내 대적자는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더욱 격노했고 어두움에 대하는 빛의 싸움이 이제 비로소 제대로 시작이 되었고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과 영의 나라에서 격노한다.

나는 내가 임하기 전에 이 땅의 삶을 마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지옥으로 내려갔다. 올바른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대적자의 권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내 대적자로서 나 자신에게 대항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그를 상대로 그가 묶고 있던 모든 혼들을 위해 싸웠고 그는 큰 부분의 자신의 추종자들을 잃게 되었다. 나는 모든 혼들을 위해 죽었고 모두가 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추종자들을 빼앗기는 일을 보고 내가 단지 사랑이 얻게 해준 그를 이긴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게 되었을 때 그의 분노는 끝이 없었다.

그도 사랑에 굴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권세와 그의 소유물이 여전히 아주 커서 내 사랑의 힘에 저항했고 이로써 내 사랑의 힘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그의 권세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고 그가 인간 예수의 사랑이 나와 연합을 이루게 한 인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주님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의 미움은 더욱 커졌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이제 엄한 반대자가 나타났고 그가 그의 사랑으로 대적자의 추종자들을 대적자에게서 빼앗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존재의 자유의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내 대적자는 여기에서 아직 자신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보았고 그는 이 땅이나 또는 영의 나라에서 자신의 희생자들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죽음 후에 지옥으로 내려갔고 그를 벗어나기 원하는 모든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 항상 또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고 그는 나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내 부름을 따르려는 혼들을 결코 강제로 붙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권세가 꺾였다. 그러나 이런 십자가의 죽음도 그의 저항을 꺾지 못했고 그의 증오와 그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 그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악하고 그의 본성은 사랑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그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없고 그는 그에게 남겨진 힘을 항상 부정적인 일을 위해 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힘이 그의 역사를 점점 더 약화시켜야만 하고 사랑이 사랑을 위해 얻어야만 한다. 사랑이 생명이 없는 모든 존재를 끌어당겨 다시 생명으로 깨어나게 해야만 한다.

내가 지옥으로 내려갔을 때 한때 타락했던 존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 시작했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로써 사랑이 미움보다 더 강하다는 증거를 제공했고 사랑이 존재들에게 죽음을 가져온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명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생명이고 존재를 죽음의 상태로 몰아넣은 자는 패배했다.

아멘

【】희 혼자서는 너희 성품의 변화를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에게 그렇게 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너희를 위해 이 힘을 얻었고 인간 예수가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인 너희의 연약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너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했다. 그러므로 그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죄의 결과를 스스로 짊어졌고 너희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렀고 너희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는 너희를 위해 힘을 얻었고 이제 이 힘을 은혜의 선물로 너희에게 준다. 전제 조건은 너희 자신이 은혜를 활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해야 하고 또한 예수의 신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일은 인간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빛의 존재로 자신을 다시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온전함에 이르는 길에서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확실하게 이뤄진다. 그에게 이제 제공되는 힘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고 그 곳에 무자비하게 가두어 놓은 자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구속역사 이전에 이미 이 땅의 삶을 마친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자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돋기 위해 지옥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왜냐면 그들의 의지가 완전히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적자에게 패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혼을 위해 자신의 피로 구매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방해받지 않고 따를 수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대적자의 권세 아래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혼의 자유의지는 존중돼야만 했고 혼이 완전히 반대하지 않으면, 의지가 이제 강하게 되는 일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지 이런 자발적인 혼들을 언급한다면, 지금 지옥으로 내려간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가장 깊이 타락한 구덩이에 나타났고 자신의 원수인 타락한 형제 루시퍼의 영역으로 가는 모험을 감행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그 앞에 서서 사랑이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고 그를 형제처럼 대했다. 그러나 이런 가장 큰 희생도 그의 굳어진 심장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고 지옥의 권세자는 가장 악한 영들의 큰 무리와 함께 조롱하며 돌아섰고 사랑이 그들의 심장에 도달하지 못했고 증오는 더 커졌고 그들의 의지는 자유했다.

하나님은 실제 이런 실패를 알았다. 그럴지라도 지옥의 거주자들에게 은혜의 보물이 제공되었다. 왜냐면 사랑은 가장 타락한 피조물 앞에서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가장 타락한 피조물이 굴복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인간 예수의 사랑의 역사도 미움과 저항을 깨뜨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흑암의 존재들에게도 인간 예수의 사랑의 역사를 제공했다. 왜냐면 예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고 지옥으로 내려간 일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설득하여 돌이키게 하고 대적자에게 변화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타락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기간을 단축시켜 주려는 마지막 시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이룬 이런 위대한 사랑의 역사도 루시퍼의 오만함과 사랑없음을 바꿀 수 없었다. 왜냐면 대적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권세와 강함이 승리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신적인 존재를 자신의 종들에게 넘기는 일에 성공한 그는 자신을 승리자로 느꼈다. 그는 지옥으로 내려간 존재에게서 죽은 자를 실제 보았지만 부활한 자는 보지 못했다. 루시퍼는 항복하지 않았다. 신성은 영원 전부터 이런 일을 미리 보았고 이를 근거로 타락한 자들의 귀환을 위한 역사를 세울 수 있었다. 탕자가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면, 이런 역사가 언젠가 탕자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탕자가 유혹한 모든 존재가 남김없이 구원을 받기까지 아직 영원에 영원한 기간이 걸린다.

아멘

삼일 만에 부활하심.

B.D. No. 7320

1959년 3월 29일

주 님이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기뻐할 수 있다. 내가 무덤을 떠나 내 제자들에게 나를 보여주며 삼일 만에 나타났을 때 나에 대한 사람들이 환호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의 나라의 환호가 있었다. 그들의 심장은 깊은 고통스러운 슬픔에 잠겨 있었다. 왜냐면 그들은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그들의 모든 것이었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한 죽음을 믿었던 것처럼 나를 잃어버렸다. 왜냐면 비록 이 전에 내가 그들에게 나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알려 주었을지라도 그들은 내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아직 마찬가지로 세상에 묶여 있었고 이 땅의 세상 현실이 그들을 객관적이게 만들었고 아주 큰 정도로 두려움과 원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강하게 해주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부활 후에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에게 세상으로 나가 나를 알리라는 사명을 줬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전하고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완성한 구속사역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사명을 줬다. 그러나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 모두가 그들이 선포해야 할 것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했다.

구속사역의 정점이 된 내 부활은 내 구속사역에 속해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 구속사역의 축복 안에 들어오기 원하는 사람과 이로써 내가 이 땅에서 살던 삶을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영원히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죽음을 극복했고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자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부활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단지 그들의 성장 정도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허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볼 수 있게 나타날 수 있었다. 왜냐면 내 육체는 영의 육체이고 더 이상 육신의 육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때문에 내가 내 부활을 미리 알려 준 사람들이 단지 영의 육체를 볼 수 있었다. 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실제 다른 사람들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부활했다는 것과는 다른 모든 설명을 찾았다.

이런 가르침은 항상 믿음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의지로 내 십자가 아래로 오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 원하면, 모든 사람이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다. 나와 내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은 항상 동시에 내 부활

을 믿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면 내 피로 구원받은 혼은 이미 자신 안에 파괴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아직 내 영으로 충만하지 못했다. 내 십자가의 죽음 후에 그들의 내면은 아직 어두웠다. 왜냐면 그들 안의 인간적인 두려움이 빛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돋기 위해 그들에게 볼 수 있게 나타났고 이로써 그들은 아주 큰 확신을 갖고 기쁘고 축복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사명을 쉽게 실행할 수 있게 여겼다. 그들은 증가 된 능력으로 내 가르침과 내 부활과 함께 내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기 원했다.

내가 부활한 후에 내가 내 제자들에게 즉시 능력을 제공해줄 수 있었다. 그들의 혼이 이미 구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지금까지 주인으로부터 자신을 이미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그들의 선포하는 직분을 위해 나섰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이 더 이상 죽지 않고 단지 육체만이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나라에서 계속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었다.

부활의 역사는 이와 동시에 내가 혼의 큰 위험 가운데 홀로 놔둔 내 제자들에게 준 첫 번째 도움이었다. 왜냐면 그들의 믿음이 아직 내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 대신에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들이 전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 단지 필요한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믿음이 모든 내 제자들에게 반박할 수 없게 있었고 이로써 이제 그들의 사명이 시작될 때 진실로 신실한 내 가르침을 전하는 내 전파자가 될 수 있었다.

아멘

부활절.

B.D. No. 7579

1960년 4월 17일

내가 약속한 것처럼 나는 성전을 다시 세웠다. 나는 죽은 후 삼일만에 부활했다. 내 육체도 무덤을 벗어났다. 왜냐면 내가 사람들이 내 부활을 알게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죽음 후에 계속 사는 것을 믿지 안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내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 나는 그들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일이 나에게 가능함을 증명해주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영화 된 상태의 육체가 무덤으로부터 부활하게 했다. 나는 나를 보았고 느꼈던 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왜냐면 그들이 내가 이전에 그들에게 선포한대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그들의 성장 정도가 나를 볼 수 있게 허용하는 사람들만이 나를 볼 수 있었다.

왜냐면 나는 단지 육체적으로만 그들 가운데 거했던 것이 아니라 육체와 혼도 영화되었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사람들만이 단지 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에도 육체와 혼이 영화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삼일 후에 내 부활을 의심하는 것처럼 한편으로 사람들이 의심하며 내 육체가 불법적으로 숨겨 겼다는 혐의를 말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혼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육신이 죽을 때 혼이 육체를 떠나 저세상으로 들어갈 때 같은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왜냐면 혼은 죽을 수 없고 단지 혼의 상태가 그들의 삶의 내용에 따라 아주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 땅에서 혼을 성숙하게 했다면, 혼은 생명으로 영의 나라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

내 혼은 성숙하게 되었다. 내 혼은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었다. 내 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다스릴 줄 알았고 모든 육체의 갈망을 완화시켜 육체의 모든 입자가 영화되는 것을 이미 이 땅에서 이루었고 그러므로 혼과 마찬가지로 죽음 후에 부활할 수 있었다. 내가 이에 대한 증거를 삼일 후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지 믿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에 대한 어떤 증거도 더 이상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영이 깨어난 사람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목적과 목표를 아는 사람은 삼일 후에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 왜냐면 내 승천 후에 체험하게 된 내 부활 후에 내 제자들에게 부어준 내 영이 그에게 이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내 승천도 단지 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들만이 체험할 수 있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이미 자신을 준비해 영의 부음을 받는 체험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지의 강요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 부활 후에도 단지 몇몇의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이런 특별한 체험을 통해 이런 몇몇의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었다. 그들은 나를 보았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했다. 왜냐면 내 제자들이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이 삼일 후의 내 부활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에 비추이는 내 빛의 충만함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나를 그리고 내 구속사역을 믿는 사람은 내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가 이를 믿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면 그 안의 나로부터 발산 된 영이 내면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는 내적으로 자신의 혼이 생명으로 부활할 것에 모든 전적인 확신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게 것이다. 그는 나와 하나가 되길 추구할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이고 그 안의 나 자신과 연결될 것이다.

그는 영적인 추구를 하고 항상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할 것이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자신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함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변형.

B.D. No. 3622

1945년 12월 7일

O | 땅에서 나의 삶은 사랑을 행하는 삶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의 나의 삶을 마쳤다. 내 몸은 이 땅에 있었다. 즉 내 몸은 모든 자연의 법칙의 지배를 받았고, 나의 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혼은 영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혼이 권세가 있고, 육체도 정복할 수 있었고, 육체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추구하게 했고, 이를 통해 혼과 몸이 영화가 되었다. 이로써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든 충만함으로 모시고 있는 걸체가 더 이상 그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걸체는 더 이상 육체의 죽음에 굴복할 수 없었다. 왜냐면 물질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는 물질 자체가 변할 수 있고, 전적으로 영화된 입자는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과 몸이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 왜냐면 혼과 몸이 온전함에 도달했고, 빛을 통과시킬 수 있었고, 이제 빛과 힘으로 충만했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나의 제자들의 눈 앞에서 일어난 나의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과정이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은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들의 이 땅의 사명을 위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나의 구속사역에 대해,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해, 나의 가르침에 대해, 십자가의 고통이 충만한 죽음에 대해, 나의 부활과 하늘로 승천에 대해 전해야 한다. 그들은 이 사명을 위해 준비해야만 했고, 스스로 사랑의 삶을 영위해야만 했고, 깊이 믿어야만 했고, 내 안에서 영원의 아버지를 깨달아야만 했다. 그들이 이제 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모두 자신 안으로 영접해야만 했다. 그들은 나의 희생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 진리안으로 인도를 받아야만 했다. 즉 그들은 생명력 있는 제자가 되어야만 했고, 가장 깊은 확신 가운데 설교할 수 있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써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징조이고, 나의 신성의 징조인, 하늘로 승천하는 일을 경험해야 한다. 이는 내가 이 땅의 나의 삶을 마쳤지만,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생명력이 있게 머물러야 징조였다. 왜냐면 나의 변형은 내가 설교한 내용의 성취였고, 나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살고, 이로써 영원한 진리를 이해하고, 가장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 안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은 단지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혼과 육체의 영화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이고, 결과로써 가장 빛나는 빛을 받는 일을 알게 되면, 그들은 나의 하늘로 승천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단지 사랑을 설교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한 사랑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나를 따르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일이다. 단지 사랑이 영화시키고, 단지 사랑이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게 한다.

아멘

예수의 승천.

B.D. No. 7358

1959년 5월 8일

너희 사람들은 특별한 일에 관한 일이라면 증명할 수 없는 일을 즉 단지 믿음으로 영접할 수밖에 없는 일을 믿기 어려워한다. 여기에 속한 일이 내 승천이다. 내 승천은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이고 진실로 법칙을 벗어나 일어 났다. 그러나 단지 완성에 도달한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 그들은 내 구속의 죽음과 십자가 상의 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려준 사람들에게 내 승천을 알리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 제자들은 내 승천을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 이미 많이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로써 그들에게 전해진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지 믿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승천의 증거하는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들은 내 증인들이 진리를 말하고 높은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승천을 믿는 믿음이 아직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 예수의 승천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었고 믿음이 전적으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현재처럼 아주 의심을 받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과정을 증명해줄 만한 증인이 없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나 또는 조상들의 책에서 알려진 것을 진리로 여겨야만 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없다. 왜냐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깨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삶을 통해 사람들의 영이 깨어나고 사람의 내면이 빛이 되면 이런 깨어난 영이 없이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승천했을 때 영이 깨어났고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따랐고 그들 자신의 심장이 사랑으로 충만했던 남자들과 여자들이 내 주변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승천의 과정을 볼 수 있

었다. 이 과정은 전적으로 자연적인 일이었다. 왜냐면 내 이 땅의 육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내가 나온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그들을 떠날 때까지 단지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게 머물기 위한 전적으로 영화 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나라는 단지 빛과 사랑이다. 내 나라의 모든 순수한 영들은 빛의 바다 가운데 거하고 단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완성에 도달한 혼은 그의 죽음 후에 빛의 옷을 입고 모든 화려함과 영광을 발산한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미 완성에 도달했고 혼이 이 땅에 육신을 벗고 혼의 육신의 삶이 끝나게 되어 영의 나라로 들어가면, 그들은 한동안 이런 빛의 형상을 볼 수 있고 이 땅에서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혼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영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혼들은 빛의 옷을 입을 수 있다. 혼이 이 땅의 육신을 벗으면, 단지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내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을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믿게 할 수 없다. 내 권세와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그들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내 승천은 단지 내 제자들 때문에 모든 영광으로 일어났다. 왜냐면 그들은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부활과 승천을 알려줘야 하고 사람이 얼마나 내 승천을 믿을 수 있을지는 유일하게 그의 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강한 정도에 달려 있다.

모든 일이 내 두 가지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에 달려있다. 최고의 깨달음과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너희의 자유의지 때문에 너희에게 증명해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증거 없이 믿으면, 너희는 축복되다고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런 믿음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삶의 결과라면, 이런 믿음은 너희에게 언젠가 상급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한때 빛나는 빛의 의복을 입을 것이고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마찬가지로 하늘을 향해 올라갈 것이고 평화와 축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밝게 빛나는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빛 안에 모든 영원에 까지 거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의 승천.

B.D. No. 8506

1963년 5월 23일

내가 하늘로 올라 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한 사람의 볼 수 있는 형체 안에 거하는 일은 끝이 났다. 이는 내가 인간으로써 사명을 성취했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과 내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한 마지막 증거를 줬고 그들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나타냈다. 이 일은 단지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허용 된 일이다. 나 자신과 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할 그들이 앞두고 있는 사명을 큰 힘으로 성취시켜야 할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늘로 올라감으로 나는 내 신성을 증명했다.

내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그럴지라도 이런 일은 전적으로 모두 나에게 속한 사람들 눈 앞에서 일어났다. 왜냐면 그들에게는 승천이 믿음의 강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인정했고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의심스러운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통해 가장 깊은 지식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눈 앞에서 내 권세와 영광의 마지막 증거로써 볼 수 있게 영광스럽게 승천할 수 있었고 승천했다. 왜냐면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통해 특별하게 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이 체험은 이 땅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만든 혼들에게만 이 과정이 일어났고 이런 과정은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혼이 육체를 떠나 영의 영역의 빛 가운데로 가는 과정과 같고 혼들이 그들의 진정한 고향인 나라가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일이다. 이런 일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영화되는 일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동안에는 그들에게 예수의 승천은 신화로 머문다. 왜냐면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났고 그럴지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혼의 성장의 도달했으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깨달음 가운데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는 것처럼 단지 내 추종자들이 체험할 수 있게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승천으로 그의 구속사역은 끝이 났고 내가 이 땅에 내려갔고 다시 내 나라로 돌아왔다. 그러나 나는 내 나라를 떠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 왜냐면 나는 모든 곳에 거했고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볼 수 있기 위해 인간적인 형체를 입었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항상 영원히 나에 의해 창조 된 모든 존재에게 그들의 축복을 위해 볼 수 있게 머물기 위해 볼 수 있게 다시 승천했다.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뒤에 남게 되었고 내가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을 때 그들은 외롭고 버려진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영으로 충만했고 자신들의 눈 앞에 둔 사명을 분명하게 보았다. 그들은 내 영의 인도받는 일을 느끼고 이제 내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을 파송하면서 준 사명을 수행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이 땅의 과정의 마지막 기적으로 결정한

특별한 일을 그들이 체험하게 했다. 왜냐면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와 계속하여 함께 함으로써 그들에게 극복해야만 하는 자립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각각의 제자들은 이제 내 뜻대로 모든 열심으로 역사할 수 있기 위해 항상 또 다시 마지막에 일어난 일을 눈에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영 안에서 그들에게 머물렀고 그들은 나와 내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동안에 자주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이로써 그들에게 내 임재가 분명하게 되었고 그들의 나를 향한 사랑은 항상 깊어졌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깨달음이 더욱 성장해 같은 크기로 그들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이 증가되었다.

나는 사람들의 큰 죄짐을 내 구속사역을 통해 해결했고 이런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인류에게 전해져야만 한다. 전하는 일은 단지 스스로 나와 내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들을 통해 이제 이런 큰 은혜의 역사에 관한 가장 순수한 진리가 전파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바로 내 첫 제자들은 특별하게 지원을 받았고 그들의 사명을 위해 준비가 되었고 내가 그들을 전에 개인적으로 가르쳤고 그들의 과제를 위해 준비시켰다. 나는 그들의 믿음을 특별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내가 그들의 직분을 위해 추가적인 선물을 그들에게 할 수 있게 했다. 왜냐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체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지식을 전하기에 알맞은 일꾼과 섬기는 종들을 필요로 하고 종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대변해야만 한다.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이 그들이 특별한 체험을 영접할 수 있게 했고 모든 열심으로 자신의 이웃에게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내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 항상 어느 정도의 성장이 요구 된다. 그러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내 영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나 자신이 선포한대로 모든 진리로 인도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깨우침을 받았다.

B.D. No. 7148

1958년 6월 19일

나는 너희에게 아직 많은 할 말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얼마 나 자주 이 말을 내 제자들에게 했느냐! 내 제자들은 항상 내 주변에 있었지만 그러나 누가 그들과 말하는지 그들에게 말하는 분과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내 영에 의한 깨우침을 받지 못했고 내가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들이 비로소 내 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제자들에게 이미 이전에 가장 깊은 지혜들을 알리는 일은 비록 실제 내가 그렇게 되도록 준비했을지라도 전혀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의 과제는 단지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나와 내 구속사역을 알려 주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유일하게 그들을 죄의 밤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한 분인 구세주를 내 안에서 본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 제자들이 이런 직분을 위해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 내 영을 통해 그들에게 계시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가르치는 직분을 위해 올바르게 준비되었다. 그들은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줄 수 있었고 그들 자신도 한동안 미래를 내다 보고 영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왜냐면 그들이 영의 나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이 나와 그리고 빛이 충만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 내면 자체가 밝고 선명했고 그들은 나를 그들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가장 큰 영적인 위험에 빠진 그들을 돋기 위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낮아져 임한 그들의 아버지로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늘로 승천한 후 내 영을 받은 뒤에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거할 때 비록 내 신성이 인간 예수가 하는 말과 역사 가운데 항상 나타났을 지라도 그들은 나를 아직 인간으로 보았다. 이런 일이 그런식으로 일어나야만 했고 그들은 아무런 선입감이 없이 내 죽음까지 내 이 땅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했다. 왜냐면 그들도 자유로운 존재로써 어떤 영적인 강요를 통해 그들의 생각하는 일이나 원하는 일이나 행동하는 일이 정함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을 부어주기 전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계시해줄 수 없었다. 왜냐면 그들은 계시를 통해 기절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이성이 소화할 수 없었고 그들이 인간으로써 사람들에게 다가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증거를 제시해서는 안 되는 내 사랑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로써 합당하게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제자들을 알았고 그들의 성장 정도를 알았다. 나는 그들에게 항상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주었다. 그러나 내가 제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었을 때 깨달음이 그들에게 번개같이 임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사람 안에 빛을 밝혀 줄 수 있으면, 이런 모든 사람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는 비로소 그가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깊은 지혜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종말의 때의 내 제자인 너희는 너희 자신이 받는 지식을 다시 세상에 전해야 한다. 왜냐면 사람에게 내 영을 향한 갈망이 임하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 그가 전에 실제 이성으로 영접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깨달음이 빛이 밝혀지려면, 생명력을 얻도록 먼저 심장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지식이 그를 비로소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먼저 내 사랑의 가르침을 선포해야 한다. 왜냐면 사랑이 유일하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유일하게 빛을 밝힌다. 왜냐면 사랑 자체가 영원한 빛이기 때문이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실로 밤을 피하고 그에게 모든 비밀을 밝혀질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에게 나를 계시하고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순절의 체험.

B.D. No. 7897

1961년 5월 21일

내 제자들이 체험했던 오순절은 너희 모두에게 반복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내 영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인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이런 체험은 단지 내 제자들을 위한 일회적인 체험이 아니고 내 영은 항상 또 다시 자신을 나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내 영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흘러 간다. 그러므로 모두가 자신의 생각이 일깨움을 받으면서 그가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 안에 영의 능력을 느낄 수 있다. 왜냐면 내 영은 영원으로부터 빛인 나로부터 직접 비추는 비추임이기 때문에 선명함과 빛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제자들에게 영을 부어주는 일은 일회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었다. 왜냐면 내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는 내 영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을 채우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원죄의 죄짐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나와의 긴밀한 연결이 이뤄 질 수 없었다. 존재들이 나를 떠난 죄가 나와 사람들 사이에 있었고 죄를 가진 혼에게 내 영을 비출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하다.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나에게 귀환하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 혼이 이제 사랑을 통해 자신을 형성하여 영이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람 안의 영의 불씨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을 향해 추구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람과 나와의 긴밀한 연결이 내 능력이 넘치게 흐를 수 있게 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내 영이 그의 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일과 그 안에 밝은 빛을 주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이 내면으로부터 모든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람 안에서 잠자는 또는 한때 타락으로 인해 버려졌던 신적인 능력이 다시 나타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이런 능력들이 특별하게 강하게 나타나고 나와 하나가 된 것을 증명해주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나와의 연합이 이룬 신적인 존재임을 증명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말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들은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고 병자를 고치고 영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올바른 내 복음의 선포자였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 안에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영에 의해 인도받고 내 뜻대로 말하도록 재촉을 받았고 그들은 내가 전에 그들에게 내가 나에게 속한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처럼 영의 능력으로 충만했다. 이 약속은 이 약속이 스스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내 제자들에게만 한정되는 약속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 나는 항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했고 나는 항상 내 영을 부어주기를 원했고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단지 내 영을 통해 가능한 진리를 전해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얼마나 적게 내 말이 이해하느냐? 얼마나 적게 이 약속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그러므로 비록 너희들 모두가 영을 부음 받는 일을 체험할 수 있을지라도 영을 부음 받는 일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한 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은 너희가 나를 믿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영을 부어주는 일은 직접 계시를 받는 일과 같다. 나는 단지 나 자신을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만 즉 사랑을 통해 자신 안의 영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한 사람들에게 계시 할 수 있다. 내 영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에서 인도함을 이해하라. 영원한 진리인 나 자신이 나를 계시한다는 것을 이해하라. 내가 너희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을 이해하라. 내가 너희를 내 면으로부터 가르친다는 것을 이해하라. 이처럼 내가 내 제자들을 가르쳤다.

내가 전에 그들에게 전했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고 이런 깨달음에 합당하게 나 자신과 내 구속사역을 이웃에게 선포할 능력을 주었다. 왜냐면 그들은 내 뜻과 그들의 불행의 원인과 내가 그들의 이 땅의 삶 동안에 정해준 목표를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야만 했고 이제 진리에 합당하게 이웃들을 가르쳐야만 했다.

마찬가지로 나는 현재 다시 내 제자들을 내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새롭게 세상으로 파송한다. 왜냐면 이제 다시 사람들이 내 뜻과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 자신이 그들에게 맡긴 그들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내 영을 부어주는 내 섬기는 종에 의해 그들에게 새롭게 사랑의 복음이 선포되야 한다. 왜냐면 때가 종말의 때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단지 나 자신이 내 영을 통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진리를 알아야만 한다. 내 영은 나를 섬길 자세가 되어 있고 종말이 임하기 전에 내가 새롭게 세상으로 파송할 사람들을 채운다.

아멘

제자 들에게 영을 부어주고 현재에도 부어준다.

B.D. No. 8803

1964년 5월 16일

내 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너희에게 했다. 이 말은 내 말이고 진리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너희가 나에게 질문해야 하고 너희가 영원한 진리인 나로부터 답변을 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나와 연결을 이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영의 세례는 내 제자들만 받는 역사가 아니고 이런 특별한 선물은 나와 긴밀하게 연결 된 내 첫 번째 제자들과 같이 내가 선물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영의 역사를 단지 일회적인 사건으로 여겼고 이런 역사를 단지 내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해당되고 일회적인 역사라고 말했다. 이로써 사람 안의 내 영에 역사에 대해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되었다. 사람 안의 내 영의 역사가 바로 너희가 나를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게 한다. 왜냐면 이런 역사가 바로 나와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나를 그에게 계시해주기 위해 내가 흘려 보낼 수 있는 내 사랑의 힘의 흐름에 열린 그의 심장을 원한다. 내 계시들은 너희가 잃어버린 가장 깊은 지식들이다. 너희는 너희가

누구였고 누구이며 너희가 다시 되야 할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한 깨달음이 너희에게 주어져야 하고 이런 깨달음이 너희 주변에 빛이 되야 한다. 내 제자들이 나와 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들 자신 안에 내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선행조건들을 갖추었고 이전에 내가 그들의 원죄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내 제자들에게 내 영을 부어 줄 수 있었다.

내 제자들은 내 영으로 충만했다. 그들은 단지 나 자신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내 사명을 받아 말했고 그들은 이제 내 사명대로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내 복음을 전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너희에게 단지 내 임재를 알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이런 역사를 체험해야 하고 이런 역사가 너희를 떠난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내 영이 항상 나와 긴밀하게 연결이 된 너희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의 지식을 증가시켜 너희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내가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단지 너희에게 단지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진리 안에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운 교회의 시작.

B.D. No. 8375

1963년 1월 8일

내 제자들은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사랑의 복음을 나 자신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내 빛의 나라에 다시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왜곡시키지 않고 세상에 전파할 수 있었고 제자들은 내 가르침을 순수하게 유지했다. 사람들은 내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한 그들의 구속자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사람들은 내 제자로부터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이 이 땅의 삶을 목적을 성취시키고 자신의 죽음 후의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내 제자들은 나에 의해 진리 안에서 인도 받았고 같은 진리를 전달했다. 왜냐면 그들 안에서 내 영이 역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내 순수한 복음을 영접했고 그들이 마찬가지로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 안의 영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했고 나 자신이 그들 안에서 역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내 가르침은 어느 기간 동안 순수하게 유지되었다. 내 제자들은 가르치는 직분을 물려주었다. 왜냐면 그들이 자신의 후계자로 정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적으로 부르심을 기다리지 않고 일부는 어느 정도의 자기 사랑과 내 뜻을 성취시키려는 지나친 열심으로 사람들이 직분을 스스로 택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로써 가르치는 직분을 무분별하게 주게 되었고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결정적인 내적인 은사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았고 외적인 형편이 함께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이제 항상 더욱 순수

한 진리가 위험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영이 깨어나지 못한 이런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이 위험을 깨닫지 못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금지시켰고 그들이 가르침 받는 것이 실제 진리인지 의심을 크게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권리를 금지시켰다. 자신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명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어떠한 반론도 영접하지 않았다.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점검해보지 않고 모든 것을 진리로 영접하는 일을 의무로 했다. 진리는 단지 진리를 지키는 사람 자신의 영이 깨어난 동안에 순수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영으로 깨우침을 받지 않고 직분과 직위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런 사람들의 권세는 증가했고 영이 깨어난 사람들이 제시하는 의의는 무시되었다. 순수한 진리는 오류와 신적인 진리로 주장하는 사람의 이성에서 나온 생각에 의해 물러나게 되었다. 영이 깨어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제거하려고 항상 또 다시 시도했지만 내 대적자가 자신을 관철시켰다. 왜냐면 그의 추종자의 세력이 이미 아주 커서 순수한 진리가 이제 더 이상 순수한 진리로 깨달음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가 이 땅에서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와 전혀 다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너희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지 한 단체가 권세에 도달했고 이 단체 내에서 항상 그리고 항상 또 다시 분리가 일어났다고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세운 내 교회는 항상 단지 사랑의 삶의 결과로 진리 안에 거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과 깨어난 영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영적인 건물로 여기기를 원한다는 설명해줄 수 있다. 이런 교회는 항상 또 다시 사랑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내 뜻을 성취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 줄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오류를 드러나게 하는 순수한 진리가 항상 또 다시 전해질 수 있었다. 왜 인류가 혼동 된 생각에 빠질 수 있었는지 왜 인류에게 혼동 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자세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대중이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대중이 오류에는 자원해 동의한다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할만한 일이다.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나로부터 자신에게 순수한 진리가 제공이 되는 은혜를 받으면, 그는 잘못 된 영적인 내용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려고 해야 한다. 사람이 단지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하면, 그는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는 나 자신이 이 땅에 세운 교회에 속하게 될 것이다.

아멘

죄를 사해주거나 사해주지 않는 일. 예수님의 제자들.

B.D. No. 3297

1944년 10월 17일

너희가 죄를 용서하는 사람들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너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머물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나의 말이고, 사람들이 내가 해석하는 것과 다른 많은 해석들을 했다. 이를 교정하는 일에 나의 음성을 듣고, 너희 사람들에게 나의 깨달음을 전하는 깨어난 영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로써 너희가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내 제자들은 능력을 덧입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치유하고, 죽은자를 살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그들의 나를 향한 분산되지 않은 믿음의 힘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 왜냐면 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힘과 빛으로, 권세와 지혜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전파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들 자신이 진리 안에 섰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말을 통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들은 나의 제자였고,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내면의 말씀을 통해 나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이 사랑 안에 섰고 나를 믿었고, 이를 통해 그들도 나의 영을 받아들이고 나의 영을 통해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한 역사는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증거였고,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다시 사람이 나의 뜻대로 산다면, 다시 말해 나의 형상에 따라 자신을 형성한다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에 대한 증거가 돼야 한다. 왜냐면 사랑이 힘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랑 안에 서게 되면, 그는 또한 힘과 빛으로 충만하게 된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힘의 발산이 그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삶의 모범을 보였고, 그들에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힘을 보여주었고, 나의 죽음 후에 나의 사랑의 가르침을 다시 선포하고, 사람들이 나를 쉽게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는 모범을 남겼다.

그러나 비록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영 안에서 내 제자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인도한다. 왜냐면 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모든 존재는 나의 신적인 인도를 받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이제 내 이름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똑같은 권세와 똑같은 권리(?)를 가졌다. 왜냐면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이제 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자신의 발산인 나의 영에 의해 깨우침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또한 내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특별히 만약에 질병이 그들의 죄의 결과일 때,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그들은 또한 사람들의 죄 자체를 덜어줘야만 한다면, 내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람들의 무가치함, 사람들의 불신과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의지를 깨닫는다면,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죄악된 상태로 남겨 둘 자격이 있었다. 왜냐면 그들이 인

간적인 깨달음으로 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알고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음과 그들을 향한 은혜로운 역사가 쓸모 없는 것에 대해서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깨달음에 따라 사람들을 고려할 권리를 주었다. 왜냐면 그들 안에 나의 영이 역사했고, 나의 영이 나의 제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보장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 안에 나의 영이 아직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권리를 가졌다고 거만하게 착각하고, 그들은 사람 안의 하나님의 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갖게 되었다. 즉 제자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이 그들의 영을 따른 이런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 그대로 이런 권리를 인정했고, 이로써 비록 그들이 이제 또한 올바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누가 진실로 나의 제자인지 선명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의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위해 부르는 사람이다. 왜냐면 내가 제자들에게 다음 사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그러나 가르칠 수 있으려면, 나의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해야만 한다. 이로써 그들이 사람들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하고, 세상에 나의 사랑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게 돼야 한다. 그러나 진리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의 제자들은, 그들이 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깨우침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도 빛과 힘으로 충만하게 되고,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영의 힘이 그들이 병자들을 고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즉 사람들이 나와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나는 나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성숙한 영의 상태를 통해 사람이 언제 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이 나 대신에 행하기 때문이고, 실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이가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에 의해 부름 받았음을 전혀 증명할 수 없고, 나의 영에 의해 깨우침을 받지 않았고, 그들 안에서 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부름 받은 것을 정당하게 인정할 수 없다. 이를 통해 그들이 이웃 사람의 죄를 용서할지, 죄 가운데 놔둘지 판단하기 위해 이웃 사람을 깨달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를 판단하는 일이 이미 영의 역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고 믿는 대부분의 종들이 내면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들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말아야만 한다. 그들은 나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나를 위해 일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왜냐면 단지 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식을 주기 때문이다. 즉 단지 나의 말씀이 그들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하기 때문이다. 나의 제자로서 나를 위해 일할 수 있기 위해 순수한 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스스로 진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 사람이 자유로워 지도록 돋는다. 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갖게 되는지를 판단할 능력도 갖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람이 하는 말은 자주 기만적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는 말에 심장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올바른 제자는 자신의 이웃 사람을 깨닫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 사함에 대해 진지한

지를 알고, 내적인 확신이 없이 말하는 많은 말에 속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 사함이 일반적인 역사가 될 수 없다. 왜냐면 죄사함은 단지 가장 깊은 회개가 선행되고, 나의 제자들이 그런 회개를 깨닫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 그의 판단은 내 앞에서 유효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는 단지 나의 사명대로 행하고, 그의 역사가 항상 나의 뜻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로 나의 제자들이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 일하여, 그들이 내 뜻과 달리 생각할 수 없고 원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한다면, 그들의 행동과 생각이 나와 완전히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내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한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이 땅에서 나를 섬기는 종을 부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진실로 누가 이 직분에 합당한 자격이 있고, 누가 이 땅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위해 요구되는 은사를 갖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또한 그들에게 권세를 준다. 왜냐면 그들은 단지 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아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B.D. No. 4942

1950년 7월 27일

내가 실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조직은 원하지 않았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한 내 말에 근거해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고 불리우는 세상 조직의 창시자로 해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한다. 이 말은 내 모든 말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나의 제자 베드로의 깊은 믿음을 반석으로 이해하면 이 말을 실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내 교회는 순전히 영의 역사이고, 베드로처럼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 교회는 절대로 순전히 세상적인 조직 안의 사람의 연합이 아니다. 이런 조직에 속하기 위해 외적으로 나타내야만 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규정이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이런 조직은 순전히 세상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조직은 내 뜻과 완전히 반대이다.

내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일은 자유의지로 나를 추구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 나를 믿는 믿음과 또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강요하거나 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없다. 나를 향한 사랑은 의무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온전함을 믿는 믿음을 통해 깨어난다. 이런 믿음은 실제로 가르칠 수 있지만 요구할 수 없다.

(1950년 7월 26일) 사람은 나에게서 그의 영원한 창조주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을 받은 후에 스스로 믿음에 도달해야만 한다. 스스로 성취한 이런 믿음이 비로소 사람을 내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수많은 회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성취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는 조직은 내 교회가 될 수 없다. 왜냐면 비록 조직 안에서 믿음과 사랑 모두가 설교될지라도 내가 세운 교회에 속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지를 활성화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 조직처럼 사람이 조직을 세우는 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항상 또 다시 강조한다. 세상 조직 안에는 내가 절대로 인도자의 직분을 준적이 없고, 섬기는 일보다는 더 많이 다스리는 일을 하고, 그들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들 자신이 아직 생각을 통해 확신을 가진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고,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생명력이 있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세운 교회에 속하지 않는 서로 다른 계급의 인도자들이 있다.

그들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의 대리자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 자신에게 진리에 합당한 지식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전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하지만 후계자가 아니다. 왜냐면 그들의 믿음은 믿음의 시험을 받으면 바위와 같은 강함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세운 교회는 자신을 입증할 것이고, 지옥의 문이 내 교회를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뜻이 예견했던 대로 그들의 교회의 벽을 흔들면, 그들의 교회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이고, 단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광신자들이 굳게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확신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광신주의로 자리를 지키고 나는 이런 일을 신실함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왜냐면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접하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요구하고, 그들이 보게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눈이 먼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너희에게 내 말씀을 묵상하라고 요청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내 교회를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런 내 말씀이 너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생각해보기를 요구한다. (1950년 7월 27일) 나는 너희가 이 말씀을 진리에 합당하게 해석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또한 인간의 해석이 내가 나의 말씀 안에 넣어준 영적인 의미와 언제 일치하지 않는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너희가 단지 순수한 진리를 추구하는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자신을 이 땅에서 나의 대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가르침을 받는다면, 너희는 이를 깨달을 수 있다. 나의 올바른 대리자들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이웃에게 내 말씀과 내 말씀의 깊은 영적 의미에 대해 올바른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대리자들은 비록 이 땅의 조직에 속하지는 않지만 내가 세운 교회에 속해 있다. 나의 올바른 대리자들은 또한 내 이름으로 모든 영적인 조직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릴 것이다. 왜냐면 올바른 진리에서 멀어진 모든 것은 비록 사람들이 그들의 교회가 정복당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변할지라도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내가 이 땅에 세운 교회가 정복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 공동체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인 공동체이다. 그들은 이런 믿음을 통해 자신을 내 형상으로 만들 수 있고, 생명력이 있게 믿을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이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내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들 안의 이런 영의 역사는 항상 그들이 내가 세운 교회에 속했다는 증거이고 증거로 머물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는 왜 내 쉬운 설명을 영접하지 않고 내가 너희 인간들에게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영접하지 않느냐? 내가 내 전적인 사랑의 힘을 너희에게 비추면, 너희는 소멸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을 너희는 왜 영접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너희가 나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내가 예수 안의 한 형체를 창조했다는 설명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들의 영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기록에 기초해 예수와 나를 분리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혀된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도 소멸되지 않으면서 볼 수 없고 사람들이 예수 안의 나는 볼 수 있다. 나와 예수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곳은 오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면 그런 일은 항상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아주 적은 수를 제외하고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로써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기록이 생겼다. 예수님 옆에 하나님인 계셨다고 말하는 기록이 있으면, 이는 항상 잘못 된 기록이다. 스데반이 실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는 빛나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가 본 것을 순수한 인간적인 개념과 연관시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었다고 추가시켰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나는 측량할 수 없게 밝은 화염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밝은 화염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없고 너희의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희는 밝은 화염을 볼 수 없다. 비록 온전한 상태일지라도 나는 측량할 수 없이 강해 너희가 접촉하면 소멸되어 버린다. 나와 내 오른편에 있는 예수를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비유로 그에게 말하고 있고 스데반의 영으로 본 후에 부르짖은 것을 그대로 묘사하지 않은 성경 말씀에 묶여 있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본 가르침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이다. 이런 가르침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이다. 존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일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존재로 계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한 형체를 만들어 자신을 발산했고 내가 예수라는 형체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간이 된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 세분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물론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의 상태에 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 원한다: 너희는 이런 가르침을 버릴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너희는 한때 나에 의해 주어진대로 너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모든 진리에 합당하게 내 말씀을 받았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나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은 가장 순수한 진리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가장 순수한 진리를 더 이상 알지 못한다. 너희는 이를 가지고 진리에 합당하지 못한 잘못 된 가르침을 만들어 냈고 너희는 이제 이런 잘못 된 가르침을 나 자신이 가르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나는 항상 내 영을 부어줄 수 있는 그릇을 택하고 그는 영이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전할 수 있다. 그는 너희가 서로 논쟁하는 문제를 너희에게 설명할 수 있고 이런 설명이 너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단지 진리가 너희를 목표에 도달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진리를 끊임없이 이 땅에 전하기 원한다. 이로써 어떤 사람도 진리에 관심이 있으면, 내 대

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한다. 너희는 단지 긴밀하게 갈망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너희에게 전해질 수 없다. 왜냐면 이런 조건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내가 세운 조건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원하면, 너희에게 확실하게 진리가 전해질 것이고 너희는 확실하게 너희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고 너희는 영원히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얼마 동안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순수하게 유지가 되었는가?

B.D. No. 8890

1964년 12월 5일

나는 단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내 음성을 듣기 원하는 너희에게 다가간다. 너희는 이미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했다. 얼마 동안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순수하게 유지가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순수하게 유지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영으로 직접 역사할 수 있는 동안에는 내 가르침이 항상 순수하게 남았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내 영이 그 안에서 더 이상 쉽게 역사할 수 없고 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내 가르침이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된 일은 이해할만 하다.

내 첫 제자들과 그들의 제자들은 나와 깊이 연합이 된 가운데 머물렀고 그들은 아직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받은 인상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오래 지남에 따라 이런 인상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첫 제자들이 증거한 역사가 엄청난 역사였기 때문이다. 이런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영접하는 많은 추종자를 얻게 했다. 그들은 동시에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이로써 그들의 영의 깨어나는 일에 도달했다. 이런 동안에는 내 가르침이 순수하게 유지되었고 그들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었고 내 첫 제자들은 항상 또 다시 사도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어 세상으로 파송할 수 있었다.

모든 보냄받은 사람들은 내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고 그들은 항상 단지 자신 안에서 그들이 말해야만 하는 말씀을 들었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내 가르침이 갑작스럽게 희석 된 것이 아니고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직분을 가진 자로 택하거나 또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저런 사람들이 직분을 맡거나 또는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직분을 맡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내 가르침이 희석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왜냐면 초기의 공동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해 단체들을 이루게 되고 자신을 스스로를 높이 세운 사람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는 부족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없는 지식이었다.

초기에는 선한 사람의 인도를 받았던 조직이 만들어 졌다. 그러나 이 조직이 항상 세상적인 형식을 받아들였다. 이 조직은 실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조직의 과제로 삼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목적도 또한 추구했고 이로써 내 교회라는 증거인 영을 통한 내적인 깨달음을 더 이상 보여줄 수 없게 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단지 죽은 문자에 주의를 기울이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다. 나 자신이 이 땅에 세운 교회는 변화되지 않았고 이 교회는 나를 생명력 있게 믿는 사람들과 자신 안에서 내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내 교회는 내가 그들의 생각을 인도해 단지 올바르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나와 생명력 있게 연결 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교회가 모든 시대를 거쳐 유지가 되었고 이런 교회는 큰 교파들 안에 남게 되었다. 왜냐면 생각과 의지와 행동이 생명력이 있는 이런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든 교파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순수하게 교회가 유지가 되었는지를 시간적으로 말할 수 없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내가 단지 나와 연합 된 것을 알고 계속하여 나와 교제하는 가운데 머물고 나를 믿고 내가 영을 통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여긴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교파 속에 나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든 곳에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내고 깊은 지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첫 번째 위치에 선 것으로 여기고 이미 엄청나게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만한 올바른 그릇으로 인정을 할지를 정했다. 내 올바른 제자들의 숫자는 이미 염려스럽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그들을 민족들에게 사랑의 복음인 내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한다. 왜냐면 단지 사랑을 통해 사람들이 내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영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단지 이런 사람들이 하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내가 단지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고 내 영원한 계획을 알려줄 수 있다. 왜냐면 이런 일이 인간의 혼의 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교회의 관습과 의식들을 유지하기 위한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단지 사랑을 행함으로 생명력이 있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혼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나는 내 첫 사도들에게 단지 이런 깨달음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명했고 나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단지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내 교회로 받아들인다.

아멘

그리스도의 두 번째 탄생.

B.D. No. 3768

1946년 5월 12일

O | 땅에 내가 임한 때는 생각이 완전히 흔들리는 때였다. 이 때는 가장 사랑이 없고, 가장 깊은 불신의 시기였다. 이 때는 인류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시기였다. 그러므로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인류를 돋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임했다. 각 개인의 세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유일하게 영적인 위험이 내가 이 땅에 임하게 했다. 왜냐면 이런 영적인 위험이 영원한 기간 동안 확실하게 멸망을 받게 하는 일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임했다. 왜냐면 기록된 말씀이 그들의 심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거했던 인간 예수의 입술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왜냐면 나의 말씀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축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의 상태에 다시 이 땅이 도달했고, 똑같은 큰 영적인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태는 인류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인류에게 절망적인 상태이다. 사랑

없음이 우의를 차지하고, 믿음이 식었고, 기록된 말씀이 사람들에게 무의미하게 되었다. 왜냐면 그들은 더 이상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므로 스스로 그들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선포한 것처럼, 나 자신이 영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다시 임했다.

나는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영을 통해 그들 안에서 나 자신을 알리고, 그들에게 다시 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일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일이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일 외에 달리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 일을 위해 나는 사람을 사용해야만 하고, 사람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즉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개선되게 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 나는 단지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할 수 있다.

나의 말씀은 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모든 순수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만 한다. 이로써 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 있게 돼야 한다. 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너희에게 다가가고, 나는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땅으로 다시 내려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나는 너희가 맞이하게 될 때에 대해 알려준다. 왜냐면 나는 너희가 너희의 혼을 대한 큰 책임을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에게 종말에 대해 알려주고, 너희를 훈계하고 경고하고, 조언을 해주고, 너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한다. 모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임재는 부인할 수 없다.

왜냐면 나를 한번 깨달은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창조주와 그가 창조한 피조물과의 연결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의 임재를 거부하지 않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재하는 일이 그에게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그는 또한 내가 나로부터 직접 나온, 즉 나를 증거하는 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의 임재를 증명하기 원하는 일을 믿을 것이다. 이런 일은 내가 예언한 대로, 종말 전 마지막의 때에 일어날, 내가 두 번째로 이 땅에 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확실하게 이런 종말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면 나 자신이 마지막 종말 전에 일어나는 일의 증거를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말씀과 기록으로 선포한 모든 일은 성취된다. 왜냐면 나의 말씀이 진리이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진리로 머물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 과정. 승천.

B.D. No. 4847

1950년 2월 26일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의 날에 내가 다시 오는 일을 의심한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들은 종말의 때의 개별적인 단계를 깨닫고 또한 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다. "나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만으로도 이미 나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적으로 눈에 띄게 너희 가운데 머물지 않는 일이 너희가 나의 말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해야만 한다. 나는 세상이 끝날까지 영적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 왜냐면 내가 승천한 후로 어느 때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그들에게 임재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

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영적으로 나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했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한다.

그러나 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나의 재림을, 구름 속에서 내가 다시 임하는 일을 예고했다. 그러므로 이 재림은 내 제자들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듯이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너희가 내가 임재하기에 합당함을 증명한다면, 나는 항상 영적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나 나는 육체적으로 다시 온다. 비록 세상적인 몸이 아니지만, 내가 다시 재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온다. 그러나 나는 재림을 예고했고,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나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 종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속한다면, 너희는 확실하게 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다.

내가 승천하기 전에 이유가 없이 이런 약속을 해준 것이 아니었다. 나는 종말의 때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고, 또한 나에게 충성을 지키기 원하는 아주 심하게 억압을 받는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고난을 보았고, 그들이 내 이름을 위해 싸워야만 하는 가장 어려운 싸움을 보았다. 나는 그들의 의지를 보았고, 마귀들 가운데 이겨야만 하는 큰 위험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개인적인 도움을 약속했고, 때가 되면, 이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나 자신이 나에게 속한 사람에게 다가가 마지막 싸움에서 그들을 돋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항상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큰 위험 가운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보겠지만, 나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고, 위로부터 와서, 너희가 볼 수 있는 형체로 나를 감싼다.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은 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평화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구름 속에서 온다. 이런 재림은 하늘로 올라가는 나의 승천과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빛 속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으로 덮여 있을 것이고, 이 땅으로 내려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가장 큰 환란과 지하 세계의 악마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또한 이 땅 안에, 이 땅 위에, 공중에 사는 모든 것이 희생되는 마지막 파괴의 역사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나 구름 안에서 재림하는 일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단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의 대적자의 추종자들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일은 영적인 재림이다. 그러나 또한 세상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영이 거듭나고, 깊고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즉 세상의 종말까지 나의 지속적인 임재와 또한 내가 볼 수 있게 재림하는 일을 의심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의 재림을 감지할 수 있다. 왜냐면 심장과 사람 안의 영의 불씨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러므로 그들이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는 사람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재림할 것을 믿고, 나는 그들의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내가 재림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이 땅의 종말이 가까워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임해 이 땅이 해체되기 전에 내가 또한 구름을 타고 임해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지구가 별처럼 소멸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구 표면 전체의 재형성이 단지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그럴지라도 너희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파괴와 같다. 왜냐면 살아 있는 어떤 것도 이런 파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마지막 멸망의 역사를 피하게 해주기 위해 나 자신이 이 땅으로 임할 수 있다. 왜냐면 나를 믿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마지막 멸망의 역사를 겪고 이 역사를 나중에 보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을 모르고 내 대적자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들을 해치려고 할 때 내가 직접 임할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심한 곤경에 처할 것이고 그들의 확고한 믿음이 단지 그들을 유지하게 하고 저항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내가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고 내가 그들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내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빛을 가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속한 사람들 사이에 큰 기쁨과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심판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비록 나를 볼 수 없지만 그들이 쫓던 자들이 그들의 눈 앞에서 위로 사라지는 이상한 현상을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이 그들에게 심판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의 사악함이 갑자기 그들에게 드러날 것이고 이제 그들이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종말이 그들에게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이 때에 그들이 나를 볼 수 있게 되면, 그들은 틀림 없이 나에게 손을 벌릴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나에게 복종하는 일은 전혀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런 믿음은 나 자신의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인한 강제적인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휴거가 마지막 시간에 아직 나를 믿는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할 수 있고 나는 진정으로 마지막 시간에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이 대적자의 속박에 빠져 있고 더 이상 그를 벗어날 수 없고 그러므로 그들은 땅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다시 굳은 물질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심판의 날에 내가 임하는 일을 의심한다. 그러나 내 약속은 성취되고 내가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나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가장 깊은 환난에서 진정으로 구원을 얻고 그들에게는 어떤 일도 더 이상 초자연적인 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그들이 확실하게 깨달은 종말과 연관이 있다.

종말이 임할 것이고 내가 한때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나 자신이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나를 믿는 내 제자들은 모든 영광 가운데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비유로 하는 말이 아니고 미래의 사건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내가 약속한 대로 문자로 기록 된대로 일어날 것이다. 내 대적자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 너희가 특별하게 괴롭힘을 당할 때 너희는 매일 이런 일을 기대할 수 있다.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면, 너희는 곧 마지막 때

가 올 줄로 알라. 왜냐면 이런 일이 대적자의 마지막 역사이고 대적자의 최종적인 패배로 끝이 나는 이땅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새 땅에서 평화의 기간이 시작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이 땅으로 임하고 너희가 휴가 되는 일로 이번의 이 땅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며 내가 데려갈 너희는 이런 낙원과 같은 세상의 거주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새 땅의 낙원에서 평안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세계관.

B.D. No. 2304

1942년 4월 16일

예 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세계관이 단지 백성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또한 세상적으로 번영하게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왜냐면 그런 세계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시키는 데 큰 고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난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세주를 본보기로 삼고, 그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백성들은 단지 세상적인 삶만을 살지 않고, 때문에 물질적인 관심이 없게 되고, 영적인 재물을 추구할 것이다. 그들은 내적인 삶을 살고, 높은 곳을 구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 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사랑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사랑을 행하는 일이 그들에게 지식을 주기 때문이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신들을 세상에 바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물질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불잡힘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을 그들의 삶의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된 백성들은 높은 성장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백성들은 절대로 이웃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평화롭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들의 권세를 키우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조용히, 은둔 생활을 하고, 그러므로 세상의 관심을 적게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인정을 받는다. 이런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의 기원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인간의 가르침으로 대체하기 원하는, 다른 견해가 관철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이런 관점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한히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관도 속한, 하나님이 기원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 싸울 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절대로 파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관은 무너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세계관을 가진 백성들도 길거나 짧은 시간 내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했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구원
을 받는가?

B.D. No. 3277

1944년 10월 2일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로써 나를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난다. 그들이 이 전에 모든 질문 앞에 나와 긴밀하게 연결을 이루고, 설명을 간구하고, 설명이 주어지면, 저항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했다는 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고, 구속사역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또한 내 피가 죄짐으로부터 구원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 위해 인간 자신이 어느정도 역사해야만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나의 구속 역사를 영접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고, 내가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의 구속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계를 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서 자신을 제외시킨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는 사람이 단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반면에 나와 나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 받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이 나의 피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다시 중요하고, 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만일 사람이 나와 나의 사랑의 역사를 믿지 않고 그의 죄를 용서 받게 된다면, 그는 그의 뜻과는 다르게 자유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나의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다. 왜냐면 그러면 내 공의와 내 사랑이 모두 무력화되고, 인간이 이런 상태를 활용하여 나에게 연결을 이루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말씀은 진리이다.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고,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했다 말씀에 진리가 아닌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의지가 그들이 구속 받기 원하는지, 그들이 나의 사랑의 역사를 영접하기를 원할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의지를 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 전체가 단지 나의 구속사역을 믿으면,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인류의 구원자로써 나를 거부할 때, 그는 가장 깊은 어두움과 자신의 죄에 묶여 있는 상태로 머문다. 그러므로 인류의 가장 많은 대 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가 더 이상 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나의 구속사역이 그들에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죄의 용서를 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에게 재촉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에게 나 자신을 제공하고, 항상 또 다시 그들의 혼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나로부터도 망친다. 나는 그들의 죄와 죄짐으로부터 해방시킬 은혜의 선물을 그들에게 제공하지만, 그

러나 그들이 이 선물을 거절하면, 이런 선물은 그들에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죄는 용서 받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나의 대적자를 위해 싸우는 무리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에 의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때 까지 아직 나의 대적자에게 묶여 있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실제 그들의 자유의지로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거부하는 일을 통해, 또는 전적으로 믿지 않는 일을 통해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수혜자라는 방식으로 나의 구속사역을 제시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단지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그를 위해 그의 죄를 짊어졌고, 그를 위해 내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나는 실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었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내가 모든 사람의 죄짐을 내 어깨에 짊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짐으로 나에게 넘기지 않고, 이로써 그들은 또한 자신의 죄짐을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죄짐이 너무 강력해서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또한 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짐을 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바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행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 없이 모든 죄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느냐? 너희를 위한 은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내 사랑이 너희를 위해 희생했고, 내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내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나의 사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짐을 해결해줄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의지가 변화되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구세주를 인정할 때 까지 너희의 죄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아멘

인정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B.D. No. 5844

1954년 1월 3일

너희 사람들은 단지 나를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밖에 없다. 거부하는 일은 너희에게 전혀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고 너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면 나를 거부하는 일은 그가 아직 전적으로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가 공개적으로 나에게 저항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인정하는 일은 그가 전적으로 내 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그가 영원한 내 질서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일을 의미하고,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여기고 나를 추구하는 일을 의미한다. 나를 추구하는 일은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가능하다. 왜냐면 단지 사랑의 삶이 나와 연합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단지 “예” 또는 “아니오” 만을 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단지 입술로 나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입술로 말한 것에 심장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회피하는 말로 사람들이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의 방식이 나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일을 알게 해주지 않고, 너희의 삶의 방식에 사랑이 없고, 너희 심장 안에 내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너희 안의 믿음이 아직 아주 생명력이 없어 너희의 혼에 대한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긴밀하게 도움과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너희의 길을 갈 때, 너희가 나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너희의 모든 말은 단지 너희의 진정한 혼의 상태에 대해 내가 속지 않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고, 나 자신을 거부하는 일과 같다.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또한 나와 함께 살고, 그는 계속해서 항상 또 다시 나와 생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나와 긴밀한 대화를 하고, 내가 아버지처럼 그에게 말하게 한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내 자녀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영원히 되찾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고, 구속받은 사람들에 속한 사람이다. 왜냐면 구속 역사의 은혜를 통해 나에게 다가가려는 그의 의지가 단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 단지 나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은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은, 즉 의식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나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된 사람이 비로소 나를 진지하게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람들을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 자신에게 너희가 얼마나 진지하게 나를 추구하는지, 어느 정도 추구하는지 질문해보라. 너희가 아직 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았고, 너희가 단지 외적으로 나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기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 삶의 방식이 나와의 모든 연결을 이루지 않으면, 너희가 나에게 속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믿지 말라.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을 아직 찾지 못했고, 너희가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하게 호소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이 없이 아직 대적자의 결박 속에 있다면, 말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한 기독교 교파에 속하는 일이 너희를 내 나라의 후보자가 되게 하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죄를 고백해야만 하고, 그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로 말미암은 속죄를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의 부름이 들리면 큰 소리로 "예"라고 답하는 무리에 속하게 되고, 아버지께 달려가고, 최종적으로 내 대적자와 결별하고, 나를 긴밀하게 사랑하고, 나와 결혼하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나에게 속해 머무는 사람들에게 속하게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고난.

B.D. No. 5847

1954년 1월 7일

O 땅의 어떤 사람도 예수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측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사람이 아직 영화되지 못한 동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이 예수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육체의 고통보다 혼의 고통이 훨씬 더 커기 때문이고, 예수는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자신이 스스로 악의 권세들에 맞서 싸웠기 때문이고, 그

의 빛의 혼은 이런 어두움 앞에서 몸서리쳤고, 그의 혼이 그의 몸보다 더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런 끔찍한 고통을 알고 있지만 너희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상상할 수 없다. 너희가 영의 나라에서 너희 혼이 빛 가운데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궁합의 역사가 너희에게 보일 때 너희는 비로소 그의 구속 역사의 크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너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되고, 영적인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돋기 위해 극도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인 인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 된다. 너희는 그가 죄없이 고난을 당했고, 그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순수하고 사랑이 충분한 분이었고,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인해 힘과 권세가 충만했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벼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가 그분의 고통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의식적으로 그의 편에 서야 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를 자신에게 부르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너희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그의 사명을 믿기를 원하고, 너희가 하나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임했고, 하나님이 단지 인류가 죽음에서 구속받도록 하기 위해 그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허락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속죄받지 않고 머물 수 없고 인간 자신이 결코 속죄 할 수 없는 죄에 대해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믿기를 원한다.

인간 예수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화목케 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원죄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일임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 너희는 단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필요하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적 사건일 뿐 아니라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사랑이 너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인간 예수가 하나님과 자신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고 그러므로 영원한 사랑이 인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고 이로써 모든 기적과 예수의 지혜를 단지 설명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 이상이라는 것을 너희는 단지 믿어야 하고, 이제 직접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두고, 너희가 예수가 사람들을 위해 구속 역사를 완성한 사람들의 무리에 또한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너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혼을 구속할 것이다. 왜냐면 혼이 대적자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고, 구세주 예수가 자신을 영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혼이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할 것이고, 자신에게 자유를 준 분에게 자신을 드릴 것이고, 온 세상 앞에서 그의 이름을 고백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든다.

B.D. No. 8973

1965년 5월 9일

너희가 너희를 위해 다시 빛의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 너희 죄를 위해 가장 쓰라린 고통과 죽음을 짊어진 내 끝없는 사랑을 마음에 새긴다면, 이런 속죄의 역사만으로도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긴밀함으로 나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끝없는 사랑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너희는 더 이상 이런 사랑을 드릴 수 없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여전히 너희를 묶고 있고 그가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완전히 무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면 너희 안에 너희가 단지 내 사랑의 작은 불씨를 너희 안에서 밝은 화염으로 자라게 하면 되는 내 사랑의 작은 불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너희의 자유의지가 요구되고 그러므로 나에 의해 또는 내 대적자에 의해 강요받지 않는다.

이런 자유의지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 의지가 나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의지가 또한 대적자에게 완전히 굴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향한 단지 작은 의지만으로도 이미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고 계속하여 너희를 향한 끝이 없는 내 사랑을 증명해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대적자에게 대항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예수 안의 나 자신을 부를 때 너희의 의지는 강해질 것이다. 너희는 내 대적자로부터 벗어나고 빛을 추구하고 목적을 가지고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살게 되고 또한 나와의 연합에 도달하는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너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너희는 먼저 너희를 창조한 권세를 믿어야 한다. 너희가 이런 권세를 인정하면, 너희가 쉽게 생각으로 이런 권세와 연결을 이루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를 믿는 믿음이 이미 이 전의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너희 안의 모든 믿음을 흔들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발적으로 나에게 향하고 나는 너희가 나에게 인도하는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도울 것이다.

나는 무엇보다 너희에게 내가 그 안에서 사람이 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줄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줄 것이다. 너희가 그를 알고 언제든지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가 나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이 땅의 인간이 된 이유인 너희의 죄를 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고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는 아주 권세 있고 지혜롭고 사랑이 충만한 존재를 믿을 수 있게 된다. 너희가 이 존재가 지극히 온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존재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 존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과 이 전의 타락한 죄로 인해 너희가 아직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존재가 너희를 다시 되찾기 원하고 너희의 사

랑이 십자가에서 죄짐을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때 유일하게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너희의 사랑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이 유일하게 너희가 나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고 빛의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 위해 유일하게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유일하게 너희가 가장 풍성하게 소유했었고 포기했던 모든 능력들을 돌려준다. 사랑이 유일하게 나와 너희 사이의 연결을 이룬다. 왜냐면 나 자신이 사랑인 것처럼 사랑이 너희의 원래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런 일은 이미 너희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갖게 한 불씨가 깨어난 것이고 이 불씨는 계속하여 더욱 타올라 마침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또한 너희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생각을 통해 나와 연결을 이루는 일 외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너희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즉 올바른 생각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진리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 전에는 너희에게 닫혀 있던 영역을 너희가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일은 내 사랑의 힘이 전달되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여다 보는 일은 항상 너희가 어떤 사랑의 정도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게 하라. 왜냐면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너희에게 선명한 생각을 주고 또한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할 힘을 주고 사랑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깨달으면, 너희도 또한 확실하게 온전하게 되는 길을 가게 되고 너희가 한때 자발적으로 떠났던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이름이 마귀를 물리친다.

B.D. No. 6169

1955년 1월 19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마귀에게 물러가라고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는 확실한 수단인 너희의 주님인 구세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전적인 믿음으로 이 이름을 말하면, 이 이름은 모든 악한 세력들과 내 대적자의 사명을 받아 역사하면서 너희를 압제하는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내 이름의 힘으로 말하면, 이런 세력들은 너희를 떠나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멸망 받지 않기 위해 내 이름을 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단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자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자신을 드리는 일이다. 너희는 나를 부르거나 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주기를 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악한 존재도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의지가 너희를 해치기 원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선행 조건은 너희 자신이 나에게 속하기를 원하는 일이고 너희에게 나 자신과 내 기쁨을 얻으려는 진지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너희가 의식적으로 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내 대적자가 너희를 더 난폭하게 공격할 것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너희가 나를 떠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 자신의 나라를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로

제시할 것이다. 그는 가면을 쓰고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의 감각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그가 요구하는 것을 가능한한 갈망할 만하게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그가 요구하는 일이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는 이미 너희를 유혹할 올바른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연결을 구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그와 그의 음모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너희는 항상 나를 불러야 하고 너희 자신이 의심에 빠지거나 또는 너희가 내 대적자의 위협을 느낄 때 너희는 항상 전적으로 긴밀하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너희는 단지 나를 너희 심장에서 쫓아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내 대적자에게 유리한 싸움이 되고 너희가 대적자의 욕망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이 종종 그에게 저항하기에 너무 연약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적자를 알고 대적자의 주인인 분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긴밀한 부르짖음이 너희를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고 예수 이름을 깊은 믿음으로 부를 때 예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 왜냐면 너희가 예수 안의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 자신을 부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너희 혼이 스스로 나를 갈망하면 너희를 진실로 너희 혼을 얻기 위해 대항하여 싸우는 대적자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아멘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강한 의지를 얻는 일. 의지의 평가.

B.D. No. 7035

1958년 2월 6일

설

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경우 의지로 충분하다. 왜냐면 사람은 그의 의지가 어디로 향하는 지에 따라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면 단지 말만으로 충분치 않고 진지한 의도가 있어야만 하고 진지한 의도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진지한 의지를 알아 채자 마자, 너희에게 능력이 제공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도무지 진지한 의도를 갖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의지에 기초한 결정이야 말로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지의 강화를 체험하지 못할 때 너희가 전혀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비록 모든 사람이 의지적으로 나를 향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의지의 연약함에 빠진다. 그러므로 자주 자신의 의지를 따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나를 향한 의지의 변화가 내가 그를 구속역사의 은혜의 샘으로 인도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그가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가 사랑의 행위를 하게 내 영을 통해 그에게 역사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그가 내적인 촉구를 따르면, 그는 능력을 받는 일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비로소 확실한 영적인 성장을 가능케 한다. 왜냐면 이 도움이 없으면, 내 원수 곧 사람에 대한 권세를 가진 내 대적자의 공격으로 그의 의지가 항상 계속 마비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아직 그의 죄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나는 나에게 드려진 의지를 아주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을 선택하기까지 쉬지 않는다. 왜냐면 사람이 단 한번 내면에서 나를 깊이 생각하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내 대적자에 대항해서 싸울 권리가 있다.

만약 사람이 이제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의 의지는 더 이상 쉽게 약해지지 않고 의식적으로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는 그의 의지대로 행동으로 옮길 것이며 이로써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혼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왜냐면 예수그리스도의 도움은 의지를 강화하는 데에 있지 않고 실제 이웃 사랑을 행할 계기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사랑의 행하는 일을 방해하는 법을 잘 알고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의 심장을 굳게 해서 그들이 그들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안다. 이런 추종자들은 사탄의 진정한 종들이다. 왜냐면 그들은 영적 성장에 결정적으로 간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왜냐면 사람이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곳에는 나는 그의 의지를 이미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의지가 아주 약해 내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신적인 사랑의 계명을 무효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심장을 보고 평가하고 외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도 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사역을 요구하는지 왜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에게 진지한 도우려는 의지가 있지만 강요에 의해 실행하지 못해야만 하게 된 경우 행한 것과 같이 평가하는지 너희는 설명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진실됨이 부족한 유일한 의지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의 의지는 아주 연약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연약한 의지를 극복하기 위해 구원의 은혜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목표인 내 뜻대로 행하는 일을 큰 열심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다. 너희의 목표는 나를 향한 사랑이 커지고 너희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커져서 이로써 너희가 하늘나라를 얻는 일이다.

아멘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B.D. No. 7442

1959년 10월 31일

너희가 너희 죄에 대한 용서를 진지하게 받기 원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면, 너희 모두는 너희의 죄에 대한 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로 가지고 간 죄짐은 엄청나게 컸다. 왜냐면 내가 짊어진 죄 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짐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인류가 범한 원죄였고 이 땅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행한 모든 죄였다.

나는 모든 죄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갔다. 비록 죄가 아주 크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이 죄를 짊어졌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로부터 너희를 속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깨끗한 심장을 다시 주기를 원했고 그러면 너희가 단지 유일하게 깨끗한 심장 안에서 나에게 다시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얼굴을 대면해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나는 너희 모두를 너희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 주기 원했다. 나는 너희를 짓누르는 죄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게 나로부터 떨어져 있게 만드는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행하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구속사역을 통해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구속받으려는 의지를 요구한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나에게 구해야 한다. 왜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가 인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의 죄짐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항상 구속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다가와 너희의 구속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내 대적자가 영원한 기간 동안 너희를 뛰어 두고 있는 연약함과 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어두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에게 충만해지고 너희 안의 사랑이 불이 붙어 밝은 화염으로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혀 사랑이 없는 자가 너희를 더 이상 자신의 권세 아래 두지 못한다. 자신이 사랑인 분이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 심장 안에 자신의 빛을 비춘다. 왜냐면 심장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 주었고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고 너희 심장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로부터 구속을 받으면, 너희는 그의 뜻에 따라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사랑을 통해 나에게 성전으로 준비한 너희 심장 안에서 거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피할 수 없게 너희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하고 받았어야만 한다. 진지하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일이 너희에게 전적인 용서를 보장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짐을 진 심장이 자신을 부르는 모든 부름을 듣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너희 요구를 성취시키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내 심장으로 끌어 드린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그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서 내 피를 흘린 구속받은 사람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너희의 죄의 고백을 원한다. 고백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왜냐면 너희 모두가 자신이 연약하고 불행한 피조물임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나 자신이 그 안에서 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구속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자유가 없이 영의 어두움 가운데 살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이웃을 향한 사랑은 아주 커서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원했고 자신 안에 거하는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그들에게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죄를 해결하기 원했다. 그는 그의 사랑이 아주 커서 모든 사람이 단지 아버지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축복에 도달하게 돋기 원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게 했다. 죄는 나와 존재들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을 했다. 이 간격은 극복돼야만 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속사역과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간격을 극복했다.

그는 사람들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도달하게 도왔고 그는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모든 사람이 축복될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너희가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라. 너희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구하라.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너희는 깨끗함을 받고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향하는 길과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보다 먼저 간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길을 열어준 것이다. 축복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가야만 한다.

아멘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아래로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B.D. No. 8983

1965년 5월 26일

너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는 말을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자주 말해줘도 충분할 수 없다. 나도 어느 누구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로부터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 모두가 인간 예수가 죄짐을 위해 속죄한 죄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전에는 예수가 단지 너희를 위해 열 수 있는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구속사역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고 말해줘야만 한다. 왜냐면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이 아주 약하고 사람들이 항상 구속사역을 사람이 믿게 만들려고 시도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전설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중요한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임했고 또한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갔고 모든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장 쓰라린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함으로 이 사명을 완성했고 그의 십자가 아래 서고 구속받은 무리에게 속하기를 원하고 그에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혼들을 위해 빛의 나라의 문을 열었다. 왜냐면 구속역사와 그의 은혜를 받아드리려는 자유의지가 비로소 너희를 묶고 있는 자가 채운 너희의 사슬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때 자발적으로 그를 따랐고 그로 인해 나를 대항해 죄를 지었다.

더 이상의 증거를 너희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없다. 너희는 인간 예수가 너희를 위해 나에게 속죄를 드리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항상 또 다시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영을 통해 체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바로 이런 사람 안의 영의 역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의 역사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고 인간이 아직 원죄의 짐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 묻혀 있던 인간 안의 능력들이 다시 발산되는 일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영의 역사는 항상 영원히 일어날 것이다.

인간 예수가 원죄 때문에 이룬 큰 긍휼의 역사에 대해 사람들은 항상 영원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너희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이고 사랑이 인간 예수를 이끌어 그가 큰 고통을 감당하게 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사랑이고 사랑이 모든 충만함으로 인간 예수를 채울 수 있었고 이로써 사랑 자신이 구속역사를 성취시켰고 인간 예수는 내가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 있게 하는 내 걸형체였다. 그러나 그는 이제 나와 연합 된 내 모든 존재를 위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머물기 위해 자신의 몸을 유지했다.

축복된 영의 나라의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고 왜 원죄가 너희를 나와 영원히 분리시켰는지를 너희가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고 내 공의를 위해 가장 큰 사랑의 희생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 외에는 원죄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때 자발적으로 떠나 모든 생명의 원수이고 너희가 죽음의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를 따라 깊은 곳으로 갔던 너희가 비로소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는 자유하고 너희는 또한 다시 축복되고 영원히 축복되게 머물 수 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게 가는 길을 택할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서 의지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대적자도 또한 너희를 자신의 뜻에 순종하도록 정할 수 없고 너희가 스스로 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의 고난의 길과 그의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너희 자신이 이런 속죄 역사의 원인이었다는 의식이 깨어나야 하고 이제 그의 십자가 아래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자발적으로 그에게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내 끝없는 사랑이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인간 예수 안에 거했던 내 끝없는 사랑이 너희의 사슬을 풀어주고 너희가 다시 내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게 하고 빛과 축복의 내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문을 너희를 위해 열어줄 것이다.

아멘

예수를 따르는 길.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길.

B.D. No. 3920

1946년 11월 1일

나처럼 온유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나의 대적자의 성품에 맞춘 모든 성품들을 버리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는 덕성을 쉬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영원한 아버지는 자체가 순수한 사랑이고, 단지 그와 같이 사랑이 된 피조물과 연합할 수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너희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 왜냐면 내가 인간으로써 너희와 똑같은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유일하게 혼의 완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모든 정욕에 대항하여, 모든 신적이지 못한 존재가 가진 성품들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모든 인간적인 실수가 없이 태어나, 나의 의지에 시험을 피할 수 있었다면, 나의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모범이 될 수 없었다. 나는 이 땅의 삶의 깊이를 통과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육체가 똑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을 자유의지로 행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죄의 유혹을 피해야만 했다.

나는 육신의 정욕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했다. 이 싸움을 통해 내 안의 혼을 강하게 하고, 영과 하나가 되기를 자원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악한 환경이 나의 사랑과 인내에 심한 시험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온유하고, 모든 심장으로 겸손하게 남기 원하였고, 거만해지지 말아야 했다.

유혹에 저항을 하지 못하는 이웃 사람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겼고, 나의 사랑은 증가하였다. 나는 바닥에 떨어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돋기 원하였다. 나 자신이 인간으로써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이러한 깨달음이 나의 온유와 인내를 강하게 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인간으로써 비록 죄가 없지만, 비록 내가 나의 의지의 능력으로 육체와 혼의 모든 유혹에 승리자가 되었지만,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은 사람의 혼에 처해볼 수 있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랑으로부터 얻었다. 사랑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울 힘과 의지를 가질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는 모든 덕성을 행하는 것이다. 그는 온유하고,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고, 평화를 심으며, 겸손하고, 공의롭게 될 것이다. 그가 이웃 사람을 사랑하면, 그의 생각은 전적으로 사랑으로 충만하다. 그는 쉽게 모든 연약함과 실수에 대항하여 싸운다.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사랑의 삶을 살라. 그러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모든 죄악된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 자신은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성품을 영원한 사랑과 함께 만들 것이고, 이 땅에서 이미 나와의 연합을 이룰 것이다.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는 일은 너희에게 확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제든지 나처럼 너희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인내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지하게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나는 너희가 십자가를 지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혼이 너희 혼의 성장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여한 십자가를 더욱 자원하여 진다면, 너희 혼은 더 빠르게 세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고, 나의 이 땅의 삶을 이 땅에서 너희의 모범으로 삼으라. 그러면 너희들은 절대로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의지와 사랑의 능력으로 너희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자유롭게 되고, 모든 신적인 성품을 가진, 끝없이 축복된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는 영의 나라에서 빛과 능력이 충만할 것이고, 영원이 복되게 살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

B.D. No. 8019

1961년 10월 15일

인간으로 이 땅에 삶의 길은 너희가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는 성장 과정에 마지막 짧은 단계이다. 그러나 너희가 마지막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올바르게 활용해야만 하는 자유의지를 되돌려 받고 인간으로써 너희 자신이 이 과정을 종료시킬지를 정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왜냐면 너희가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또는 영원한 기간에 대한 너희의 운명을 다시 정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올바른 방향을 가진 의지를 가지면, 너희가 너희의 이 땅에 육신을 벗어날 때 모든 형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이 땅에 삶을 활용하지 않고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사랑으로 다시 변화시켜야만 하는 너희 성품의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너희는 새롭게 가장 굳은 형태를 입을 수 있다.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인간으로 이 땅에 삶을 사는 유일한 목적이다. 너희는 이런 변화시키는 역사를 완성시킬 기회를 항상 가지고 있다. 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모든 지원을 하고 내가 내 피조물이 내 자녀로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그들이 목표에 도달할 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의지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들이 한때 나를 떠났고 이로써 깊고도 깊은 곳으로 빠진 것처럼 그들 자신이 자유의지 가운데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 혼자서는 너무 연약한 곳에 내가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감당하고 돋고 나를 너희에게 계시를 해주어 너희가 나를 깨닫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내가 너희가 단지 이 땅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제한이 없는 분량의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 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로부터 떠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너희의 의지를 정할 수 없는 내 대적자와 싸움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혼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충동과 정욕과 싸워야만 하고 너희가 성장하려는 이 땅의 삶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는 굳건한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너희는 나에게 요청을 해야만 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응답하고 너희를 영원히 더 이상 놓치지 않기 위해 나에게 끌어들일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너희의 완성을 이루는데 능력이 부족하게 될까 봐 염려할 필요 없다. 왜냐면 한 사람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 상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 능력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그의 구속역사의 은혜를 요구하고 그가 너희의 죄짐을 용서해주기 원하고 너희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 땅에서 완성시키기 위해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면, 너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그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그에게 향하게 하면, 너희는 나를 다시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떠나갔던 너희의 나에게 귀환이 아버지의 집인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이 보장 된다.

너희가 단지 나 자신을 모든 충만함으로 자신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면, 너희는 진실로 짧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마지막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원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자신의 피로 공의를 위해 큰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일을 통해 타락한 너희의 원죄를 내가 용서하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속죄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다. 왜냐면 사랑이 단지 이런 죄를 속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가 자신의 고통을 당하는 형제를 위해 이런 사랑을 드렸고 그는 이런 사랑으로 충만했고 이런 사랑이 인간 예수 자신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게 했다.

이런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나에게 향하는 길이 다시 열려지게 되었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나는 너희를 다시 내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그를 인정하면, 그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즉 그 안의 나를 인정하면, 너희의 죄가 예수를 통해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를 부르는 자는 나를 부르는 것이다. 언젠가 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얼굴을 대면해 나를 보게 된다.

모든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

B.D. No. 6363

1955년 9월 23일

너희 사람들이 모든 실수와 연약함과 죄와 정욕과 모든 종류의 부덕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고 온전하게 되기 원하면, 너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만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로써 너희가 그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믿음을 증명하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해 너희를 도울 수 있고 돋는다. 너희에게 싸워야 할 일이 있고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너희는 단지 그에게 도움을 청하라. 왜냐면 그 자신이 인간 예수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갚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는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은 자신의 은혜의 보물로부터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 필요한 힘을 너희에게 제공한다.

너희는 그에게 향하는 길을 헛되게 가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단지 도움받기 원하면, 너희는 확실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그와 연결을 이루고 이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다른 어떤 사람도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유일하게 그가 너희를 도울 수 있고 또한 돋기를 원한다. 왜냐면 그 자신이 너희를 끌어내리려는 모든 사슬로부터 너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가 이 땅을 떠나야만 하면, 그가 그의 나라에서 너희를 영접할 수 있도록 너희가 가졌던 온전함에 다시 도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원래 초기에 축복되었던 것처럼 다시 축복되도록 하기 위해 나는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너희의 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는 은혜의 선물이 부족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 혼자서는 더 이상 빛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돋기 위해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는 이런 제사가 헛되게 드린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희생제사의 은혜에 누리기 원하고 사람들 모두가 그가 자신을 희생한 목적에 도달하기 원한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그에게 다가가야만 하고 너희의 위험 가운데서 너희를 그에게 맡겨야만 하고 그의 도움을 구해야만 한다. 너희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그의 임재를 깨달아야 하고 단지 생각으로 그를 너희에게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는 너희 곁에서 너희의 모든 길을 함께 갈 것이다.

그와 생각으로 연결을 이루는 일이 너희에게 그의 임재를 보장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까이에 있다면, 그에게 형제에게 말하듯이 말하고 너희를 들어내고 너희를 짓누르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라. 그러나 비록 너희가 세상의 곤경을 위해 전적인 지원을 받을지라도 너희가 구하는 것이 주로 영적인 종류가 되게 하라. 그러나 먼저 혼의 상태를 생각하라. 너희가 혼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확신을 가지고 그가 너희를 모든 사슬로부터, 너희를 그와 분리시키는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를 구하라.

마치 너희의 형제들을 신뢰하는 것처럼 예수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너희 가장 비밀스러운 실수와 죄를 발견해내는데 주저하지 말라.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는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

이고 너희가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도록 도울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그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그를 믿고 그의 구속 사역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고 예수의 구속 사역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실수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왜냐면 그에게 어떤 능력도 없고 또한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을 착수하기 위한 의지도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의탁하기 전에는 그는 어떤 것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만 하고 그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는 비로소 구원을 받은 후에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 비로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일.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는 일.

B.D. No. 7622

1960년 6월 15일

내 사랑이 너희 혼이 성장하기 위해 너희에게 부여하는 고난을 너희가 인내하며 짊어지면, 이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증거이다. 너희는 항상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로 너희가 나를 따르게 요구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나는 확실하게 너희가 십자가를 지게 도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전적으로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항상 만약에 너희가 인내하며 너희 십자가를 지면, 너희 혼으로부터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만약에 너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구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 힘을 항상 제공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따르는 삶을 살면, 내가 항상 너희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이 오면, 이 땅에서 너희가 너희를 축복되게 하는 빛의 정도에 도달하게 너희를 돋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행하는 일과 기도와 생각을 통해 계속해서 단지 나와 연결이 된 가운데 거하라. 왜냐면 그러면 내가 항상 너희 가까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작은 십자가를 져야만 할지라도 너희는 확실하게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특별하게 사랑을 행하여 너희 혼이 성장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한 동안에는 염려가 없는 편안한 삶이 너희에게 축복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든 사람은 아직 사랑을 행하는 일에 소극적이고 그러므로 너희 혼을 위해 적은 것을 얻는다. 그러므로 너희를 정화시키기 위해 고난이 도움을 줘야만 한다. 어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내가 너희를 위해 짊어 졌는지를 언제든지 생각하라. 너희 스스로 너희의 죄짐 때문에 이런 고난을 짊어져야만 했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고난을 짊어질 힘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 죄를 넘겨받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고난을 짊어지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 십자가는 적게 보일 것이고 너희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길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빛의 나라의 문을 확실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앞서가고 너희에게 문을 열어 너희가 축복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인내하며 너희에게 부담을 주지만 그러나 너희 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고난을 견뎌라. 왜냐면 언젠가 혼은 빛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짊어지도록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쉽게 보일 것이다. 너희가 내가 너희 곁에서 갈 수 있게 하면,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을 내가 도울 것이고 너희는 짐을 무겁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각으로 나를 부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나는 단지 이런 부름을 기다린다. 왜냐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의지와는 반대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희를 혼자 두지 않는다.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체도 내 임재의 증거이다. 왜냐면 모든 인류의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간 내가 이를 통해 너희가 나를 따르도록 조용하게 경고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짓누르는 것에 인내하라. 내 사랑이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 사랑이 때가 되면 너희 십자가를 넘겨받을 것이다.

아멘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예수 그리스도.

B.D. No. 5733

1953년 7월 28일

너희가 자원하여 올바른 길을 갈 자세가 되어 있다면, 너희는 진실로 올바른 길에 대해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단지 내 인도에 너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되고, 너희는 올바른 길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너희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너희가 이 땅의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올바르고 공정하게 살기를 원하게 되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 자신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현재 의지가 나에게 인도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내가 인간 예수로서 너희 보다 앞서 이 길을 갔고, 내가 인간 예수로서 너희에게 너희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보여 주었고, 내가 인간 예수로서 사람이 그 길을 갈 때 성취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너희에게 제공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인간 예수의 이 땅의 삶을 보여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에 대해 알려주고, 그가 너희를 도와 같은 길로 가게 한다. 왜냐면 이 길이 단지 나에게,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땅에서 목표에 도달했고, 온전한 존재로서 나 자신의 곁형체로서 하늘로 올라갔다. 나는 이런 과정을 이 땅의 내 제자들이 경험하게 한다. 이로써 사람이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증거를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볼 수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영원히 연합했고 따라서 영원에 영원까지 나와 하나가 되었다.

나는 너희 모두가 나와 연합해서 내 자녀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고, 너희 모두가 유일하게 너희를 한때 생성되게 했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리저리 헤매고 이 길을 알지 못하고, 이 길을 찾지 못한다. 왜냐면 이 길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너희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간다. 이 넓은 길은 예수가 간 길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목표에 도달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할 일꾼을 너희에게 보내야만 한다.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내 사명을 받아 가르친 말씀을 이해하게 한다. 이 말씀은 나 자신이 예수를 통해 듣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왜냐면 그들이 내가 예수를 통해 말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너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 왜냐면 이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목표에 이르는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단지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도달하기를 원하고, 헛된 삶을 살지 않고, 그의 이 땅의 삶을 위해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인도를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계속하여 가르침이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내가 사람들을 그들의 운명에 맡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돌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책임감이 없이 사는 사람을 돌볼 수 없다. 왜냐면 그를 인도할 수 있기 위해 그가 자유의지로 자신을 나에게 맡겨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지가 없는 곳에서 나는 뒤로 물러선다. 그러나 그가 올바른 길을 가는 일을 항상 쉽게 해주고,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위로 향해 동행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의 의지를 요구한다. 왜냐면 내가 실제 너희에게 조언하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너희에게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일.

B.D. No. 7129

1958년 5월 24일

너희는 나와 함께 내 이름으로 매일을 시작하고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일의 과제를 성취시켜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 일이나 또는 영적인 일이든지 간에 너희가 축복된 일을 완성한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혼자 행하면, 즉 내가 없이 나에게 내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 일하면, 너희는 많은 헛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거나 또는 너희가 이 일을 항상 성공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긴밀하게 나를 생각하는 일이 이미 너희에게 내 도움을 보장하고 너희가 의식적으로 내 축복과 지원을 구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너희에게 좋게 되도록 일어날 것이고 너희는 모든 평안 속에 너희의 매일의 일할 수 있게 된다.

너희는 너희가 항상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너희가 하는 일에 내 축복을 요청함으로써 너희 주변에 보호벽을 세우지 않으면, 어두움의 세력이 항상 너희에게 들어올 수 있다. 어두움의 세력이 너희에게 한번 들어오게 되면, 초기에 들어오는 일을 막는 일보다 어두움의 세력을 다시 물리치는 일이 더욱 어렵다. 왜냐면 어두움의 세력이 너희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러면 너희 의지가 단지 모든 힘을 드려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을 회복하게 된다.

너희 혼을 위한 싸움은 계속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어두움의 세력들이 자주 너희가 승리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자주 너희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 왜냐면 너희가 제한이 없는 능력을 요청할 수 있고 내 인도와 내 보호와 내 축복을 구하는 긴밀한 기도를 통해 항상 요청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내가 없이 너희의 매일의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심장으로 내 이름을 불러야 하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해야 하고 너희 자

신을 제한이 없이 나에게 드려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 혼의 원수에 대항해 너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면 셀 수 없이 많은 빛의 존재들이 너희를 감싸고 어두움의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쾌활하고 염려 없이 힘과 내적인 평안을 느끼며 너희의 매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도 너희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내가 항상 임재해 있고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와 내적인 연결이 세상 일에 또는 영적인 일에 관련 된 너희의 모든 계획이 성공한다는 가장 좋은 보장이다. 그러면 나 자신이 항상 너희에게 역사하여 너희 생각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올바르고 너희에게 도움이 되게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분리되게 하고 연결을 느슨하게 하면,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준 너희에게서 내적인 평화를 빼앗는 생각이 너희를 불안하게 하고 항상 더욱 악한 세력이 들어오게 하는 다른 생각이 너희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어두움의 세력은 이제 내적인 갈등과 부조화를 일으키는 일을 계속해서 너희가 날마다 하는 일이 축복받지 못하게 하고 너희 혼이 어두움의 세력의 포로가 되는 위험에 빠지게 한다.

너희가 나를 도피처로 삼으면, 너희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다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언제든지 영적인 위험에 있는 너희를 도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없이는 어두움의 세력과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없고 너희는 내가 없이는 너무 연약하고 그러므로 어두움의 세력에 당하게 된다. 너희가 항상 또 다시 나에게 그리고 내 보호 아래 너희 자신을 맡기고 항상 또 다시 내 축복을 구하고 너희가 너희의 육체적인 행복과 그리고 영적인 행복을 나에게 구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을 잊지 않으면서 이로써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고백하면, 너희는 이런 모든 공격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대적자가 다시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을 세운 것이다. 왜냐면 대적자는 나와 내 이름 앞에 도망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단지 믿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 내 대적자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의 문을 열었다.

B.D. No. 6850

1957년 6월 12일

예 수 그리스도를 찾은 너희 모두에게 빛과 영광의 생명의 문이 열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과 여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과 영광의 생명의 문이 닫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한다. 왜냐면 그의 이 땅의 여정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아야 하고 너희가 그의 구속역사에 참여하려면, 십자가로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그의 이 땅의 삶의 목표였다. 왜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 인간들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세주를 발견하게 된다. 이말은 너희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너희의 죄를 그의 십자가 아래 그에게 옮기는 일을 의미하고 이로써 그의 신적인 사명을 믿는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고 이로써 너희가 너희를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와 분리시키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너희의 의지를 선언하는 일을

의미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 나 자신을 깨닫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생의 문에 도달하려면, 너희는 골고다 십자가로 가야만 한다. 왜냐면 다른 어떤 길도 이 문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너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너희는 질문하지 않는다. 너희 사람들에게 그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그의 사랑의 가르침이 너희에게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항상 또 다시 들을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귀를 막고 모든 말이 공허한 소리처럼 너희를 스쳐 지나가게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의 역사에 관해 듣는 내용은 너희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너희 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내용이 너희 안에서 아직 생명력이 있게 되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의 귀로 들은 것을 아직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언젠가 축복의 문 앞에서 기다려야만 하게 될 것이고 입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구속받지 못했고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고 그의 피가 너희를 깨끗이 씻을 수 없었고 그러므로 너희가 죄로 가득한 가운데 영원의 문 앞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너희 자신이 그에게 나아가야만 하고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신뢰하고 너희의 죄를 의식하고 그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고 그가 너희를 돌보고 또한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기를 진심으로 간구해야만 하고 너희는 그의 용서를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죄짐은 너희에게서 사라질 것이고 이제 빛으로 가는 길이 너희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이제 영원한 축복의 문이 너희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 너희가 여전히 그의 이름이 모든 것임을 믿기 원하고 깊은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너희를 여전히 짓누르는 죄의 결과인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을 믿기 원하면, 내가 이런 큰 죄짐을 너희에게서 넘겨받기 위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임했다.

이 땅에 사는 너희가 탄식하는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그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고 십자가에서 그의 이 땅의 길을 마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이뤄야만 한다. 그러면 그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그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자신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아멘

저세상과의 간격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

B.D. No. 7290

1959년 2월 22일

O | 땅의 삶에서 나를 멀리했던 사람과 이미 나를 찾고 빛의 의복을 입고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던 사람들 사이에 아주 큰 간격이 영의 나라에 있다. 빛의 의복을 입고 영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실제 볼 수 있고 그들의 처량한 상태를 측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 나를 멀리했던 사람은 자신이나 또는 같은 생각을 가진 영의 존재들 외

에는 볼 수 없고 그들과 다투고 싸우면서 자신의 형편에 해를 가하고 어떤 축복도 느낄 수 없다.

이런 혼들은 절대로 먼저 떠난 사람들이 이미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한 후에 이 땅을 떠났다면, 그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느 정도의 성장에 도달해야지만 축복된 재회를 할 수 있다. 비록 육체의 죽음 후에 모든 혼들이 들어가는 영의 나라일지라도 이런 혼들이 거하는 두가지의 세계가 있다. 이런 두개의 세계는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간적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각각의 나라의 상태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는 큰 간격이다. 그러나 이 간격은 극복돼야만 한다.

빛의 나라에서 항상 또 다시 알지 못하게 빛의 존재들이 임해 혼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해야만 한다. 이 일은 혼들이 자신의 환경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게 만드는 일이고 자유의 의지로 빛의 존재를 따르게 하는 일이고 빛의 존재는 그들을 항상 자신 가까이로 인도하려고 시도한다. 다시 말해 빛의 존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줘야만 하고 혼들이 스스로 원하면, 이런 모든 혼들을 위해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속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해줘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그들과 나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 어두움의 나라와 빛의 나라의 간격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비로소 혼이 깊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을 향하는 길에 들어서고 비로소 구속사역을 은혜가 그들에게 역사하고 그들을 서서히 이제 스스로 다시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하기 원하는 성장 정도에 도달한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감사한 빛을 청산하기 원하고 이런 감사의 빛이 그들 자신을 깊은 곳에서 아직 불행한 존재들을 돋는 일을 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간격은 극복되어 야만하고 단지 유일한 다리가 있다. 이 다리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택한 사람은 비록 그가 이 땅에서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거나 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제 나에게 인도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는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의 영역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는 다리이다. 이 땅에서 이미 나와 연결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찾지 못하고 단지 이름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와 긴밀한 연결이 없고 그러므로 구속사역의 은혜를 스스로 아직 요구하지 않고 이로써 그들의 원죄로부터 구속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너희 모든 사람은 이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저세상에 도달하면, 마찬가지로 깊은 절벽 앞에 설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구세주를 구하고 찾아야만 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구세주가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 땅에서 너희의 고백이 심장은 참여하지 않고 단지 입으로만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술이 아주 크게 자주 내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심장 안을 보고 나는 입술을 통해 속지 않는다. 나는 혼이 실제 속하지 않은 곳으로 혼을 배치할 수 없다. 혼이 저세상 나라에 도달하면, 자신 앞에 큰 간격을 볼 것이다. 또는 혼이 세상을 향한 감각이 그를 속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혼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혼이 돋는 자의 소개에 저항하지 않아 너희가 곧 하나님의 구세주를 혼의 형

편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올바르게 소개할 수 있으면, 혼에게 단지 유익이 될 것이다.

다리는 놓여야만 한다.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만약에 혼이 단지 먼저 큰 간격을 극복했으면, 혼의 의지가 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혼이 이제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갈망하고 찾으면,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하게 빛의 나라의 문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그러면 혼은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택한 것이고 나는 빛과 축복의 나라인 내 나라에서 그를 영접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

B.D. No. 8784

1964년 3월 19일

나희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빛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는 성장 정도에 이미 도달할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주려 한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 모두는 언젠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가 전적으로 영을 잃어버리고 저세상으로 들어가서 너희에게 빛이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닫하게 되면,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될 때까지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내 긍휼과 은혜가 비록 모든 혼에게 임하지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악한 삶을 살았다면, 나는 내 공의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지 고려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혼은 항상 단지 영의 나라에서 그의 이 땅의 삶에 합당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고 그들의 죄짐을 속죄하기 위해 측량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견뎌야만하게 된다.

그들이 저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게 되고 그들은 항상 더 깊게 타락해 마지막에 가서는 새로운 파문을 받는 운명을 맞이해야만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원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모든 구속사역의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바로 너희에게 영적인 위험을 준다. 나는 내 피조물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그들의 혼에게 전혀 다른 운명을 보장해 주는 십자가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돋기를 원한다. 사람이 죽기 전에 죄사함을 받는 일은 전 인생을 거쳐서 가장 추구할 만한 일이다. 그러면 그런 혼에게는 빛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고 혼은 축복을 넘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류는 구속사역의 큰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 내 대적자는 사람들이 이에 관해 알지 못하게 계속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인간 예수가 한때 이 땅에서 살았고 사람들에게 최고로 온전한 삶의 모범을 보였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도록 요청했다는 일을 믿을지라도 그들은 높은 영적인 사명이 인간 예수가 이 땅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역사가 최고의 긍휼의 역사였다는 것과 예수가 큰 죄를 용서해주려고 했고 넘치는 큰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의 역사로 단지 상쇄할 수 없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해줬고 이를 통해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의 넓은 간격을 연결시켰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된 역사는 하내 신비로운 역사로서 단지 영이 깨어난 사람이 이런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람들의 죄악 된 상태로 인해 이런 역사를 이해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죄사함을 구하기 위해 먼저 예수의 구속사역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가 원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영을 통해 예수와 깊이 연결된 가운데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리면 그는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는 자신 안의 영으로부터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받을 수 있고 모든 영적인 연관 관계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그가 나에게 대적하며 거절함으로 한때 잃었던 깨달음에 다시 도달할 수 있다. 그는 이런 모든 연관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자신의 영을 통해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제 사람에게 이런 지식을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그의 구속사역과 내가 그 안에서 인간이 된 역사를 진리에 합당하게 설명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진리가 그에게 확신을 주고 그가 같은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만들 수 있게 된다.

그가 전에 깨어난 사람을 통해 단지 듣기만 했던 내영을 항상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순수한 진리가 전파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악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해지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통해 초청 받는 것을 느끼고 진리의 능력에 감동을 받고 이로써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 사람들이 저세상에 들어 갈 때 너희의 운명을 얼마나 더 낫게 할 수 있는지를 알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의 죄로부터 구속을 받으면, 너희는 왜 내가 항상 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왜 내가 항상 그리고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영적인 연관관계를 설명하고 너희의 이성을 자극해 이에 관해 생각해 보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성취시키려는 단지 아주 작은 의지만으로도 이미 나에게 충분해 내가 너희를 인도해 너희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죄로부터 구속받는 일에 대한 지식은 단지 내 영의 역사를 너희에게 전해질 수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항상 내 대적자의 영향력 아래 최고로 중요한 이런 지식을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예수 자신을 이 땅의 삶을 통해 최고로 온전함에 도달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실제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이 문제가 예수가 없이는 인류가 영원히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로부터 떨어져서 머물게 되는 문제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가 없이는 혼들이 저세상에서 그들의 성장 과정을 절대로 이룰 수 없고 원죄의 짐이 그를 누르는 기간 동안로 바닥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저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세주를 찾고 빛의 존재들의 노력에 순응해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그들의 죄짐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높은 곳으로 인도할 예수에게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인도하도록 허용할 때까지 그들은 불쌍하고 궁휼히 여김받을 만한 상태로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가 자신의 궁휼의 역사인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원죄로부터 구속했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비록 함께 속한 근거이긴 하지만 인간 예수의 이 땅의 삶의 근거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가 영의 어두움 가운데 흑암의 권세자로부터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모든 가르침의 내용은 사랑의 가르침이었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살고 있고 그들은 자신이 최고로 온전한 존재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고 단지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그들의 자기 사랑이 죄악으로 인도해 죄를 짓게 했다. 이런 죄의 죄값은 저세상에서 비록 고통스러운 영원한 시간이 흐를지라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죄가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고 한때 나를 떠났던 어떤 사람도 비록 그가 영원에 영원까지 불행한 가운데 보낼지라도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원죄 때문이었다.

이 원죄가 바로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시킨 원인이다. 왜냐면 사랑이 스스로 죄를 사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내 영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주고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가장 큰 신비스러운 것을 설명해주려고 한다. 나는 마지막 때의 내 제자들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너희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자신을 그 안에 모신 세상의 구세주이고 나와 하나가 되었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

아멘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자유를 얻는 일. 예수 그리스도.

B.D. No. 6700

1956년 11월 28일

감 옥의 사슬이 너희를 아직 영원히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감옥의 사슬을 제거할 수 있다. 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모든 수단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구속 역사의 은혜를 활용하지 않고 너희 사슬을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분에게 피신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직 끝없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 땅의 삶에서 최종적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산다면, 너희는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아주 다른 방식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 혼의 성숙한 정도가 이 땅에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정도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을 제공받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은 저세상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숨겨지지 않고 외부에서 그들에게 전해질 수 없는 곳에서는 내 영이 지식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내가 약속한 대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일이 얼마나 크게 중요한지를 알아야만 하고 너희가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어 축복된 존재로서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너희 모두가 이 길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또한 이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 모두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 너희 모두는 행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자신을 드려야만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축복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사슬을 묶여 있어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든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되지 않았다. 너희 종말의 때까지 짧은 시간에 아직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너희가 그를 알고 그의 긍휼의 역사를 알지만 그를 거부하거나 무관심하게 머물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끝없이 오랜 시간 동안 다시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너희가 영원한 감옥에서 해방되는 어떤 은혜의 선물이 너희에게 제공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 너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의 죄와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대적자의 지배 아래 오래 머물 필요가 없고 너희는 너희를 그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모든 속박을 벗을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한 분에게 향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 한 분이 너희를 돋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도움을 청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만일 너희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한번 이런 한 분에게 자비를 구할 기회가 너희에게 주어질 때까지 끝없이 오랜 시간 동안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머물게 될 것이다.

자신이 묶여 있는 시간을 스스로 늘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기쁘고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너희를 그에게 맡겨 그가 또한 너희를 도와 자유를 얻게 하고 그가 또한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기를 구하라. 그를 깨달은 사람은 그를 지나치지 말라. 그가 단지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이 땅의 너희의 성장 과정의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가라. 그러면 너희는 축복되고 자유한 가운데 영원히 밤이 없는 빛의 나라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B.D. No. 6333

1955년 8월 15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구속 역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를 거부한다. 왜냐면 그를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그의 구속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여겨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세주인 사랑과 긍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사람들이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를 따르는 삶을 살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온 세상에 설교되고 그의 이름이 유일한 생명의 밧줄로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제시될지라도 예수가 이웃을 위해 어떤 일을 했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깨어난 영을 가진 예수가 죄와 죽음의 구원자가 된 이 땅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구속 사역의 의미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의 큰 위험을 깨닫고 인류가 유일하게 그들에게 축복된 삶을 줄 수 있는 분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서 설교되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그들에게 말하는 예수 자신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사로잡혀 더 이상 그를 떠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소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열광하는 만큼 빨리 잊는다. 이런 일은 지푸라기가 밝게 타오르다가 매우 빠르게 사라지는 일과 같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력이 있게 그들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심장 안으로 들어갈 입구를 찾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이 사랑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살아 있게 한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의 구속 사역에 대한 지식은 영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세상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구세주가 예외가 없이 모두를 자신의 십자가 아래로 유인할지라도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그들에게 혼을 위해 일하라고 권면할 것이다. 그는 항상 또 다시 자신의 사랑의 가르침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의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그가 그들의 심장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비로소 그의 사랑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 땅에 어떤 위험이 지배하는지를 알게 된다. 왜냐면 죽음은 각 개인에게 예정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죽음은 저세상의 끔찍한 운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를 통해 끔찍한 운명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혼은 영원히 어두움과 축복되지 못한 가운데 살아야만 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적은 의미가 있다. 왜냐면 인류가 그의 은혜의 역사를 많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인류가 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그를 깨달을 수 없다. 왜냐면 인류에게 사랑이 없는 동안에는 인류가 그를 깨닫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차가워졌다. 그러므로 끊임 없이 사랑을 설교해야만 하고 사랑이 충만하여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을 언급해야만 한다. 사람이 사랑의 계명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 그의 내면은 빛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예수는 사람들을 위해 죽었다.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십자가를 자신의 도피처로 삼을 것이고 유일하게 자신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예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아멘

이웃에게 예수에 관해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사명.

B.D. No. 8464

1963년 4월 11일

너희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곳에서 그에 대해 말하고 모든 각각의 사람들을 위한 그의 큰 의미를 강조해야 한다. 너희는 단지 가능한 곳에서 이웃이 그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고 그를 체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를 생명력있게 믿기 때문이다. 이런 적은 수의 사람들이 구속사역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웃에게 육체의 죽음 후에 느낄 수 있게 될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그를 믿는 믿음이 살아나게 시도해야 한다.

대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유도하기 위해 비록 이웃들이 이를 불편하게 느낄지라도 너희가 단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지 않고 놔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단순하게 예수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야 하고 그가 그의 관한 가르침에 관해 이미 생각해 보았는지 어떠한 결과에도 달하했는지 물어봐야 한다. 단지 자신의 세계관을 주장하고 이런 자신의 세계관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린 인간으로 인정하기를 원하면, 너희는 그들에게 그는 사람이었고 사람들 가운데 살았고 그러나 그는 영적인 사명을 성취해야 했고 모든 사람 자신이 원하면, 이 사명으로부터 유용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그들의 이 땅에 삶 자체에 삶의 목적이 있다고 여기고 그들은 그들의 혼이 계속 산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관점을 흔들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이런 눈이 먼 사람들에게 작은 빛을 비춰주는 일이 너희가 추구하는 일이고 너희가 그들이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성취시키게 돋기를 원하면, 나는 진실로 너희의 입술에 올바른 말을 넣어 줄 것이다.

너희 자신이 진리에 합당한 지식으로 충만하면, 항상 이런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자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내가 진실로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때문이고 인간의 혼이 육체의 죽음 후에 저세상으로 가게 되어 언젠가 축복 되길 원하면, 예수를 지나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죽음 후의 혼이 계속 산다는 이런 믿음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없다. 그러므로 그들을 가르쳐 주기가 어렵다. 그러나 가르쳐 주려는 시도를 하지 안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런 혼들이 당하는 처량함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이런 처량함을 피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게 되면, 그들은 너희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왜냐면 언젠가 영원한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모든 혼이 깨달음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 된 모든 것과 그의 이 땅의 삶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승천을 믿을 수는 없는 전설로 여긴다. 그들이 실제 이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일은 아직 빛 가운데 서지 못한 모든 혼들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 너희 사람들은 모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영화되어 저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산다. 이렇게 되기 위해 너희가 회피할 수 없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는 일이다. 왜냐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하나님의 대적자의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너희를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인정해야만 하고 그에게 헌신해서 그가 너희의 큰 죄를 자신에게 짊어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가 흘린 그의 피가 너희를 위해 흘린 것이 되게 해야 한다. 너희가 그를 영접하고 그가 너희로부터 큰 죄짐을 가져가기를 구하면, 너희는 갑작스럽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그에 관한 깨달음이 전해지면, 너희는 그에 관한 가장 작은 깨달음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구속하게 할지는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이 사역의 영적인 이유에 관한 가르침과 너희가 한때 원죄를 지었고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원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드려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치지 말라.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명을 완수해야만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짐을 십자가 아래로 가지고 가야만 한다는 것을 믿으라.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영접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아멘

세상 앞에서 고백하는 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

B.D. No. 4831

1950년 2월 6일

너희가 믿음에 대해 고백하고 나에 대한 입장을 고백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너희는 나를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나의 이름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왜냐면 심장으로 하는 고백이 나 자신을 너희 편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너희로부터 사라지고, 너희는 공개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 나의 가르침에 대해 너희 주변과 너희 자신 안에서 일어난 나의 역사에 대해 또한 미래에 대한 일을 말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침묵의 장벽 뒤에 많은 것을 숨길 수 있어, 진리를 감추기에 적당한 침묵의 장벽을 무너지게 한 것이다.

너희는 어디에서 듣지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에게 나를 고백하고 요구하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죽음 후의 삶을 믿는 너희를 조롱하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이 타락할 것이고, 그들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모든 것은 그들에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는 사람들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가 일어날 것이다. 믿는 사람은 지속적인 공격 목표가 되고, 이런 증오로부터 자신을 거의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은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면 나에게 속한 사람들과 나를 믿는 모든 믿음을 없애려는, 나의 대적자에게 속한, 나의 대적자의 추종자들 사이에 구별이 돼야 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필요하면, 영으로 또한 볼 수 있게, 너희와 함께 함을 알라. 이런 사람들이 너희보다 숫자적으로 월등할지라도, 그들에 비해 너희가 훨씬 강한 것을 알라. 왜냐면 내가 너희 편에서 싸우면, 너희는 절대로 패배당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공개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나를 위해 나서, 누가 너희에게 능력을 공급해주는지를 원수가 알 수 있게 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특별히 도움을 받는 일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공격받으면, 단지 전적인 믿음으로 나의 이름을 말하라. 나의 이름으로 공격에 대항하라. 심장으로, 입으로 나를 부르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약속한 것처럼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속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능력을 공급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구세주의 이름 안에 절대로 능가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종말의 때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모든 사랑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세상 앞에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증명한 것이고, 나는 그를 아주 특별하게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아주 곧 나를 고백하거나 또는 거부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그러면 기뻐하며 세상 앞에서 예수를 고백하라. 왜냐면 단지 예수를 통해 너희가 나에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예수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과 그의 도움을 통해 나에게,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예수의 큰 사랑을 통해, 죄로부터 세상을 구속한 예수와 그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존재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